

# 1994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1994. 12

최수영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성철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김병로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이우영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 조사목적 .....	1
2. 조사내용 .....	3
3. 조사방법 .....	4
가. 표본추출 .....	4
나. 조사방법 .....	5
다. 자료처리 및 분석 .....	6
4. 표본의 특성 .....	7
제 2 장 북한 관련 인식 .....	10
1. 북한에 대한 이미지 .....	10
2.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 .....	13
3. 북한의 변화정도 및 요인 .....	17
4. 김정일 정권의 지속성 .....	27
5.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 .....	28
6. 북한의 당면과제 .....	32
7. 북한에 관한 언론보도 .....	35

8. 남북한 분야별 비교 .....	37
가. 분야별 비교 .....	37
나. 변량분석 .....	42
제 3 장 통일 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	54
1.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관계 .....	54
2.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	58
3. 주한미군 주둔 .....	64
4.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	66
5. 북·미 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 .....	69
6. 「국가보안법」 개폐 .....	72
7. 주사파의 영향 .....	75
8. 통일교육의 경험 및 내용 .....	75
제 4 장 통일정책 관련 인식 .....	84
1. 통일의 필요성 .....	84
2. 통일예상시기 .....	90
3. 통일방안 인지도 및 기여도 .....	92
4. 남북관계개선 우선분야 .....	98
5. 통일의 기반사업 .....	101
6. 통일정책 수립과정 .....	105

7. 북한 붕괴와 통일	105
8. 북한 붕괴시 대처방안	110
9. 통일후 분야별 전망	111
가. 분야별 전망	111
나. 변량분석	116
제 5 장 통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23
1. 남북정상회담 개최	123
2. 남북경협 재개선언	126
3. 남북경협 추진방안	127
4.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129
5.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133
6. 통일비용 충당방법	13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39
1. 북한 관련 인식	139
2. 통일 관련 대내외 환경인식	141
3. 통일정책 관련 인식	144
4. 통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47
부록 : 설문지	153

## 그림 목차

〈그림 2-1〉 북한에 대한 이미지 .....	11
〈그림 2-2-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	14
〈그림 2-2-2〉 북한-상대국 축구시합시 응원 .....	16
〈그림 2-3-1〉 북한의 변화정도 .....	20
〈그림 2-3-2〉 북한의 변화요인 .....	22
〈그림 2-3-3〉 북한의 체제유지 요인 .....	25
〈그림 2-4〉 김정일 정권의 지속성 .....	28
〈그림 2-5〉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 .....	30
〈그림 2-6〉 북한의 당면과제 .....	33
〈그림 2-7〉 북한에 관한 언론보도 .....	36
〈그림 2-8〉 남북한 분야별 비교 .....	40
〈그림 3-1〉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관계 .....	55
〈그림 3-2-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	61
〈그림 3-2-2〉 통일에 비우호적인 주변국 .....	62
〈그림 3-3〉 주한미군 주둔 .....	66
〈그림 3-4〉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	68
〈그림 3-5〉 북·미 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 .....	72
〈그림 3-6〉 「국가보안법」 개폐 .....	74
〈그림 3-7〉 주사파의 영향 .....	77
〈그림 3-8-1〉 통일교육 경험 .....	79

〈그림 3-8-2〉 통일교육의 내용 .....	81
〈그림 4-1-1〉 통일의 필요성 .....	85
〈그림 4-1-2〉 통일이 필요한 이유 .....	87
〈그림 4-1-3〉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	90
〈그림 4-2〉 통일예상시기 .....	92
〈그림 4-3-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인지도 .....	94
〈그림 4-3-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여도 .....	98
〈그림 4-4〉 남북관계개선 우선분야 .....	100
〈그림 4-5〉 통일의 기반사업 .....	103
〈그림 4-6〉 통일정책 수립과정 .....	106
〈그림 4-7〉 북한 붕괴와 통일 .....	108
〈그림 4-8〉 북한 붕괴시 대처방안 .....	111
〈그림 4-9〉 통일후 분야별 전망 .....	113
〈그림 5-1〉 남북정상회담 개최 .....	124
〈그림 5-2〉 남북경협 재개선언 .....	127
〈그림 5-3〉 남북경협 추진방안 .....	129
〈그림 5-4〉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	131
〈그림 5-5〉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	134
〈그림 5-6〉 통일비용 충당방법 .....	136

## 표 목 차

〈표 1〉 응답자 분포 .....	8
〈표 2-1〉 북한에 대한 이미지 .....	12
〈표 2-2-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	15
〈표 2-2-2〉 북한-상대국 축구시합시 응원 (1) .....	18
〈표 2-2-2〉 북한-상대국 축구시합시 응원 (2) .....	19
〈표 2-3-1〉 북한의 변화정도 .....	21
〈표 2-3-2〉 북한의 변화요인 .....	24
〈표 2-3-3〉 북한의 체제유지 요인 .....	26
〈표 2-4〉 김정일 정권의 지속성 .....	29
〈표 2-5〉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 .....	31
〈표 2-6〉 북한의 당면과제 .....	34
〈표 2-7〉 북한에 관한 언론보도 .....	38
〈표 2-8-1〉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자유 및 인권보장 .....	44
〈표 2-8-2〉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선거방식 .....	45
〈표 2-8-3〉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생활수준 .....	46
〈표 2-8-4〉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주택보급 .....	47
〈표 2-8-5〉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의료혜택 .....	48
〈표 2-8-6〉 남북한 분야별 비교 : 교육 .....	49
〈표 2-8-7〉 남북한 분야별 비교 : 과학·기술 .....	50
〈표 2-8-8〉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치안 .....	51

〈표 2-8-9〉 남북한 분야별 비교 : 환경보호 .....	52
〈표 2-8-10〉 남북한 분야별 비교 : 군사력 .....	53
〈표 3-1-1〉 남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	56
〈표 3-1-2〉 남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	57
〈표 3-1-3〉 남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	59
〈표 3-1-4〉 남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	60
〈표 3-2-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	63
〈표 3-2-2〉 통일에 비우호적인 주변국 .....	65
〈표 3-3〉 주한미군 주둔 .....	67
〈표 3-4-1〉 북한·미국간의 수교 .....	70
〈표 3-4-2〉 북한·일본간의 수교 .....	71
〈표 3-5〉 북·미 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 .....	73
〈표 3-6〉 「국가보안법」 개폐 .....	76
〈표 3-7〉 주사과의 영향 .....	78
〈표 3-8-1〉 통일교육 경험 .....	80
〈표 3-8-2〉 통일교육의 내용 .....	83
〈표 4-1-1〉 통일의 필요성 .....	86
〈표 4-1-2〉 통일이 필요한 이유 .....	88
〈표 4-1-3〉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	91
〈표 4-2〉 통일예상시기 .....	93
〈표 4-3-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인지도 .....	96
〈표 4-3-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여도 .....	99
〈표 4-4〉 남북관계개선 우선분야 .....	102

〈표 4-5〉 통일외 기반사업 .....	104
〈표 4-6〉 통일정책 수립과정 .....	107
〈표 4-7〉 북한 붕괴와 통일 .....	109
〈표 4-8〉 북한 붕괴시 대처방안 .....	112
〈표 4-9-1〉 통일후 분야별 전망 : 정치적 민주화 .....	118
〈표 4-9-2〉 통일후 분야별 전망 : 경제성장 .....	119
〈표 4-9-3〉 통일후 분야별 전망 : 빈부격차 .....	120
〈표 4-9-4〉 통일후 분야별 전망 : 실업문제 .....	121
〈표 4-9-5〉 통일후 분야별 전망 : 지역격차 .....	122
〈표 5-1〉 남북정상회담 개최 .....	125
〈표 5-2〉 남북경협 재개선언 .....	128
〈표 5-3〉 남북경협 추진방안 .....	130
〈표 5-4〉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	132
〈표 5-5〉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	135
〈표 5-6〉 통일비용 충당방법 .....	138

## 제 1 장 서 론

### 1. 조사목적

1994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북한 핵문제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지 않은 채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는 급격히 고조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6월 카터 전 미(美)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긴장완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카터·김일성 회담 이후 북·미 3단계 1차회담이 7월에 개최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북·미회담은 8월 제네바에서 재개되었으나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북·미 3단계 2차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문을 채택·공포(10.21)함으로써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 정부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남북경협 재개선언에 대해 북한은 이를 배격한다고 천명하

고 있어 우리의 기대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북한의 이중적인 대남정책이 남북관계개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도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고 당면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중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남한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여 남한 기업의 대북진출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실질적인 남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지만, 북한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관계가 비관적인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미회담의 타결은 대외적 고립, 권력승계, 경제난 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부분적이지만 생존 차원에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북한의 인식전환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히 변하고 있는 국제환경 및 남북한 내부의 문제들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에 들뜨게 하다가 다시 위축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이 통일 관련 주변환경 및 북한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통일에 대비하여 분명히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1994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의 목적은 1992년 이래 매년 민족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문제와 관

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파악·수렴하고,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토대로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 및 합리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조사내용

이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통일문제 관련사항을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 관련 대내외 환경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통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2장의 북한 관련 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문1),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문2, 문3), 북한의 변화정도 및 요인(문4, 문5, 문6), 김정일 정권의 지속성(문7),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문8), 북한의 당면과제(문9), 북한에 관한 언론보도(문10), 남북한 분야별 비교(문11)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3장의 통일 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은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관계(문12),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문13, 문14), 주한미군 주둔(문15), 북한과 미·일간의 수교(문16), 북·미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문35), 「국가보안법」 개폐(문29), 주사파의 영향(문37), 통일교육의 경험 및 내용(문30, 문31)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4장의 통일정책 관련 인식에서는 통일의 필요성(문17, 문18, 문19), 통일예상시기(문33), 통일방안 인지도 및 기여도(문21, 문38), 남북관계 개선 우선분야(문22), 통일의 기반사업(문28), 통일정책 수립과정(문39), 북한 붕괴와 통일(문24), 북한 붕괴시 대처방안(문25), 통일후 분야별 전망(문32) 등이 조사되었다.

제5장은 통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1994년에 쟁점으로 부각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23), 남북경협 재개선언(문20), 남북경협 추진방안(문36),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문34)과 통일비용 관련 조기통일(문26) 및 충당방법(문27)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조사방법

#### 가. 표본추출

이 여론조사는 1994년 11월 현재 제주도 등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6개 특별시 및 직할시와 8개 도(道)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에서 1,500명을 조사대상자로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으로 다단계 지역 무작위 추출법(multi-stage

are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실제의 표집은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1단계에서는 전국을 6개의 특별시 및 직할시의 44개 구(區)와 8개 도의 51개 시(市) 및 군(郡)지역 등 95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통계청, 1992. 12)에 의거하여 표본수를 배분하였다.

2단계에서는 특별시·직할시와 도의 시지역에서는 동(洞)을, 그리고 군지역에서는 읍(邑)·면(面)을 선정하고, 3단계에서는 동에서는 통반(班)을, 읍·면에서는 리(里)를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전국에서 111개의 최종표집단위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최종표집단위인 반과 리에서 성별 및 연령에 근거하여 할당량을 부여하는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택하여 각 표집단위별로 7~16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부재시 또는 응답을 거절할 경우 동일지역 내에서 성별, 연령 등이 같은 다른 응답자로 대체하였다.

#### 나. 조사방법

먼저 조사에 앞서 분야별로 조사항목을 정한 다음 분야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지를 구성하고,

사회조사 연구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이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하였다. 그리고 1994년 10월 말 서울지역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을 더욱 간결하고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최종문항을 확정하였다.

본조사는 1994년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1,500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현대리서치연구소의 주관아래 현지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고용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는 방법과 자기기입 방식이 병행하여 사용되었다.

#### 다.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응답내용의 논리성 및 범위 검토를 거친 후 코딩하여 퍼스널 컴퓨터에서 통계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항목별로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성별, 연령, 학력 등 배경변수와 교차분석(cross-tabulation)하여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의 응답이 등간척도로 되어있는 문항(남북한 분야별 비교 및 통일후 분야별 전망)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 등의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하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변량분석 및 교차분석은  $P < 0.05$ 의 유의도가 있는 것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결과의 오차는 95%의 신뢰구간에서 표본수 1,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pm 2.53\%$ 를 넘지 않는다.

#### 4. 표본의 특성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20세 이상인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집된 1,500명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대표한다. 현지 조사 결과 총 1,500개의 설문지는 모두 회수되었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모집단의 특성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표 1> 참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1990년 현재의 모집단인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남녀 성비는 20세 이상인 모집단의 성비(남자 49.4%, 여자 50.6%)와 거의 일치하였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30대, 40대의 경우 모집단의 연령별 분포(20대 31.4%, 30대 26.6%, 40대 17.0%, 50대 13.1%, 60대 이상 11.9%)와 차이가 없으나, 50대는 실제의 연령 분포보다 적게 응답하였으며 60대 이상은 많이 응답하였다.

〈표 1〉 응답자 분포

구 분		응답자 수	응답자 비율	계
성 별	남 자	740	49.3	1,500 (100.0)
	여 자	760	50.7	
연 령	20대	472	31.5	1,500 (100.0)
	30대	402	26.8	
	40대	251	16.7	
	50대	308	20.5	
	60대 이상	67	4.5	
거 주 지 역	서울	377	25.1	1,500 (100.0)
	인천	64	4.3	
	경기	218	14.5	
	부산	132	8.8	
	대구	78	5.2	
	광주	37	2.5	
	대전	35	2.3	
	경남	127	8.5	
	경북	103	6.9	
	충남	68	4.5	
	충북	48	3.2	
전남	86	5.7		
전북	72	4.8		
강원	55	3.7		
학 력	무학	43	2.9	1,500 (100.0)
	국민학교	131	8.7	
	중학교	164	10.9	
	고등학교	698	46.5	
	초급 전문대	156	10.4	
	4년제 대학 대학원 이상	292 16	19.5 1.1	
가 구 소 득	40만원 미만	28	1.9	1,500 (100.0)
	40~79만원	115	7.7	
	80~119만원	281	18.7	
	120~199만원	543	36.2	
	200~299만원	339	22.6	
	300~499만원	143	9.5	
	500~999만원	36	2.4	
	1,000만원 이상	15	1.0	

그러나 학력에 있어서는 모집단과 표본 사이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응답자의 학력은 모집단의 학력별 분포(불취학 9.3%, 국민 18.5%, 중학 17.2%, 고등 36.2%, 초대·전문 3.5%, 대학 이상 15.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집단의 조사시점이 1990년인데 비해 이 여론조사시기는 1994년으로 4년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본추출단계에서의 계획대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의 분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제 2 장 북한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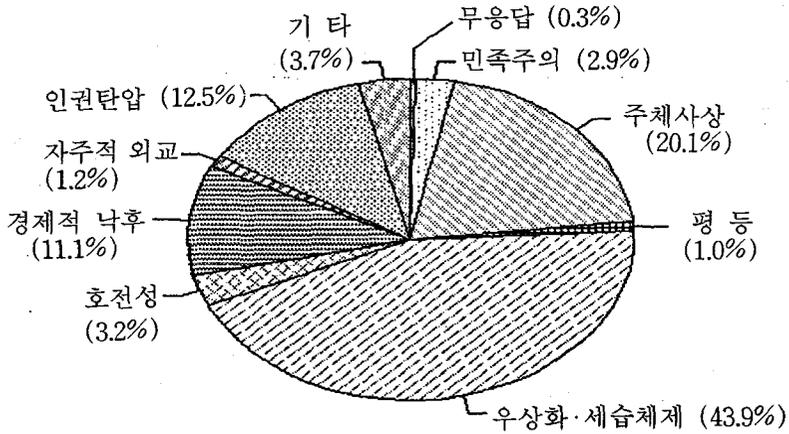
### 1.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우상화·세습체제」라는 응답이 전체의 4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체사상」(20.1%), 「인권탄압」(12.5%), 「경제적 낙후」(11.1%), 「호전성」(3.2%) 등이었으며, 「민족주의」(2.9%), 「자주적 외교」(1.2%), 「평등」(1.0%)으로 응답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그림 2-1〉 참조).

1993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우상화·세습체제」, 「인권탄압」, 「경제적 낙후」, 「호전성」 등 부정적 이미지는 전체의 70.7%로 작년의 73.0% 보다 약간 감소되었으며, 「주체사상」, 「민족주의」, 「자주적 외교」, 「평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전체의 25.2%로 1993년의 24.3% 보다 미미하게 늘어났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이미지의 내용 중 「우상화·세습체제」는 1993년의 50.3%에서 43.9%로 약화된 반면 「인권탄압」(9.7%에서 12.5%)과 「경제적 낙후」(9.2%에서 11.1%)라는 이미지는 강화되었다. 이는 1994년 들어 미국무부 및 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개·비난하

〈그림 2-1〉 북한에 대한 이미지



였으며, 시베리아 별목노동자의 탈출·귀순, 여만철 일가의 귀순, 강명도·조명철과 같은 북한 고위층 자녀들의 귀순 등으로 북한 사회의 인권문제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순자들을 통해 북한의 경제적 열악성이 폭로된 사실에도 고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의 배경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표 2-1〉 참조).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갖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학력과 소득수준은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 2-1〉 북한에 대한 이미지

변수	항목	평	자	민	주	우	호	경	인	기	무	유의도
		등	주	족	체	상	전	제	권	타	응	
		적	외	주	사	화·	성	적	탄	타	답	
		교	의	상	세	습	체	낙	압			
성별	남자	1.4	1.8	3.6	22.3	40.8	3.4	10.8	11.9	4.1	0.0	X <sup>2</sup> =21.21 P=0.012 N=1,500
	여자	0.7	0.7	2.2	17.9	47.0	3.0	11.4	13.2	3.3	0.7	
연령	20대	1.3	1.3	4.0	24.2	45.3	1.3	9.7	10.6	2.3	0.0	X <sup>2</sup> =101.29 P=0.000 N=1,500
	30대	1.2	1.2	3.0	18.7	49.5	2.0	10.7	11.7	2.0	0.0	
	40대	0.0	1.6	2.0	21.9	43.4	4.0	12.7	10.4	3.2	0.8	
	50대	1.0	0.3	2.3	17.2	38.0	6.5	10.7	16.6	6.5	1.0	
	60대 이상	1.5	3.0	1.5	6.0	29.9	6.0	19.4	20.9	11.9	0.0	
거주지역	서울/경기	0.9	0.8	3.0	21.1	42.9	3.8	11.5	12.0	3.9	0.0	X <sup>2</sup> =66.65 P=0.001 N=1,500
	경상	1.1	0.9	2.5	23.2	43.9	3.9	9.8	11.4	2.3	1.1	
	전라	1.5	4.1	3.6	11.8	44.1	2.1	11.3	13.3	8.2	0.0	
	충청	0.7	0.7	3.3	17.9	47.7	0.7	12.6	15.2	1.3	0.0	
	강원	0.0	0.0	1.8	18.2	45.5	1.8	12.7	18.2	1.8	0.0	
학력	중졸 이하	0.6	0.9	1.2	15.1	34.3	5.0	14.8	18.3	8.3	1.5	X <sup>2</sup> =103.87 P=0.000 N=1,500
	고졸	1.1	1.0	3.0	19.9	47.0	1.9	10.5	13.6	2.0	0.0	
	대재 이상	1.1	1.7	4.1	23.9	46.3	3.9	9.5	6.7	2.8	0.0	
가구소득	79만원 이하	2.8	2.1	2.1	16.8	37.1	3.5	11.2	17.5	4.9	2.1	X <sup>2</sup> =61.91 P=0.005 N=1,500
	80~119만원	1.1	1.1	1.4	17.1	42.3	4.3	10.7	18.5	3.2	0.4	
	120~199만원	0.4	0.7	3.3	20.3	46.0	2.4	12.2	10.7	3.9	0.2	
	200~299만원	0.6	1.2	4.1	21.5	43.1	4.1	11.8	10.3	3.2	0.0	
	300만원 이상	2.1	2.1	2.6	23.7	46.9	2.1	7.7	9.3	3.6	0.0	
전체		1.0	1.2	2.9	20.1	43.9	3.2	11.1	12.5	3.7	0.3	N=1,500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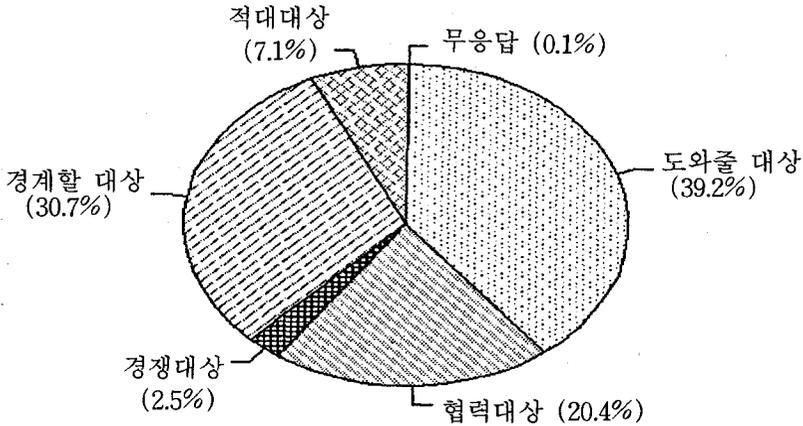
한편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 중 우상화·세습체제에 대해서는 이와는 반대 현상을 보였다. 즉 연령별로 보면 50대, 60대 이상의 기성세대 보다는 오히려 20대, 30대, 40대 등의 젊은 세대가, 학력과 소득면에서는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상화·세습체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반권위주의적이며 정치의식이 높기 때문에 우상화·세습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지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도와주어야 할 대상」(39.2%)과 「대등한 협력대상」(20.4%) 등의 도와주거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59.6%였으며, 「경계해야 할 대상」(30.7%), 「적대대상」(7.1%), 「경쟁대상」(2.5%)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40.3%에 이르렀다(<그림 2-2-1> 참조).

1993년과는 달리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는 항목을 첨가함으로써 응답 분포도는 매우 달라졌으며, 그 중 「도와주어

〈그림 2-2-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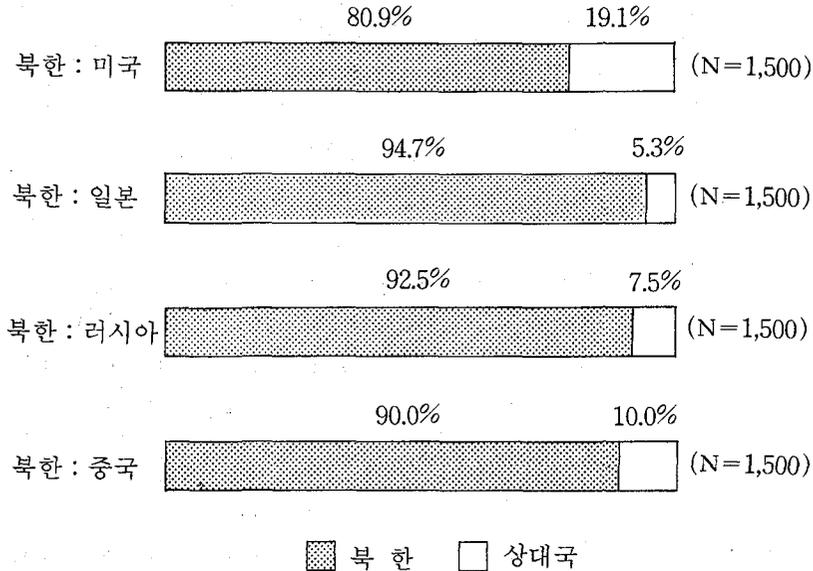
야 할 대상」은 50.8%에서 39.2%로, 「대등한 협력대상」은 28.7%에서 20.4%로, 「적대대상」은 14.3%에서 7.1%로 각각 줄어들었다.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을 「대등한 협력대상」으로 보는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저학력층일수록 북한을 「경계의 대상」 내지 「적대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표 2-2-1〉 참조).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각각 축구시합을 할 경우 어느 나라를 응원할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물어 보았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미국과 경기를 하는 경우 80.9%이며, 일본과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94.7%였다. 이는 1993년의 71.8%, 88.1%

〈표 2-2-1〉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변 수		항 목		경쟁 대상	경계할 대상	적대 대상	무응답	유의도
		도와줄 대상	협력 대상					
성 별	남 자	39.1	20.5	1.6	32.4	6.4	0.0	X <sup>2</sup> =8.63 P=0.125 N=1,500
	여 자	39.3	20.3	3.3	29.1	7.8	0.3	
연 령	20대	37.5	29.9	3.0	25.4	4.2	0.0	X <sup>2</sup> =72.81 P=0.000 N=1,500
	30대	41.5	21.1	2.2	28.6	6.5	0.0	
	40대	41.0	13.5	2.4	33.1	10.0	0.0	
	50대	37.3	13.0	1.9	37.7	9.4	0.6	
	60대 이상	38.8	9.0	3.0	40.3	9.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6.9	21.7	3.0	31.3	7.1	0.0	X <sup>2</sup> =25.53 P=0.182 N=1,500
	경 상	37.5	20.2	2.5	30.9	8.4	0.5	
	전 라	45.1	20.5	1.5	25.6	7.2	0.0	
	충 청	45.7	19.2	0.7	31.8	2.6	0.0	
	강 원	41.8	9.1	3.6	38.2	7.3	0.0	
학 력	중졸 이하	39.6	11.2	1.8	36.4	10.4	0.6	X <sup>2</sup> =65.59 P=0.000 N=1,500
	고 졸	39.7	19.1	3.7	29.8	7.7	0.0	
	대재 이상	38.1	29.1	1.1	28.0	3.7	0.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2.0	10.5	3.5	37.8	5.6	0.7	X <sup>2</sup> =27.22 P=0.129 N=1,500
	80~119만원	39.9	20.3	2.1	28.1	9.6	0.0	
	120~199만원	38.7	22.1	3.1	28.9	7.0	0.2	
	200~299만원	37.8	22.1	1.5	31.0	7.7	0.0	
	300만원 이상	40.2	20.1	2.1	34.0	3.6	0.0	
전 체		39.2	20.4	2.5	30.7	7.1	0.1	N=1,500

〈그림 2-2-2〉 북한-상대국 축구시합시 응원



에 비해 각각 9.1%, 6.6% 증가한 것이다. 한편, 러시아와 경기를 하는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은 92.5%이며, 중국과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90.0%로 이 역시 1993년의 87.7%와 83.8%에 비해 각각 4.8%, 6.2%가 증가하였다(〈그림 2-2-2〉 참조).

어느 경우든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압도적일 뿐 아니라 1993년에 비해 북한에 대한 친화력은 5~9% 정도 높아졌다. 이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보다는 민족적 감정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을 응원하는 쪽이 많았으며,

고학력·고소득층일수록 주변국 보다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40대 이하의 연령층이 50대 이상의 연령층 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높으며 그 중 50대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경기·충청지방이 타지역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2-2-2〉 참조).

### 3. 북한의 변화정도 및 요인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2~3년전에 비하여 북한이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약간 변했다」(54.0%) 혹은 「많이 변했다」(17.8%) 등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71.8%였고, 「거의 변하지 않았다」(23.5%)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4.7%) 등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8.2%였다(〈그림 2-3-1〉 참조).

199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북한이 2~3년 전에 비해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71.8%)은 1993년(65.7%)보다 6.1% 증가하였다. 또한 1993년의 경우 60세 이상의 국민들이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고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변했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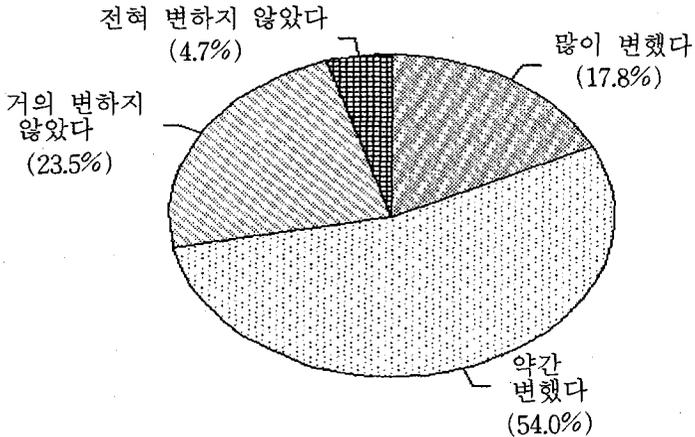
〈표 2-2-2〉 북한-상대국 축구시합시 응원(1)

항 목 변 수		북한 : 미국		유의도	북한 : 일본		유의도
		북한 응원	미국 응원		북한 응원	일본 응원	
성 별	남 자	86.9	13.1	$X^2=32.85$ $P=0.000$ $N=1,500$	96.4	3.6	$X^2=7.56$ $P=0.006$ $N=1,500$
	여 자	75.1	24.9		93.0	7.0	
연 령	20대	85.4	14.6	$X^2=32.36$ $P=0.000$ $N=1,500$	97.0	3.0	$X^2=29.24$ $P=0.000$ $N=1,500$
	30대	85.1	14.9		96.8	3.2	
	40대	79.7	20.3		93.6	6.4	
	50대	70.8	29.2		89.0	11.0	
	60대 이상	76.1	23.9		95.5	4.5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6.2	13.8	$X^2=24.47$ $P=0.000$ $N=1,500$	97.3	2.7	$X^2=24.26$ $P=0.000$ $N=1,500$
	경 상	75.7	24.3		93.2	6.8	
	전 라	75.9	24.1		89.2	10.8	
	충 청	82.1	17.9		96.0	4.0	
	강 원	74.5	25.5		90.9	9.1	
학 력	중졸 이하	66.9	33.1	$X^2=86.91$ $P=0.000$ $N=1,500$	88.2	11.8	$X^2=39.97$ $P=0.000$ $N=1,500$
	고 졸	79.8	20.2		95.6	4.4	
	대재 이상	92.9	7.1		98.1	1.9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67.1	32.9	$X^2=28.72$ $P=0.000$ $N=1,500$	84.6	15.4	$X^2=32.94$ $P=0.000$ $N=1,500$
	80~119만원	78.3	21.7		94.7	5.3	
	120~199만원	81.6	18.4		95.6	4.4	
	200~299만원	83.2	16.8		96.2	3.8	
	300만원 이상	89.2	10.8		96.9	3.1	
전 체		80.9	19.1	$N=1,500$	94.7	5.3	$N=1,500$

〈표 2-2-2〉 북한-상대국 축구시합시 응원(2)

항 목 변 수		북한 : 러시아		유의도	북한 : 중국		유의도
		북한 응원	러시아 응원		북한 응원	중국 응원	
성 별	남 자	94.5	5.5	$X^2=7.30$ $P=0.007$ $N=1,500$	93.8	6.2	$X^2=22.41$ $P=0.000$ $N=1,500$
	여 자	90.7	9.3		86.3	13.7	
연 령	20대	93.4	6.6	$X^2=19.73$ $P=0.000$ $N=1,500$	91.3	8.7	$X^2=15.68$ $P=0.004$ $N=1,500$
	30대	95.5	4.5		92.8	7.2	
	40대	93.2	6.8		89.2	10.8	
	50대	87.0	13.0		84.4	15.6	
	60대 이상	91.0	9.0		92.5	7.5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5.3	4.7	$X^2=18.44$ $P=0.001$ $N=1,500$	93.9	6.1	$X^2=20.81$ $P=0.003$ $N=1,500$
	경 상	89.8	10.2		86.4	13.6	
	전 라	89.2	10.8		87.7	12.3	
	충 청	94.7	5.3		88.1	11.9	
	강 원	87.3	12.7		85.5	14.5	
학 력	중졸 이하	86.7	13.3	$X^2=30.04$ $P=0.000$ $N=1,500$	82.8	17.2	$X^2=43.69$ $P=0.000$ $N=1,500$
	고 졸	92.4	7.6		89.0	11.0	
	대재 이상	97.0	3.0		96.8	3.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4.6	15.4	$X^2=17.13$ $P=0.002$ $N=1,500$	80.4	19.6	$X^2=23.02$ $P=0.000$ $N=1,500$
	80~119만원	91.8	8.2		87.9	12.1	
	120~199만원	93.2	6.8		90.2	9.8	
	200~299만원	93.5	6.5		93.2	6.8	
	300만원 이상	95.9	4.1		93.8	6.2	
전 체		92.5	7.5	$N=1,500$	90.0	10.0	$N=1,500$

〈그림 2-3-1〉 북한의 변화정도



등 연령별, 가구소득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1994년에는 변수별 편차가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2-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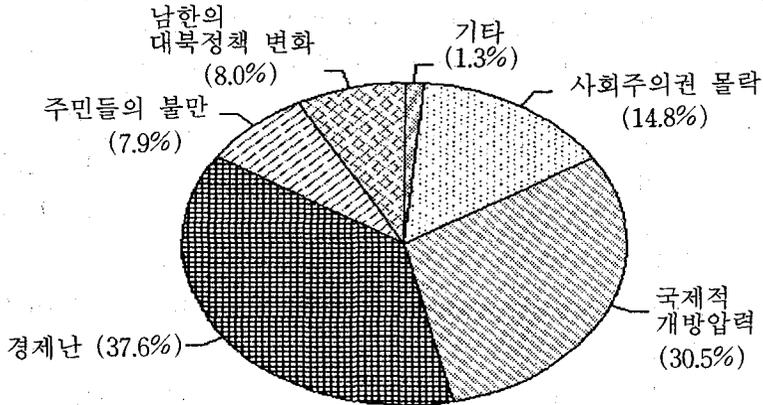
국민들이 북한의 변화 혹은 체제유지의 요인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이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총 1,077명)에게는 “북한이 변했다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총 423명)에게는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면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북한 변화의 요인 중 응답자들이 첫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경제난」(37.6%)이며, 그 다음으로 「국제적 개방압력」

〈표 2-3-1〉 북한의 변화정도

변 수		항 목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유의도
		많이 변했다	약간 변했다			
성 별	남 자	19.1	52.0	23.5	5.4	X <sup>2</sup> =3.74 P=0.291 N=1,500
	여 자	16.6	55.9	23.4	4.1	
연 령	20대	20.6	52.8	22.2	4.4	X <sup>2</sup> =6.26 P=0.902 N=1,500
	30대	15.9	54.0	25.4	4.7	
	40대	17.5	56.6	21.9	4.0	
	50대	16.9	54.2	23.4	5.5	
	60대 이상	14.9	52.2	26.9	6.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6.5	54.3	24.9	4.2	X <sup>2</sup> =19.25 P=0.083 N=1,500
	경 상	18.0	57.3	19.3	5.5	
	전 라	24.6	50.8	21.0	3.6	
	충 청	15.9	49.0	29.1	6.0	
	강 원	12.7	49.1	32.7	5.5	
학 력	중졸 이하	16.9	56.5	21.3	5.3	X <sup>2</sup> =3.58 P=0.734 N=1,500
	고 졸	17.0	54.2	23.9	4.9	
	대재 이상	19.6	51.9	24.4	4.1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6.8	51.0	26.6	5.6	X <sup>2</sup> =5.735 P=0.930 N=1,500
	80~119만원	17.4	53.0	24.2	5.3	
	120~199만원	16.6	55.2	23.6	4.6	
	200~299만원	18.6	56.3	21.2	3.8	
	300만원 이상	21.1	50.0	23.7	5.2	
전 체		17.8	54.0	23.5	4.7	N=1,500

〈그림 2-3-2〉 북한의 변화요인



(30.5%), 「사회주의권의 몰락」(14.8%),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8.0%), 「주민들의 불만」(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2〉 참조). 1993년과 비교해 보면, 「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한 응답자는 25.1%에서 14.8%로 크게 줄었으며, 「경제난」에 대한 응답자는 27.7%에서 37.6%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사회주의권 몰락의 파장은 약화된 반면 체제 내부의 경제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이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변화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특히 사회주의권의 몰락의 여파는 약화되었으나 국제적 개방압력에 대한 응답은 1993년의 29.5%에서 30.5%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기

초해 볼 때 김일성 사망 이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핵 사찰 및 경제개방 압력 등이 북한의 변화를 몰고 온 근본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를 보면 다른 변수는 무의미하며 학력만이 유일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고학력자일수록 북한의 변화요인에 대해 「사회주의권 붕괴」를 지적한 응답자가 많은 반면,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에 기인한다는 응답은 적었다(〈표 2-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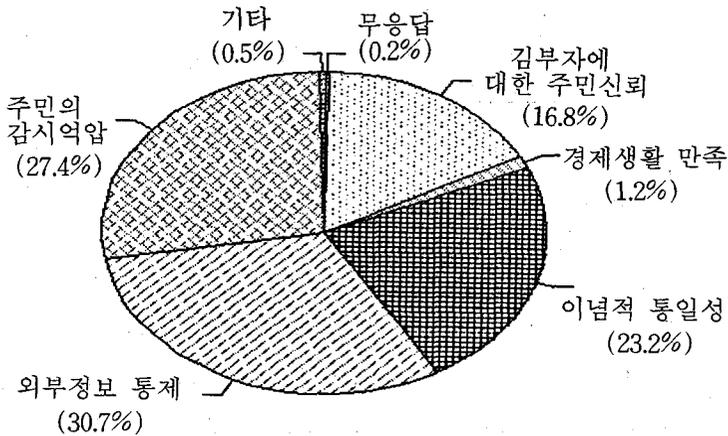
북한이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북한체제유지 요인에 대해 「외부정보에 대한 통제」(30.7%),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27.4%), 「이념적 통일성(주체사상)」(23.2%),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16.8%), 「경제생활 만족」(1.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2-3-3〉 참조).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이유로 외부정보의 통제, 주민의 감시와 억압 등 강제적 체제유지 요인으로 응답한 비율(58.1%)이 높았다.

1993년의 경우에는 북한체제의 유지 요인에 대해 외부의 정보통제(34.6%), 이념적 통일성(28.8%), 주민들에 대한 감시·억압(25.6%),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9.7%), 경제생활 만족(0.6%) 등으로 응답하였다. 1993년과 비교해 보면 외부의 정보통제가 주요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으나 1994년에는 이념적 통일성 보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

〈표 2-3-2〉 북한의 변화요인

변 수		항 목	사회 주의권 몰락	국제적 개방 압력	경 제 난	주민 들의 불만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기 타	유의도
성 별	남 자		18.1	28.3	36.9	7.6	7.4	1.7	X <sup>2</sup> =11.11 P=0.493 N=1,077
	여 자		11.6	32.5	38.3	8.2	8.5	0.9	
연 령	20대		14.5	30.3	38.2	8.7	6.4	2.0	X <sup>2</sup> =28.41 P=0.100 N=1,077
	30대		17.8	28.5	38.1	8.2	6.4	1.1	
	40대		17.2	30.6	35.5	5.9	10.2	0.5	
	50대		12.3	33.8	36.1	8.2	8.2	1.4	
	60대 이상		0.0	26.7	46.7	6.7	20.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5.8	29.1	40.0	8.8	5.1	1.1	X <sup>2</sup> =30.70 P=0.060 N=1,077
	경 상		16.0	32.6	33.5	7.6	9.1	1.2	
	전 라		8.2	28.6	40.8	5.4	15.0	2.0	
	충 청		13.3	28.6	37.8	9.2	9.2	2.0	
	강 원		20.6	41.2	29.4	5.9	2.9	0.0	
학 력	중졸 이하		9.3	29.0	39.9	8.9	11.7	1.2	X <sup>2</sup> =24.88 P=0.006 N=1,077
	고 졸		13.7	32.4	36.0	8.0	8.5	1.4	
	대재 이상		20.5	28.6	38.3	6.9	4.5	1.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3	27.8	37.1	9.3	15.5	1.0	X <sup>2</sup> =28.98 P=0.088 N=1,077
	80~119만원		16.7	32.3	30.8	11.1	7.6	1.5	
	120~199만원		12.3	28.7	43.6	7.2	6.7	1.5	
	200~299만원		15.7	32.3	37.0	6.3	7.9	0.8	
	300만원 이상		21.0	31.2	31.9	7.2	7.2	1.4	
전 체			14.8	30.5	37.6	7.9	8.0	1.3	N=1,077

〈그림 2-3-3〉 북한의 체제유지 요인



압이 강력한 요인으로 부상되었다. 동시에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로 북한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1993년의 9.7%에 비해 1994년에는 16.8%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김일성 사망 이후 대중언론매체에 공개된 북한 주민들의 조문행렬과 광적인 숭배장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요인에 대한 배경변수별 차이를 보면 중졸 이하 사람들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36.7%)을 많이 지적한 반면, 대재 이상의 고학력자는 외부의 정보 통제(43.2%)를 주로 지적하였다(〈표 2-3-3〉 참조).

〈표 2-3-3〉 북한의 체제유지 요인

변 수		항 목		김부자에 대한 주민신뢰	경제 생활 만족	이념 적통 일성	외부 정보 통제	주민의 감시 억압	기 타	무 응 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14.5	0.5	24.3	34.1	25.7	0.5	0.5	X <sup>2</sup> =6.53 P=0.367 N=423		
	여 자	19.1	1.9	22.0	27.3	29.2	0.5	0.0			
연 령	20대	11.9	1.6	25.4	31.7	28.6	0.0	0.8	X <sup>2</sup> =26.10 P=0.348 N=423		
	30대	21.5	1.7	23.1	36.4	16.5	0.8	0.0			
	40대	20.0	1.5	20.0	29.2	27.7	1.5	0.0			
	50대	13.5	0.0	24.7	24.7	37.1	0.0	0.0			
	60대 이상	22.7	0.0	13.6	22.7	40.9	0.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6.1	1.0	27.6	27.6	26.6	0.5	0.5	X <sup>2</sup> =18.53 P=0.777 N=423		
	경 상	15.6	1.8	14.7	36.7	30.3	0.9	0.0			
	전 라	16.7	0.0	31.3	29.2	22.9	0.0	0.0			
	충 청	22.6	0.0	15.1	32.1	30.2	0.0	0.0			
	강 원	14.3	4.8	28.6	28.6	23.8	0.0	0.0			
학 력	중졸 이하	21.1	1.1	18.9	21.1	36.7	1.1	0.0	X <sup>2</sup> =24.25 P=0.019 N=423		
	고 졸	18.4	2.0	25.4	26.9	26.4	0.5	0.5			
	대재 이상	11.4	0.0	22.7	43.2	22.7	0.0	0.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1.7	0.0	23.9	17.4	37.0	0.0	0.0	X <sup>2</sup> =34.82 P=0.071 N=423		
	80~119만원	20.5	2.4	25.3	24.1	25.3	2.4	0.0			
	120~199만원	19.6	0.7	24.2	32.0	22.9	0.0	0.7			
	200~299만원	4.7	2.4	21.2	42.4	29.4	0.0	0.0			
	300만원 이상	17.9	0.0	19.6	30.4	32.1	0.0	0.0			
전 체		16.8	1.2	23.2	30.7	27.4	0.5	0.2	N=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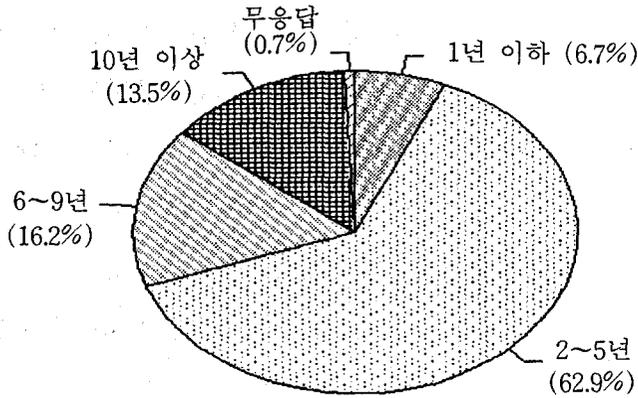
#### 4. 김정일 정권의 지속성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사는 김정일 정권의 지속 정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귀하는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김정일 정권의 지속 전망에 대하여 「2~5년」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62.9%로 가장 많고 「6~9년」(16.2%), 「10년 이상」(13.5%), 「1년 또는 그 이하」(6.7%)의 순으로 예측하였다(<그림 2-4> 참조).

199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1년 이하」, 「10년 이상」 등 극단적인 응답은 감소하였다. 즉 1년 또는 1년 이하라는 견해는 1992년의 9.7%에서 6.7%로 감소되었고 10년 이상이라는 견해도 18.6%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2~5년」에 대한 응답은 63.6%에서 62.9%로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으며 대신 「6~9년」에 대한 응답은 8.1%에서 16.2%로 증가하였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 정권을 현실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극단적인 평가보다는 중간적 평가, 단기적 평가 보다는 중기적 평가 쪽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배경변수들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1년 이하」 또는 「10년 이상」 등 극단적인 응답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지역사람들이

〈그림 2-4〉 김정일 정권의 지속성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김정일 정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표 2-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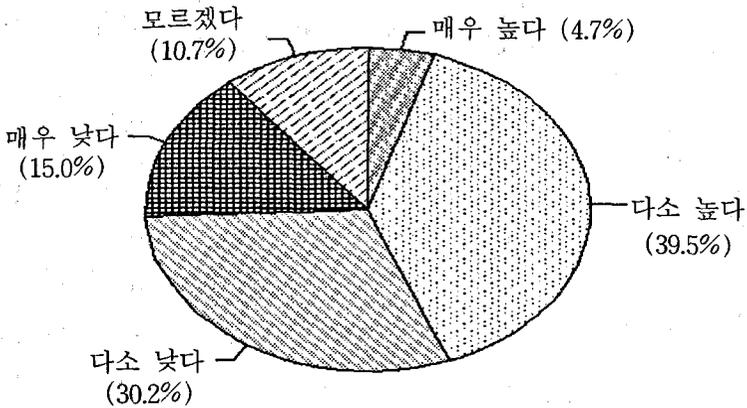
## 5.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의 변화전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조사결과로서 「다소 높은 편이다」(39.5%), 「매우 높다」(4.7%) 등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4.2%였고, 「다소 낮은 편이다」(30.2%), 「매우 낮다」(15.0%) 등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45.2%로 개방가능성에

〈표 2-4〉 김정일 정권의 지속성

변 수 \ 항 목		1년 이하	2~5년	6~9년	10년 이상	무응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5.5	62.8	16.5	
	여 자	7.8	63.0	15.9	12.6	0.7	
연 령	20대	9.1	62.3	17.4	11.0	0.2	$X^2=30.86$ $P=0.014$ $N=1,500$
	30대	4.0	65.9	16.7	13.2	0.2	
	40대	6.0	66.1	13.1	13.5	1.2	
	50대	6.2	60.1	16.2	15.9	1.6	
	60대 이상	10.4	50.7	16.4	22.4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5.3	60.7	20.8	13.1	0.2	$X^2=56.89$ $P=0.000$ $N=1,500$
	경 상	5.9	65.9	14.1	12.3	1.8	
	전 라	8.7	61.0	7.7	22.1	0.5	
	충 청	11.9	65.6	13.9	8.6	0.0	
	강 원	7.3	65.5	14.5	12.7	0.0	
학 력	중졸 이하	5.9	58.0	14.8	19.2	2.1	$X^2=30.02$ $P=0.000$ $N=1,500$
	고 졸	7.9	64.6	15.5	11.7	0.3	
	대재 이상	5.4	64.0	18.3	12.1	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4	58.7	12.6	18.2	2.1	$X^2=30.74$ $P=0.015$ $N=1,500$
	80~119만원	7.5	66.5	9.6	15.7	0.7	
	120~199만원	5.0	62.1	19.9	12.3	0.7	
	200~299만원	7.4	62.5	18.3	11.5	0.3	
	300만원 이상	7.7	63.9	14.4	13.9	0.0	
전 체		6.7	62.9	16.2	13.5	0.7	$N=1,500$

〈그림 2-5〉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5〉 참조).

이와 같은 이원적 평가는 1992년의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었다. 즉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49.1%였고, 자본주의체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50.9%를 차지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 이처럼 이원적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경제난과 대미·대일 관계개선 등 북한의 개방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상화·세습체제 지속, 주체사상, 주민들에 대한 통제 등 북한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요인들이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는 것으로

〈표 2-5〉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

변 수		항 목					유의도
		매우 높다	다소 높다	다소 낮다	매우 낮다	모르 겠다	
성 별	남 자	5.9	42.3	28.1	16.4	7.3	X <sup>2</sup> =27.53 P=0.000 N=1,500
	여 자	3.4	36.7	32.2	13.7	13.9	
연 령	20대	7.0	41.1	30.9	14.6	6.4	X <sup>2</sup> =43.53 P=0.000 N=1,500
	30대	5.2	40.0	30.1	15.2	9.5	
	40대	2.4	40.6	32.3	13.5	11.2	
	50대	2.9	38.0	27.9	14.9	16.2	
	60대 이상	1.5	26.9	28.4	22.4	20.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9	40.2	33.4	15.8	6.7	X <sup>2</sup> =50.55 P=0.000 N=1,500
	경 상	4.5	41.1	25.5	12.7	16.1	
	전 라	5.1	38.5	27.7	12.8	15.9	
	충 청	6.0	35.1	33.1	17.2	8.6	
	강 원	9.1	32.7	30.9	25.5	1.8	
학 력	중졸 이하	2.7	34.0	24.6	17.2	21.6	X <sup>2</sup> =74.04 P=0.000 N=1,500
	고 졸	5.0	37.8	32.2	15.6	9.3	
	대재 이상	5.6	45.9	31.3	12.5	4.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2	25.9	35.0	17.5	17.5	X <sup>2</sup> =44.27 P=0.000 N=1,500
	80~119만원	5.3	38.1	23.1	18.9	14.6	
	120~199만원	4.4	37.9	32.4	15.5	9.8	
	200~299만원	4.7	44.5	28.9	12.7	9.1	
	300만원 이상	4.6	46.9	33.0	10.3	5.2	
전 체		4.7	39.5	30.2	15.0	10.7	N=1,500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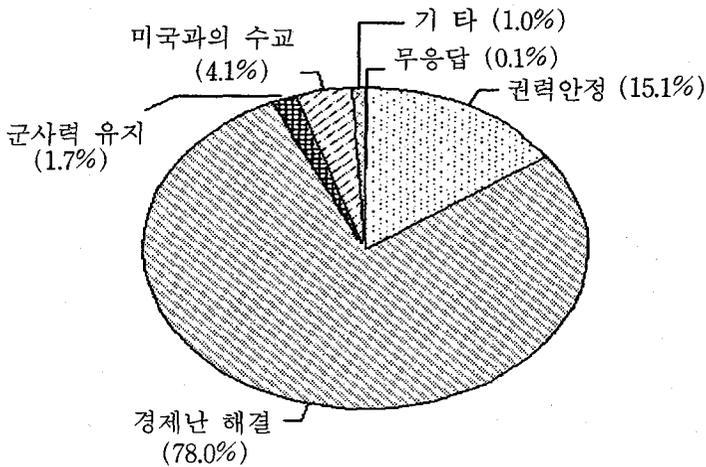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 단일항목으로 보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보는 국민들이 40%를 차지하는데 이는 최근 북한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로 외국자본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미간 협상타결 등으로 개방의 움직임을 보인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자본주의체제를 완전히 수용하는 개방보다는 중국식 개혁모델과 같은 부분적 변화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한 사람은 4.7%에 불과한데 반하여 매우 낮다고 평가한 사람은 15.0%에 이른다. 이는 1992년의 조사에서 김정일의 정책성향을 김일성보다 합리적이라는 견해는 12.5%인데 반해 김일성보다 비합리적이라는 견해는 42.7%로 김정일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 북한의 당면과제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당면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2-6〉 북한의 당면과제



응답결과 「경제난 해결」(78.0%)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권력안정」(15.1%), 「미국과의 수교」(4.1%), 「군사력 유지」(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6〉 참조). 북한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경제문제가 압도적이었다. 국민들은 김일성 사망 이후 계속해서 일고 있는 건강악화설, 군부쿠데타설 등과 같은 정치문제 보다 경제문제를 더 심각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난 해결」이 압도적인 견해로 나타난 것은 북한의 ‘두 끼먹기운동’과 식량배급지연 등 경제침체와 주민생활의 열악상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

〈표 2-6〉 북한의 당면과제

변 수		항 목		권력 안정	경제난 해결	군사력 유지	미국과 의수교	기 타	무응 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17.3	76.1	1.4	3.9	1.4	0.0	X <sup>2</sup> =9.91 P=0.078 N=1,500		
	여 자	13.0	79.9	2.0	4.2	0.7	0.3			
연 령	20대	15.0	79.7	1.9	2.1	1.3	0.0	X <sup>2</sup> =32.68 P=0.037 N=1,500		
	30대	14.9	80.1	0.7	3.2	1.0	0.0			
	40대	17.9	75.7	1.6	3.2	1.2	0.4			
	50대	14.6	74.4	2.3	7.8	0.6	0.3			
	60대 이상	9.0	79.1	3.0	9.0	0.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9.1	75.3	1.4	3.5	0.8	0.0	X <sup>2</sup> =32.26 P=0.041 N=1,500		
	경 상	13.6	78.4	1.4	5.2	0.9	0.5			
	전 라	11.8	80.5	3.1	3.1	1.5	0.0			
	충 청	7.9	83.4	1.3	5.3	2.0	0.0			
	강 원	10.9	83.6	3.6	1.8	0.0	0.0			
학 력	중졸 이하	9.8	76.3	3.0	9.2	1.2	0.6	X <sup>2</sup> =56.12 P=0.000 N=1,500		
	고 졸	17.0	76.5	1.9	3.4	1.1	0.0			
	대재 이상	16.2	81.5	0.4	1.3	0.6	0.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8	76.9	2.1	10.5	0.0	0.7	X <sup>2</sup> =42.38 P=0.003 N=1,500		
	80~119만원	11.4	80.1	2.1	5.0	1.1	0.4			
	120~199만원	15.8	77.2	1.5	4.1	1.5	0.0			
	200~299만원	17.1	79.4	1.2	2.1	0.3	0.0			
	300만원 이상	19.1	75.8	2.1	1.5	1.5	0.0			
전 체		15.1	78.0	1.7	4.1	1.0	0.1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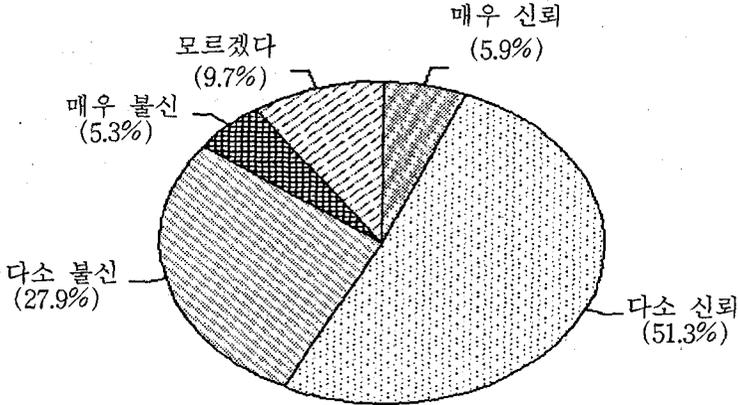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남한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더욱 벌어진 남북간의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 몰락 과정에서 사회주의체제의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생필품 부족 등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사회주의 체제 북한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 7. 북한에 관한 언론보도

신문·방송매체에서 보도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은 과연 그것이 북한 실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여기는지와 관련하여 “귀하는 우리 언론의 북한에 관한 보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가는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 「다소 신뢰한다」(51.3%), 「매우 신뢰한다」(5.9%) 등 신뢰한다는 견해가 57.2%를 차지하였다. 반면 「다소 불신한다」(27.9%), 「매우 불신한다」(5.3%) 등 신뢰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33.2%를 차지하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9.7%나 되었다(〈그림 2-7〉 참조).

북한에 관한 국민들의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정보원이 뚜렷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 관련 보도의 불신을 지적할 수 있

〈그림 2-7〉 북한에 관한 언론보도



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북한 보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언론매체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감에서 연유하였거나, 북한보도는 편파적일 것이라는 선입견에 근거하였을 수도 있다.

199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1992년에는 언론이 북한 실상을 정확히 보도한다는 견해가 51.8%로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48.2%의 응답에 비해 약간 많기는 하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그러나 올해의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견해가 57.2%로 늘어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33.2%로 줄어들었다.

배경변수별로는 고학력층(대재 이상 43.7%)에서 언론에 대

한 불신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들이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하여 비판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2년의 경우 대재 이상의 고학력층 55.7%, 20대 연령층 55.3%가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언론의 보도는 전반적으로 신뢰감이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표 2-7> 참조).

## 8. 남북한 분야별 비교

### 가. 분야별 비교

북한의 사회경제 실상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남북간 비교의 지표가 불분명하며 북한방문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에서 상호간의 약점을 극복하고 통일미래상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부문별 비교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에 대한 비교작업은 신빙성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이지만 남북한의 장단점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체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태도는 남북대화 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조사에서는 「자유 및 인권보장」, 「선

〈표 2-7〉 북한에 관한 언론보도

변 수 \ 항 목		매우 신뢰	다소 신뢰	다소 불신	매우 불신	모르겠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5.9	52.3	29.2	6.2	6.4	X <sup>2</sup> =20.33 P=0.000 N=1,500
	여 자	5.9	50.3	26.6	4.3	12.9	
연 령	20대	4.0	50.8	32.0	5.1	8.1	X <sup>2</sup> =58.98 P=0.000 N=1,500
	30대	4.7	51.2	32.1	4.2	7.7	
	40대	6.0	53.4	25.5	6.4	8.8	
	50대	10.7	53.2	18.2	5.8	12.0	
	60대 이상	4.5	37.3	26.9	6.0	25.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4	54.3	27.9	3.9	9.4	X <sup>2</sup> =26.56 P=0.047 N=1,500
	경 상	6.4	51.6	27.7	6.8	7.5	
	전 라	6.7	43.1	30.3	5.6	14.4	
	충 청	8.6	51.7	23.8	4.6	11.3	
	강 원	10.9	40.0	30.9	9.1	9.1	
학 력	중졸 이하	9.8	46.2	18.0	6.5	19.5	X <sup>2</sup> =106.29 P=0.000 N=1,500
	고 졸	6.0	55.0	25.1	5.2	8.7	
	대재 이상	3.0	49.4	39.2	4.5	3.9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7.7	44.8	23.8	5.6	18.2	X <sup>2</sup> =41.87 P=0.000 N=1,500
	80~119만원	9.3	53.4	20.3	5.0	12.1	
	120~199만원	4.2	50.8	29.5	6.1	9.4	
	200~299만원	4.7	53.1	30.7	5.3	6.2	
	300만원 이상	6.7	51.0	32.5	3.1	6.7	
전 체		5.9	51.3	27.9	5.3	9.7	N=1,500

거방식, 「생활수준」, 「주택보급」, 「의료혜택」, 「교육」, 「과학·기술」, 「치안」, 「환경보호」, 「군사력」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귀하는 남한과 비교하여 다음 각 분야에서 북한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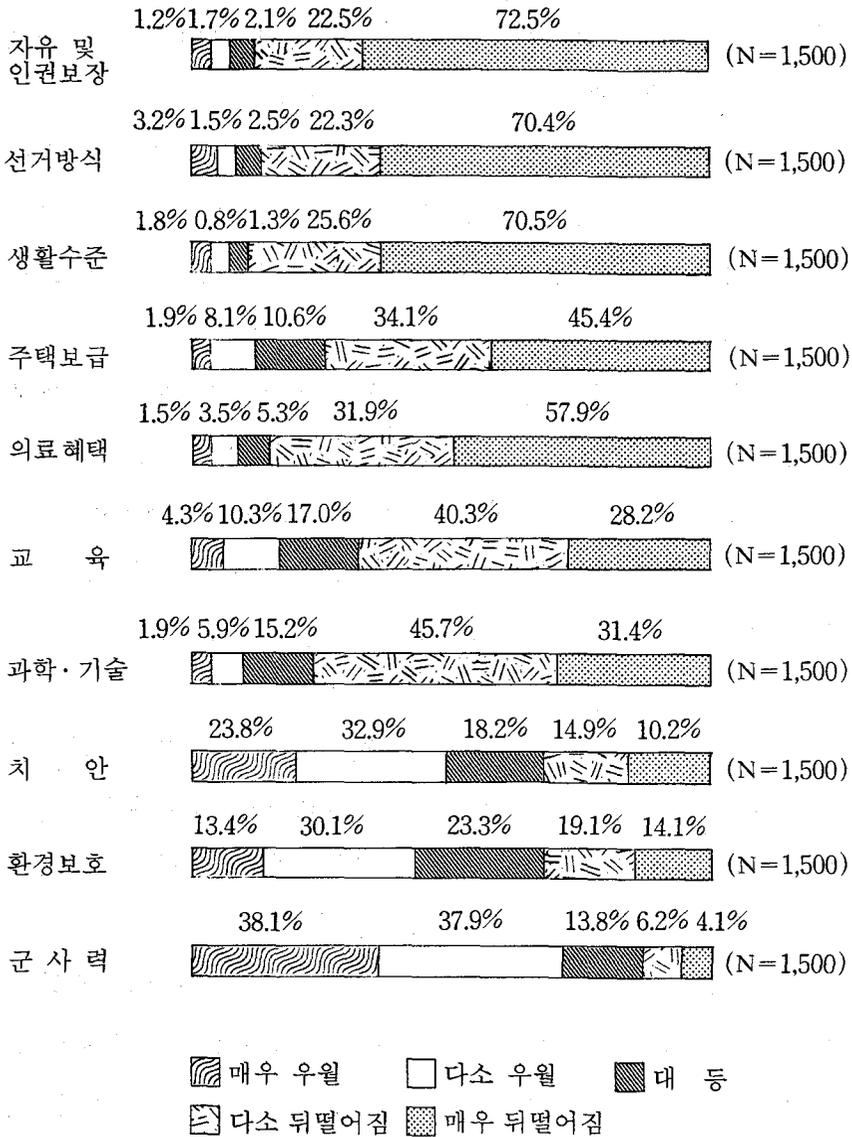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 경제, 과학·교육, 의료 부문에서 북한이 매우 열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치안, 환경보호, 군사력 부문에서는 북한이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그림 2-8〉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유 및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매우 뒤떨어짐」(72.5%), 「다소 뒤떨어짐」(22.5%), 「대등」(2.1%), 「다소 우월함」(1.7%), 「매우 우월함」(1.2%) 등 북한이 열등하다는 견해(95.0%)가 압도적이며, 선거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뒤떨어짐」(70.4%), 「다소 뒤떨어짐」(22.3%) 등으로 북한이 열등하다는 견해(92.7%)가 지배적이었다.

북한이 열등하다는 평가는 생활수준(96.1%)과 주택보급(79.5%) 등 경제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부문에서는 의료혜택(89.8%)과 교육(68.5%), 과학·기술(77.1%)부문에서 북한이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치안과 환경보호, 군사력부문에서는 북한의 우월성을 지적하였다. 치안에 대해서 「다소 우월」(32.9%), 「매우 우월」(23.8%) 등 우월하다는 견해가 56.7%로 「대등」(18.2%), 「다소 뒤떨어짐」(14.9%), 「매우 뒤떨어짐」(10.2%) 등의 견

〈그림 2-8〉 남북한 분야별 비교



해보다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환경보호에서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우월(43.5%)하다고 보고 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북한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0.3%에 지나지 않았다.

1992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생활수준, 자유·인권, 선거 방식, 과학기술, 의료혜택, 주택보급 등의 면에서 북한의 사정이 2~10% 정도 악화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교육과 과학·기술면에서는 북한이 열등하다는 평가는 줄어든 대신 대등하다거나 북한이 우월하다는 평가는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문에서 북한의 열세는 92년 82%에서 94년 68.5%로, 과학·기술면에서는 86.6%에서 77.1%로 감소된 한편, 대등하다는 평가는 교육과 과학기술에서 92년에 9.4%, 7.6%였던 것이 94년에는 17.0%, 15.2%로 각각 증가하였고 북한이 우월하다는 평가도 92년의 8.6%, 5.8%에서 1994년에는 14.6%, 7.8%로 각각 증가하였다.

치안과 환경보호, 군사력 측면에서 1992년과 비교해 볼 때, 환경보호에 대한 평가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치안과 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의 우세에 대한 평가가 증가하였다. 1992년의 경우 치안과 군사력부문에서 북한의 우세를 각각 45.3%, 62.2%로 평가했었던 것이 94년에는 56.7%, 76.0%로 각각 증가하였다. 치안부문에서 북한이 우월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최근 남한 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한 비윤리적 강력범죄와 같은 사회문제가 남북한을 비교평가하는데 있어서 남한이 취약하다고 생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높은 것은 북한의 핵위협과 ‘전쟁불사’와 같은 내용들이 국민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을 위축시키면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싶다.

#### 나. 변량분석

남북한 분야별 비교에 대하여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ANOVA)을 하였다. 각 문항별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 「매우 우월함」에 1점, 「다소 우월함」에 2점, 「대등」에 3점, 「다소 뒤떨어짐」에 4점, 「매우 뒤떨어짐」에 5점을 부여하여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별로 응답분포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평균이 높을수록 북한이 남한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변량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분야인 자유 및 인권보장, 생활수준, 주택보급, 의료혜택, 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북한이 남한에 비해 더욱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월하다고 응답한 분야

인 치안, 환경보호에서도 학력이 낮을수록 북한이 남한에 비해 우월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학력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표 2-8-1〉에서 〈표 2-8-10〉까지 참조).

한편 선거방식과 군사력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대체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수준, 주택보급, 교육, 과학·기술, 의료혜택의 분야에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북한이 더욱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치안, 환경보호의 분야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북한의 우월함을 낮게 평가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치안, 환경보호 등 북한이 우월한 분야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북한의 우월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북한이 남한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분야인 교육에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북한을 더욱 낮게 평가하였다.

성별에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주택보급에 있어 북한이 상대적으로 더욱 뒤떨어져 있고, 치안에서는 북한의 우월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자유 및 인권보장과 선거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지역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표 2-8-1〉 남북한 분야별 비교: 자유 및 인권보장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4.6230	0.7519	0.3847	0.5352
	여 자	4.6461	0.6885		
연령	20대	4.5932	0.7017	2.4887	0.0416
	30대	4.5821	0.8353		
	40대	4.6693	0.6857		
	50대	4.7305	0.6320		
	60대 이상	4.6716	0.5611		
거주 지역	서울/경기	4.6449	0.7049	1.0213	0.3950
	경 상	4.6000	0.7419		
	전 라	4.6205	0.7796		
	충 청	4.7285	0.5880		
	강 원	4.5818	0.8320		
학력	중졸 이하	4.7308	0.5778	6.5486	0.0015
	고 졸	4.6461	0.7223		
	대재 이상	4.5474	0.7982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4.6993	0.6055	4.2965	0.0018
	80~119만원	4.7260	0.5973		
	120~199만원	4.6114	0.7575		
	200~299만원	4.6637	0.6520		
	300만원 이상	4.4691	0.9171		
전	체	4.6347	0.7203		

〈표 2-8-2〉 남북한 분야별 비교: 선거방식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4.5676	0.8856	0.4569	0.4992
	여 자	4.5368	0.8749		
연령	20대	4.5614	0.8348	2.0367	0.0869
	30대	4.4677	1.0113		
	40대	4.5299	0.9220		
	50대	4.6461	0.7494		
	60대 이상	4.6418	0.6898		
거주 지역	서울/경기	4.5524	0.8603	0.2035	0.9365
	경 상	4.5636	0.8433		
	전 라	4.5026	0.9436		
	충 청	4.5762	0.9552		
	강 원	4.5636	0.9768		
학력	중졸 이하	4.6479	0.7167	2.6162	0.0734
	고 졸	4.6201	0.9357		
	대재 이상	4.6302	0.8983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4.6643	0.7406	1.2485	0.2884
	80~119만원	4.5089	0.9224		
	120~199만원	4.5709	0.8559		
	200~299만원	4.5575	0.8628		
	300만원 이상	4.4691	0.9982		
전	체	4.5520	0.8800		

〈표 2-8-3〉 남북한 분야별 비교: 생활수준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4.6108	0.7627	0.3071	0.7595
	여 자	4.6316	0.6876		
연령	20대	4.5763	0.7127	2.1983	0.0670
	30대	4.5821	0.8323		
	40대	4.6414	0.7422		
	50대	4.7175	0.5776		
	60대 이상	4.6567	0.6408		
거주 지역	서울/경기	4.6616	0.7226	2.9619	0.0188
	경 상	4.5568	0.7615		
	전 라	4.5487	0.7540		
	충 청	4.7417	0.4825		
	강 원	4.5818	0.8540		
학력	중졸 이하	4.7278	0.5252	4.7357	0.0089
	고 졸	4.5931	0.7561		
	대재 이상	4.5862	0.7949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4.7133	0.7279	3.4905	0.0076
	80~119만원	4.6512	0.6376		
	120~199만원	4.6206	0.7413		
	200~299만원	4.6549	0.6072		
	300만원 이상	4.4536	0.9388		
전	체	4.6213	0.7255		

〈표 2-8-4〉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주택보급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4.0189	1.0849	17.8319	0.0000
	여 자	4.2395	0.9342		
연령	20대	4.1038	0.9903	3.2258	0.0120
	30대	4.0423	1.0737		
	40대	4.0916	1.0787		
	50대	4.2695	0.9319		
	60대 이상	4.3582	0.9162		
거주 지역	서울/경기	4.2246	0.9713	6.1291	0.0001
	경 상	3.9364	1.0865		
	전 라	4.1385	0.9666		
	충 청	4.2185	0.9373		
	강 원	4.2909	1.1654		
학력	중졸 이하	4.2929	0.9714	16.0811	0.0000
	고 졸	4.1934	0.9514		
	대재 이상	3.9181	1.1085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4.3566	0.9300	4.1290	0.0025
	80~119만원	4.1673	1.0056		
	120~199만원	4.1529	1.0076		
	200~299만원	4.0885	1.0196		
	300만원 이상	3.9227	1.0817		
전	체	4.1307	1.0170		

〈표 2-8-5〉 남북한 분야별 비교 : 의료혜택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4.3757	0.8917	2.6304	0.1050
	여 자	4.4474	0.8196		
연령	20대	4.3835	0.8491	1.8478	0.1172
	30대	4.3532	0.9152		
	40대	4.4143	0.8739		
	50대	4.5162	0.7677		
	60대 이상	4.4776	0.8413		
거주 지역	서울/경기	4.4841	0.8220	4.7779	0.0008
	경 상	4.3023	0.8914		
	전 라	4.2974	0.9327		
	충 청	4.5232	0.7196		
	강 원	4.5273	0.9200		
학력	중졸 이하	4.5207	0.7516	9.3714	0.0001
	고 졸	4.4499	0.8340		
	대재 이상	4.2759	0.9418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4.6014	0.7233	5.6260	0.0002
	80~119만원	4.4377	0.7818		
	120~199만원	4.4420	0.8633		
	200~299만원	4.3953	0.8268		
	300만원 이상	4.1804	1.0248		
전	체	4.4120	0.8564		

〈표 2-8-6〉 남북한 분야별 비교: 교육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3.7500	1.0817	1.0015	0.3171
	여 자	3.8066	1.1073		
연령	20대	3.6165	1.1035	6.1303	0.0001
	30대	3.7488	1.0399		
	40대	3.8287	1.1690		
	50대	3.9708	1.0810		
	60대 이상	4.0299	0.9530		
거주 지역	서울/경기	3.9803	0.9681	12.3180	0.0000
	경 상	3.5318	1.1686		
	전 라	3.7692	1.1044		
	충 청	3.6225	1.2041		
	강 원	3.8000	1.1287		
학력	중졸 이하	3.9822	1.0839	9.3601	0.0001
	고 졸	3.7679	1.1175		
	대재 이상	3.6466	1.0475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4.1049	1.1051	4.9005	0.0006
	80~119만원	3.8149	1.0323		
	120~199만원	3.7661	1.0844		
	200~299만원	3.7404	1.1215		
	300만원 이상	3.5876	1.1128		
전 체		3.7787	1.0947		

〈표 2-8-7〉 남북한 분야별 비교: 과학·기술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3.9919	0.9189	0.0175	0.8949
	여 자	3.9855	0.9457		
연령	20대	3.8602	0.9279	8.4628	0.0000
	30대	3.9080	0.9781		
	40대	4.0478	0.9704		
	50대	4.2240	0.8022		
	60대 이상	4.0746	0.8930		
거주 지역	서울/경기	4.0303	0.8970	3.3793	0.0092
	경 상	3.9273	0.9324		
	전 라	4.1231	0.9054		
	충 청	3.8013	1.0521		
	강 원	4.0182	1.0090		
학력	중졸 이하	4.2485	0.8173	17.9926	0.0000
	고 졸	3.9384	0.9465		
	대재 이상	3.8750	0.9555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4.2797	0.8913	8.8924	0.0000
	80~119만원	4.0142	0.9334		
	120~199만원	4.0057	0.8813		
	200~299만원	3.9912	0.9117		
	300만원 이상	3.6856	1.0526		
전	체	3.9887	0.9323		

〈표 2-8-8〉 남북한 분야별 비교: 치안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2.4824	1.2544	3.9255	0.0477
	여 자	2.6132	1.2988		
연령	20대	2.4682	1.1923	4.3226	0.0018
	30대	2.4751	1.2497		
	40대	2.5139	1.3307		
	50대	2.6883	1.3531		
	60대 이상	3.9448	1.3644		
거주 지역	서울/경기	2.8073	1.2490	15.9291	0.0000
	경 상	2.3000	1.1753		
	전 라	2.5795	1.3726		
	충 청	2.1126	1.2195		
	강 원	2.5273	1.5498		
학력	중졸 이하	2.7988	1.4082	10.3014	0.0000
	고 졸	2.5344	1.2821		
	대재 이상	2.3879	1.1423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2.9441	1.4717	5.0174	0.0005
	80~119만원	2.5018	1.3096		
	120~199만원	2.5727	1.2734		
	200~299만원	2.5015	1.2147		
	300만원 이상	2.3402	1.1462		
전	체	2.5487	1.2788		

〈표 2-8-9〉 남북한 분야별 비교: 환경보호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2.8757	1.2586	0.8102	0.3682
	여 자	2.9342	1.2599		
연령	20대	2.8347	1.1649	4.4862	0.0013
	30대	2.8035	1.2882		
	40대	2.9004	1.3062		
	50대	3.0455	1.3007		
	60대 이상	3.3881	1.2180		
거주 지역	서울/경기	3.0835	1.2031	13.4640	0.0000
	경 상	2.5977	1.2204		
	전 라	3.0821	1.3016		
	충 청	2.6755	1.2887		
	강 원	3.2364	1.4268		
학력	중졸 이하	3.1243	1.3550	8.4460	0.0002
	고 졸	2.8983	1.2686		
	대재 이상	2.7565	1.1473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3.2727	1.3798	3.9035	0.0037
	80~119만원	2.8932	1.2490		
	120~199만원	2.8869	1.2686		
	200~299만원	2.8614	1.2409		
	300만원 이상	2.7526	1.1430		
전	체	2.9053	1.2591		

〈표 2-8-10〉 남북한 분야별 비교: 군사력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2.0014	1.0067	0.0051	0.9433
	여 자	2.0053	1.1188		
연령	20대	2.0254	1.0341	0.3252	0.8612
	30대	2.0000	1.0234		
	40대	2.0398	1.0874		
	50대	1.9513	1.1012		
	60대 이상	1.9701	1.2669		
거주 지역	서울/경기	2.2170	1.1245	14.5065	0.0000
	경 상	1.8068	0.9038		
	전 라	1.8821	1.0848		
	충 청	1.7285	0.8636		
	강 원	2.2000	1.3931		
학력	중졸 이하	1.9349	1.1966	1.4867	0.2265
	고 졸	1.9957	1.0585		
	대재 이상	2.0647	0.9660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2.0420	1.3102	1.1802	0.3176
	80~119만원	1.9146	1.0453		
	120~199만원	2.0479	1.0422		
	200~299만원	2.0383	1.0441		
	300만원 이상	1.9175	0.9835		
전	체	2.0033	1.0646		

### 제 3 장 통일 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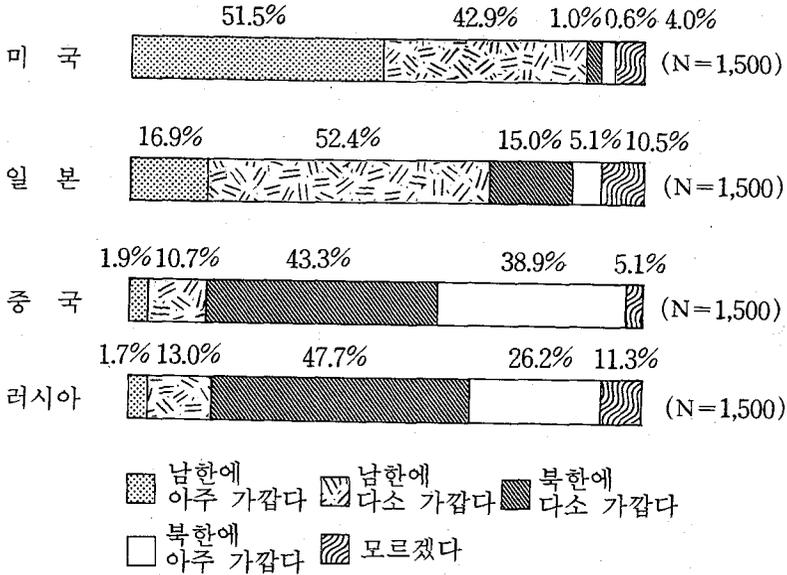
#### 1.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관계

남한 및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다음 나라들(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네 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국민들은 미국, 일본 순으로 남한에 우호적인 국가를 꼽았으며, 중국, 러시아 순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극한 대조를 이루었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3-1〉 참조).

남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51.5%가 「남한에 아주 가깝다」, 그리고 42.9%가 「남한에 다소 가깝다」고 응답하여 94.4%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남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북한에 다소 가깝다」와 「북한에 아주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0%와 0.6% 만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남한에 아주 가깝다」고 응답한 사람이 41.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이 42.7%를 보여 중졸 이하의 60.4%에 비해 상당히 낮은 분포를 보였다(〈표 3-1-1〉 참조).

남북한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남한에 다소 가깝다」

〈그림 3-1〉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관계



가 52.4%, 그리고 「남한에 아주 가깝다」가 16.9%로 전체의 69.3%가 일본이 남한 쪽이라고 보는 반면, 「북한에 다소 가깝다」가 15.0%, 「북한에 아주 가깝다」가 5.1%를 차지해 북한 편이라고 보는 견해도 20.1%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충청과 강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남한에 아주 가깝다」보다 「북한에 다소 가깝다」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표 3-1-2〉 참조).

남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중 43.3%가 「북한에 다소 가깝다」쪽에, 그리고 38.9%가 「북한에 아주 가깝다」에 응답하여 국민 대다수(82.2%)가 중국을 북한 편

〈표 3-1-1〉 남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변 수		항 목	남한에	남한에	북한에	북한에	모르 겠다	유의도
			아주 가깝다	다소 가깝다	다소 가깝다	아주 가깝다		
성 별	남 자	52.8	42.0	1.4	0.5	3.2	$X^2=4.70$ $P=0.320$ $N=1,500$	
	여 자	50.3	43.7	0.7	0.7	4.7		
연 령	20대	41.1	51.7	1.7	0.6	4.9	$X^2=48.26$ $P=0.000$ $N=1,500$	
	30대	49.8	43.8	1.0	0.5	5.0		
	40대	59.0	38.2	0.4	0.8	1.6		
	50대	62.0	33.4	0.6	0.6	3.2		
	60대 이상	59.7	35.8	0.0	0.0	4.5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8.4	47.6	0.5	0.5	3.0	$X^2=33.24$ $P=0.007$ $N=1,500$	
	경 상	54.3	38.4	0.9	0.2	6.1		
	전 라	54.9	37.9	1.5	2.1	3.6		
	충 청	53.6	40.4	2.0	0.7	3.3		
	강 원	49.1	45.5	3.6	0.0	1.8		
학 력	중졸 이하	60.4	34.9	0.3	0.9	3.6	$X^2=34.32$ $P=0.000$ $N=1,500$	
	고 졸	53.2	42.3	1.3	0.6	2.7		
	대재 이상	42.7	49.6	1.1	0.4	6.3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69.2	22.4	1.4	0.7	6.3	$X^2=50.62$ $P=0.000$ $N=1,500$	
	80~119만원	56.6	39.9	0.7	0.0	2.8		
	120~199만원	47.0	48.1	0.4	0.7	3.9		
	200~299만원	51.6	43.4	0.9	0.6	3.5		
	300만원 이상	43.8	46.9	3.1	1.0	5.2		
전 체		51.5	42.9	1.0	0.6	4.0	$N=1,500$	

〈표 3-1-2〉 남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변 수		항 목		남한에 아주 가깝다	남한에 다소 가깝다	북한에 다소 가깝다	북한에 아주 가깝다	모르 겠다	유의도
		남 자	여 자						
성 별	남 자	18.2	57.7	11.1	3.6	9.3	$X^2=32.57$ $P=0.000$ $N=1,500$		
	여 자	15.7	47.2	18.8	6.6	11.7			
연 령	20대	12.1	52.5	17.2	5.9	12.3	$X^2=38.61$ $P=0.267$ $N=1,500$		
	30대	14.9	53.7	14.2	5.5	11.7			
	40대	19.5	54.2	15.1	3.6	7.6			
	50대	23.7	50.0	12.7	4.5	9.1			
	60대 이상	22.4	47.8	14.9	6.0	9.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2.1	58.3	13.4	5.2	11.1	$X^2=74.81$ $P=0.000$ $N=1,500$		
	경 상	22.5	50.2	12.5	4.3	10.5			
	전 라	28.7	41.0	16.4	6.2	7.7			
	충 청	8.6	53.0	24.5	4.6	9.3			
	강 원	10.9	38.2	23.6	9.1	18.2			
학 력	중졸 이하	26.3	43.8	12.4	6.2	11.2	$X^2=41.09$ $P=0.000$ $N=1,500$		
	고 졸	16.2	52.3	15.2	5.6	10.7			
	대재 이상	11.2	58.8	16.6	3.7	9.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2.2	43.4	9.8	4.9	9.8	$X^2=44.32$ $P=0.000$ $N=1,500$		
	80~119만원	19.9	45.6	16.4	7.1	11.0			
	120~199만원	14.5	53.0	16.0	5.7	10.7			
	200~299만원	15.0	57.2	14.7	3.5	9.4			
	300만원 이상	11.3	58.8	14.4	3.6	11.9			
전 체		16.9	52.4	15.0	5.1	10.5	$N=1,500$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한에 다소 가깝다」와 「남한에 아주 가깝다」는 10.7%와 1.9%만을 기록하였다.

남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중 47.7%가 「북한에 다소 가깝다」, 26.2%가 「북한에 아주 가깝다」로 응답한 반면, 13.0%가 「남한에 다소 가깝다」에, 그리고 1.7%가 「남한에 아주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자에 비해 고학력자들이 「남한에 다소 가깝다」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3-1-4〉 참조).

여기서 우리는 한·중수교 이후 두 나라의 외교적 관계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중국을 북한 편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표명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외형상의 관계 발전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어느 주변국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일 것이라고 여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귀하는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43.7%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고, 2.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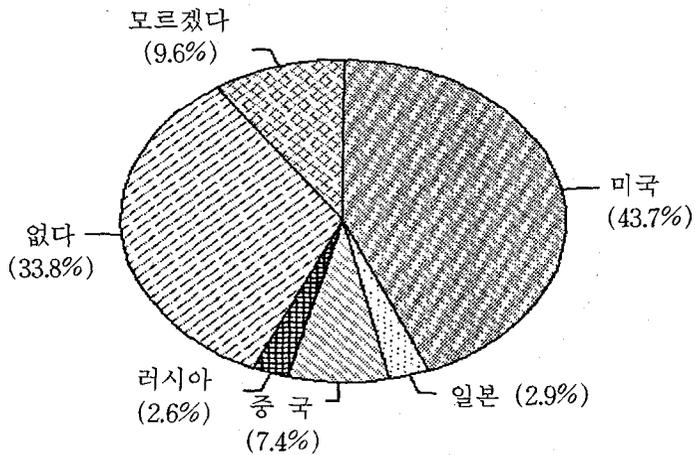
〈표 3-1-3〉 남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변 수		항 목		남한에	남한에	북한에	북한에	모르 겠다	유의도
		아주 가깝다	다소 가깝다	다소 가깝다	아주 가깝다				
성 별	남 자	1.6	10.3	43.0	42.4	2.7	X <sup>2</sup> =22.66 P=0.000 N=1,500		
	여 자	2.2	11.2	43.7	35.4	7.5			
연 령	20대	1.5	12.5	50.4	32.2	3.4	X <sup>2</sup> =51.59 P=0.000 N=1,500		
	30대	1.5	10.2	43.5	39.8	5.0			
	40대	3.2	6.8	37.1	48.6	4.4			
	50대	2.3	12.7	40.6	38.0	6.5			
	60대 이상	1.5	7.5	28.4	47.8	14.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2	13.1	44.0	38.5	3.2	X <sup>2</sup> =42.64 P=0.000 N=1,500		
	경 상	2.3	8.0	45.7	38.6	5.5			
	전 라	4.1	11.8	33.3	43.1	7.7			
	충 청	2.0	10.6	46.4	35.1	6.0			
	강 원	0.0	1.8	43.6	40.0	14.5			
학 력	중졸 이하	2.4	11.8	33.4	42.6	9.8	X <sup>2</sup> =45.09 P=0.000 N=1,500		
	고 졸	2.4	12.2	43.7	37.0	4.7			
	대재 이상	0.9	7.8	50.0	39.0	2.4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6	11.9	35.7	35.7	11.2	X <sup>2</sup> =44.59 P=0.000 N=1,500		
	80~119만원	1.1	10.3	37.4	43.4	7.8			
	120~199만원	1.7	11.4	44.6	38.1	4.2			
	200~299만원	2.1	11.5	47.5	35.7	3.2			
	300만원 이상	1.0	7.2	46.9	42.3	2.6			
전 체		1.9	10.7	43.3	38.9	5.1	N=1,500		

〈표 3-1-4〉 남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

변 수		항 목		남한에	남한에	북한에	북한에	모르 겠다	유의도
		아주 가깝다	다소 가깝다	다소 가깝다	아주 가깝다				
성 별	남 자	1.9	16.5	48.0	24.6	9.1	X <sup>2</sup> =12.02 P=0.000 N=1,500		
	여 자	1.6	9.6	47.5	27.8	13.6			
연 령	20대	1.7	17.2	48.7	21.6	10.8	X <sup>2</sup> =23.75 P=0.095 N=1,500		
	30대	2.2	11.2	47.5	27.4	11.7			
	40대	1.6	13.1	47.0	28.7	9.6			
	50대	1.6	9.1	49.4	27.9	12.0			
	60대 이상	0.0	11.9	37.3	34.3	16.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1	13.5	47.5	28.2	9.7	X <sup>2</sup> =31.47 P=0.012 N=1,500		
	경 상	2.0	12.0	51.6	22.5	11.8			
	전 라	3.6	15.4	34.4	33.3	13.3			
	충 청	2.0	11.9	52.3	20.5	13.2			
	강 원	0.0	9.1	54.5	21.8	14.5			
학 력	중졸 이하	1.2	9.5	43.2	30.2	16.0	X <sup>2</sup> =42.46 P=0.000 N=1,500		
	고 졸	2.6	12.3	45.3	28.2	11.6			
	대재 이상	0.9	16.6	54.7	20.3	7.5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5	14.7	33.6	26.6	21.7	X <sup>2</sup> =42.12 P=0.000 N=1,500		
	80~119만원	1.1	12.8	43.4	31.7	11.0			
	120~199만원	1.7	12.7	48.1	26.2	11.4			
	200~299만원	1.2	14.2	51.3	23.0	10.3			
	300만원 이상	2.6	10.8	57.2	23.7	5.7			
전 체		1.7	13.0	47.7	26.2	11.3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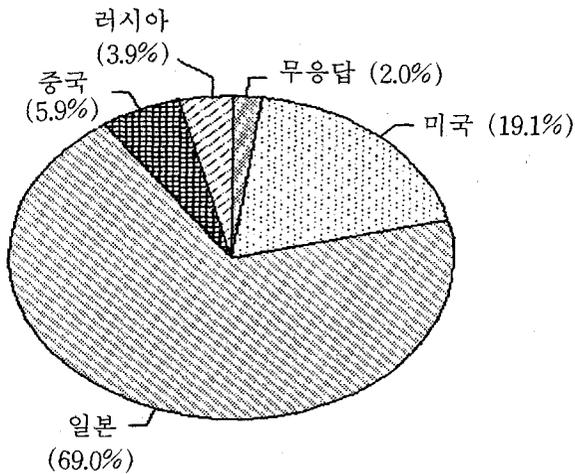
〈그림 3-2-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2.6%가 각각 「일본」, 「중국」, 「러시아」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33.8%에 이르는 응답자가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2-1〉 참조).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미국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고령자일수록 미국이 우호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고,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그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33.1%가 미국 그리고 45.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미국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낮았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라 큰 차이

〈그림 3-2-2〉 통일에 비우호적인 주변국



를 보였다. 중졸 이하의 응답자 중 62.1%가 미국에 그리고 14.8%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대재 이상의 응답자 중 28.7%만이 미국에 응답하고 무려 54.3%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3-2-1〉 참조).

다음으로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33.8%)에게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69.0%가 일본, 19.1%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5.9%와 3.9%가 각각 중국과 러시아에 응답하였다(〈그림 3-2-2〉 참조).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대조적인 것으

〈표 3-2-1〉 통일에 우호적인 주변국

변 수		항 목						유의도
		미 국	일 본	중 국	러시아	없 다	모르 겠다	
성 별	남 자	41.6	2.6	7.3	3.6	38.4	6.5	$X^2=32.07$ $P=0.000$ $N=1,500$
	여 자	45.7	3.3	7.5	1.6	29.3	12.6	
연 령	20대	33.1	2.8	7.4	3.2	45.3	8.3	$X^2=101.99$ $P=0.000$ $N=1,500$
	30대	40.0	3.0	8.0	2.0	36.6	10.4	
	40대	45.4	5.6	6.4	4.4	29.5	8.8	
	50대	59.1	1.3	8.1	1.6	19.8	10.1	
	60대 이상	62.7	1.5	4.5	0.0	16.4	14.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5.4	3.0	8.2	2.6	32.5	8.3	$X^2=41.91$ $P=0.003$ $N=1,500$
	경 상	39.3	3.4	5.5	3.6	38.4	9.8	
	전 라	51.3	4.1	9.2	1.0	23.6	10.8	
	충 청	42.4	0.0	6.6	2.6	39.7	8.6	
	강 원	34.5	1.8	9.1	0.0	32.7	21.8	
학 력	중졸 이하	62.1	3.6	5.9	2.1	14.8	11.5	$X^2=168.44$ $P=0.000$ $N=1,500$
	고 졸	44.7	3.9	8.2	2.7	29.4	11.2	
	대재 이상	28.7	1.1	7.3	2.8	54.3	5.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6.6	0.7	6.3	1.4	14.7	20.3	$X^2=71.44$ $P=0.000$ $N=1,500$
	80~119만원	49.8	3.6	10.0	2.5	25.6	8.5	
	120~199만원	39.4	3.7	7.4	2.9	37.0	9.6	
	200~299만원	42.2	2.4	7.4	2.4	38.1	7.7	
	300만원 이상	39.7	2.6	4.6	3.1	43.3	6.7	
전 체		43.7	2.9	7.4	2.6	33.8	9.6	$N=1,500$

로는 서울/경기 응답자 중 72.0%가 일본에, 그리고 12.1%가 미국에 답한 반면, 전라도 응답자 중 43.5%가 미국에 답하고 50.0%가 일본에 응답하였다는 점이다(〈표 3-2-2〉 참조).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통일에 우호적인 국가가 없다고 답해 통일문제에 관한 한 주변국을 불신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1/3 정도(33.8%)에 이른다는 점이었다.

### 3. 주한미군 주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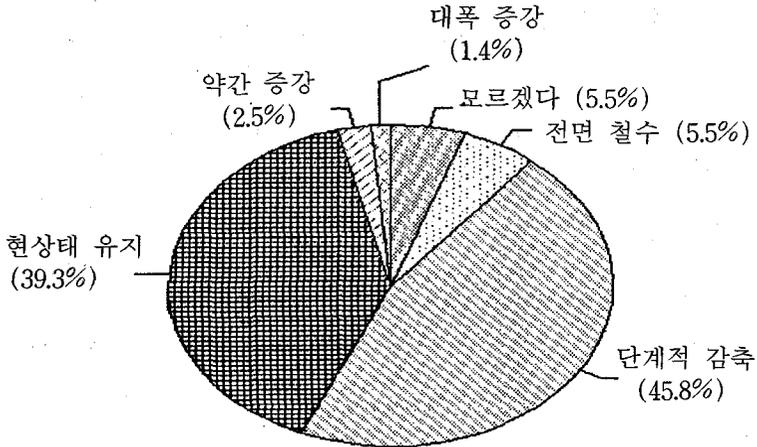
미군의 주둔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45.8%), 「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39.3%), 「전면 철수해야 한다」(5.5%), 「약간 증강해야 한다」(2.5%), 「대폭 증강해야 한다」(1.4%)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3-3〉 참조).

연령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고령층일수록 현상태 유지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 60대 이상의 무려 70.1%가 여기에 응답하였다. 학력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현상태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학력일수록 단계적 감축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단계적 감축이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데 비해, 강원도에서는 현상태

〈표 3-2-2〉 통일에 비우호적인 주변국

변 수		항 목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무응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15.5	72.9	6.0	4.6	1.1	X <sup>2</sup> =9.27 P=0.055 N=507
	여 자	23.8	64.1	5.8	3.1	3.1	
연 령	20대	22.4	67.8	4.7	3.7	1.4	X <sup>2</sup> =27.21 P=0.039 N=507
	30대	22.4	66.7	4.8	4.8	1.4	
	40대	12.2	74.3	8.1	4.1	1.4	
	50대	8.2	75.4	6.6	3.3	6.6	
	60대 이상	18.2	54.5	27.3	0.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2.1	72.0	8.9	7.0	0.0	X <sup>2</sup> =60.02 P=0.000 N=507
	경 상	19.5	69.8	3.6	1.2	5.9	
	전 라	43.5	50.0	4.3	2.2	0.0	
	충 청	20.0	71.7	5.0	3.3	0.0	
	강 원	33.3	66.7	0.0	0.0	0.0	
학 력	중졸 이하	16.0	62.0	8.0	10.0	4.0	X <sup>2</sup> =21.03 P=0.007 N=507
	고 졸	16.6	67.8	7.8	6.3	1.5	
	대재 이상	21.8	71.4	4.0	0.8	2.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8	81.0	9.5	4.8	0.0	X <sup>2</sup> =16.59 P=0.412 N=507
	80~119만원	22.2	69.4	6.9	1.4	0.0	
	120~199만원	19.4	67.2	6.5	4.5	2.5	
	200~299만원	14.7	69.8	7.0	5.4	3.1	
	300만원 이상	26.2	69.0	1.2	2.4	1.2	
전 체		19.1	69.0	5.9	3.9	2.0	N=507

〈그림 3-3〉 주한미군 주둔



유지가 단계적 감축보다 더 높았다. 이는 강원지역이 접경지역으로서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표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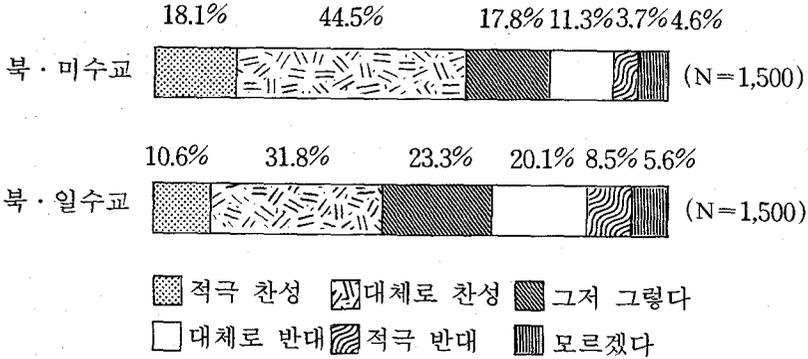
#### 4.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북한의 주변국과의 수교에 대한 찬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이 다음 나라(미국 및 일본)와 수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북·미수교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18.1%)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44.5%)를 합하여 긍정적인 비율은 62.6%를 보인 반

〈표 3-3〉 주한미군 주둔

변 수		항 목		현상태 유지	약간 증강	대폭 증강	모르 겠다	유의도
		전면 철수	단계적 감축					
성 별	남 자	6.1	50.9	37.2	2.2	1.9	1.8	$X^2=52.06$ $P=0.000$ $N=1,500$
	여 자	4.9	40.8	41.3	2.9	0.9	9.2	
연 령	20대	7.8	60.8	25.2	3.2	0.6	2.3	$X^2=188.87$ $P=0.000$ $N=1,500$
	30대	6.0	51.2	34.3	2.2	2.0	4.2	
	40대	3.6	40.6	43.4	2.4	3.2	6.8	
	50대	2.9	27.6	57.1	2.6	0.6	9.1	
	60대 이상	4.5	10.4	70.1	0.0	0.0	14.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5.3	48.0	39.3	1.7	1.2	4.6	$X^2=36.44$ $P=0.014$ $N=1,500$
	경 상	3.9	45.2	41.1	3.2	1.8	4.8	
	전 라	9.2	43.6	32.3	3.6	1.0	10.3	
	충 청	5.3	47.0	39.7	3.3	1.3	3.3	
	강 원	7.3	29.1	47.3	1.8	1.8	12.7	
학 력	중졸 이하	4.4	22.8	55.3	3.6	0.9	13.0	$X^2=159.97$ $P=0.000$ $N=1,500$
	고 졸	4.6	47.1	39.3	2.7	2.1	4.2	
	대재 이상	7.5	60.6	27.6	1.5	0.6	2.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1	25.9	54.5	4.2	0.0	13.3	$X^2=66.47$ $P=0.000$ $N=1,500$
	80~119만원	6.0	44.1	39.9	3.2	1.1	5.7	
	120~199만원	5.9	49.9	35.4	1.7	1.3	5.9	
	200~299만원	4.7	49.6	37.5	2.7	2.9	2.7	
	300만원 이상	7.2	44.8	41.2	2.6	0.5	3.6	
전 체		5.5	45.8	39.3	2.5	1.4	5.5	$N=1,500$

〈그림 3-4〉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



면, 「그저 그렇다」는 방관적인 태도가 17.8%였고,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11.3%)와 「적극 반대한다」(3.7%)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비율은 15.0%를 나타냈다(〈그림 3-4〉 참조).

또한 북·일수교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10.6%)과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31.8%)를 합해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42.4%를 보인 반면, 「그저 그렇다」는 방관적인 태도가 23.3%였고,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20.1%)와 「적극 반대한다」(8.5%)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비율은 28.6%를 나타냈다.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비교해 보면, 국민들이 후자에 비해 전자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 반일감정

이 상당부분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있어서는 고학력층이 저학력층에 비해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수교하는 것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북·미수교(54.6%)와 북·일수교(20.0%)를 지지하는 비율이 낮았다.(〈표 3-4-1〉, 〈표 3-4-2〉 참조).

## 5. 북·미 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

북·미 핵문제 타결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59.5%,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12.8%로서 전체 응답자의 72.3%가 긍정적으로 본 반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12.7%,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2.9%로서 전체의 15.6%를 차지하는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별로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0%를 차지하였다(〈그림 3-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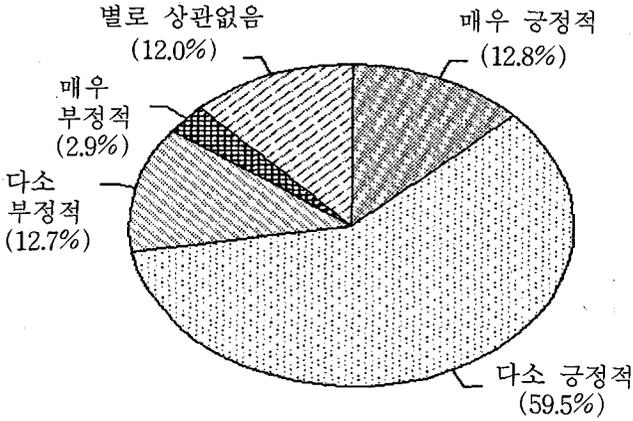
〈표 3-4-1〉 북한·미국간의 수교

변 수		항 목						유의도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모르겠다	
성 별	남 자	21.4	48.1	15.5	9.6	3.4	2.0	X <sup>2</sup> =42.35 P=0.000 N=1,500
	여 자	14.9	41.1	20.0	13.0	3.9	7.1	
연 령	20대	17.4	45.1	19.9	11.9	3.8	1.9	X <sup>2</sup> =42.09 P=0.003 N=1,500
	30대	20.1	43.8	14.9	12.2	4.5	4.5	
	40대	17.9	45.4	19.5	9.6	4.0	3.6	
	50대	18.5	44.8	16.9	10.1	2.3	7.5	
	60대 이상	9.0	40.3	17.9	14.9	3.0	14.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5.5	49.2	18.1	12.4	2.3	2.6	X <sup>2</sup> =59.58 P=0.000 N=1,500
	경 상	16.1	44.1	16.6	12.3	5.7	5.2	
	전 라	27.7	33.8	17.4	9.2	3.6	8.2	
	충 청	22.5	42.4	18.5	9.3	3.3	4.0	
	강 원	18.2	36.4	23.6	3.6	5.5	12.7	
학 력	중졸 이하	17.5	36.7	17.8	12.7	3.6	11.8	X <sup>2</sup> =63.55 P=0.000 N=1,500
	고 졸	19.8	44.4	18.5	11.5	3.2	2.7	
	대재 이상	15.9	50.4	16.8	10.1	4.5	2.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6.6	28.7	16.8	8.4	3.5	16.1	X <sup>2</sup> =79.95 P=0.000 N=1,500
	80~119만원	17.8	43.4	17.4	12.8	4.3	4.3	
	120~199만원	17.5	45.9	16.0	13.1	2.8	4.8	
	200~299만원	16.2	48.7	19.2	10.6	3.8	1.5	
	300만원 이상	17.0	46.9	21.6	7.7	5.2	1.5	
전 체		18.1	44.5	17.8	11.3	3.7	4.6	N=1,500

〈표 3-4-2〉 북한·일본간의 수교

변 수		항 목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모르 겠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12.3	35.8	21.8	19.3	8.1	2.7	$X^2=35.59$ $P=0.000$ $N=1,500$		
	여 자	8.9	27.9	24.9	20.9	8.9	8.4			
연 령	20대	9.3	29.9	27.1	20.8	10.2	2.8	$X^2=50.89$ $P=0.000$ $N=1,500$		
	30대	11.4	33.6	21.6	17.7	10.7	5.0			
	40대	12.4	30.7	21.9	23.5	6.8	4.8			
	50대	11.7	32.8	21.8	18.5	5.8	9.4			
	60대 이상	3.0	34.3	19.4	25.4	3.0	14.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6	35.8	24.1	20.2	7.1	4.1	$X^2=73.61$ $P=0.000$ $N=1,500$		
	경 상	10.5	30.0	21.4	21.1	10.2	6.8			
	전 라	21.5	30.3	22.6	12.3	6.2	7.2			
	충 청	6.0	29.1	24.5	27.2	9.9	3.3			
	강 원	9.1	10.9	29.1	20.0	16.4	14.5			
학 력	중졸 이하	10.9	26.9	20.4	21.3	6.8	13.6	$X^2=67.76$ $P=0.000$ $N=1,500$		
	고 졸	10.7	29.7	25.2	20.9	9.5	4.0			
	대재 이상	10.1	38.6	22.6	18.1	8.4	2.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6.8	21.7	23.1	13.3	7.0	18.2	$X^2=72.75$ $P=0.000$ $N=1,500$		
	80~119만원	9.6	32.4	24.6	20.6	8.2	4.6			
	120~199만원	10.7	30.9	22.8	22.8	7.2	5.5			
	200~299만원	8.8	36.0	22.7	18.9	10.0	3.5			
	300만원 이상	10.3	33.5	24.2	19.1	11.3	1.5			
전 체		10.6	31.8	23.3	20.1	8.5	5.6	$N=1,500$		

〈그림 3-5〉 북·미 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



## 6. 「국가보안법」 개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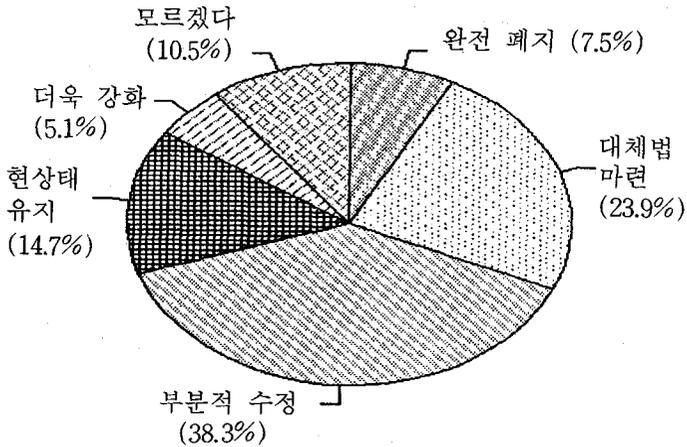
북한에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존폐와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결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8.3%로 제일 많았으며,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응답이 23.9%, 「현상태로 유지하여야

〈표 3-5〉 북·미 핵협상 타결과 남북관계

변 수		항 목					별로 상관없음	유의도
		매우 긍정적	다소 긍정적	다소 부정적	매우 부정적			
성 별	남 자	13.4	61.5	12.6	2.4	10.1	X <sup>2</sup> =6.83 P=0.145 N=1,500	
	여 자	12.2	57.6	12.9	3.4	13.8		
연 령	20대	10.6	57.8	17.6	2.8	11.2	X <sup>2</sup> =41.27 P=0.001 N=1,500	
	30대	12.7	63.4	10.9	3.0	10.0		
	40대	9.2	61.0	14.3	3.2	12.4		
	50대	18.5	56.5	8.1	3.2	13.6		
	60대 이상	16.4	56.7	4.5	1.5	20.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0.5	63.3	12.3	2.4	11.5	X <sup>2</sup> =40.80 P=0.001 N=1,500	
	경 상	12.3	59.3	13.0	3.0	12.5		
	전 라	14.9	52.3	15.4	4.6	12.8		
	충 청	13.2	60.3	9.9	3.3	13.2		
	강 원	36.4	40.0	14.5	1.8	7.3		
학 력	중졸 이하	16.3	52.4	9.2	2.4	19.8	X <sup>2</sup> =39.81 P=0.000 N=1,500	
	고 졸	13.2	59.5	13.9	3.4	10.0		
	대재 이상	9.7	64.9	13.6	2.6	9.3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8.9	51.0	12.6	2.8	14.7	X <sup>2</sup> =20.82 P=0.185 N=1,500	
	80~119만원	13.2	61.6	12.5	2.1	10.7		
	120~199만원	12.3	59.3	11.4	2.6	14.4		
	200~299만원	11.5	59.6	14.7	4.7	9.4		
	300만원 이상	11.3	63.4	13.4	2.1	9.8		
전 체		12.8	59.5	12.7	2.9	12.0	N=1,500	

〈그림 3-6〉 「국가보안법」 개폐



한다」가 14.7%,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라는 응답이 7.5%,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가 5.1%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6〉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는 1993년의 동일 질문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수정보완 38.1%, 대체입법 22.4%, 현상유지 16.7%, 완전폐지 10.4%, 더욱강화 5.1%).

20대의 경우는 폐지하거나(10.6%), 대체입법이 필요하다(27.3%)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현상대를 유지하거나(22.4%, 23.9%)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6.5%, 9.0%)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개 이상의 고학력자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14.9%)와 폐지후 대체입법마련(28.9%)을 요구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3-6〉 참조).

## 7. 주사파의 영향

주사파가 우리의 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주사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우리 체제에 대단히 위협적이다」가 28.3%, 「우리 체제에 다소 위협적이다」가 38.7%로 위협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67.0%를 차지한 반면, 「우리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9.9%였으며 「모르겠다」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23.1%를 차지하였다(〈그림 3-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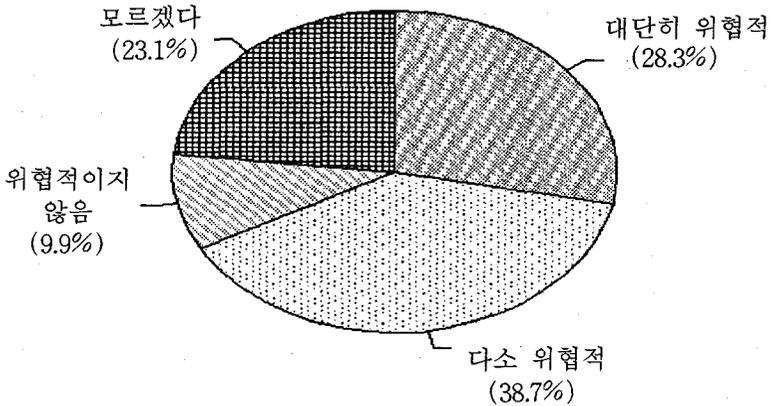
## 8. 통일교육의 경험 및 내용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통일방안 및 북한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요구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통일역량의 강화는 국민 개개인의 통일역량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의 후유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표 3-6〉 「국가보안법」 개폐

변 수		항 목						유의도
		완전 폐지	대체법 마련	부분적 수정	현상태 유지	더욱 강화	모르 겠다	
성 별	남 자	10.8	25.0	39.9	15.5	4.6	4.2	X <sup>2</sup> =79.98 P=0.000 N=1,500
	여 자	4.3	22.8	36.7	13.8	5.7	16.7	
연 령	20대	10.6	27.3	43.0	9.1	3.6	6.4	X <sup>2</sup> =10.803 P=0.000 N=1,500
	30대	7.5	24.9	41.3	12.9	5.2	8.2	
	40대	6.0	23.5	37.5	15.9	5.2	12.0	
	50대	4.9	21.1	30.8	22.4	6.5	14.3	
	60대 이상	4.5	7.5	23.9	23.9	9.0	31.3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8.2	22.3	43.4	13.5	2.9	9.7	X <sup>2</sup> =74.21 P=0.000 N=1,500
	경 상	4.5	24.1	37.0	18.4	6.8	9.1	
	전 라	14.4	31.3	24.1	9.2	4.6	16.4	
	충 청	4.0	20.5	39.7	15.2	9.3	11.3	
	강 원	9.1	23.6	32.7	16.4	9.1	9.1	
학 력	중졸 이하	2.7	16.3	26.6	21.3	8.9	24.3	X <sup>2</sup> =204.33 P=0.000 N=1,500
	고 졸	5.0	24.2	41.5	15.3	5.9	8.0	
	대재 이상	14.9	28.9	41.8	8.8	1.3	4.3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4.9	19.6	23.8	20.3	8.4	23.1	X <sup>2</sup> =71.76 P=0.000 N=1,500
	80~119만원	5.7	24.2	34.5	16.7	6.0	12.8	
	120~199만원	7.4	23.2	40.0	15.3	3.7	10.5	
	200~299만원	11.2	23.9	41.0	12.1	5.9	5.9	
	300만원 이상	6.2	28.4	44.8	10.3	4.1	6.2	
전 체		7.5	23.9	38.3	14.7	5.1	10.5	N=1,500

〈그림 3-7〉 주사파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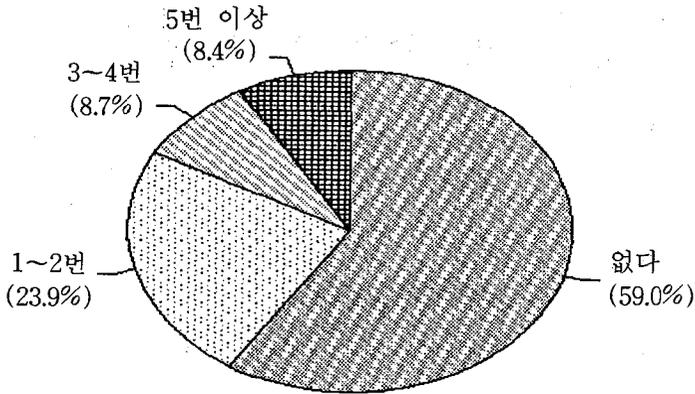
통일을 대비한 교육경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학교 이외에서 통일에 관한 교육 또는 강연을 몇번이나 받아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59.0%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23.9%가 「1~2번」, 8.7%가 「3~4번」, 8.4%가 「5번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그림 3-8-1〉 참조). 학교교육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고는 하지만 통일교육의 경험이 지나치게 적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배경변수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8-1〉 참조).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통일교육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대단히 높았으며(73.8% : 43.8%), 연령

〈표 3-7〉 주사파의 영향

변 수		항 목		대단히 위험적	다소 위험적	위협적이 지 않음	모르겠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32.8	39.5	12.4	15.3	$X^2=58.67$ $P=0.000$ $N=1,500$		
	여 자	23.8	38.0	7.5	30.7			
연 령	20대	24.2	44.1	12.9	18.9	$X^2=51.04$ $P=0.000$ $N=1,500$		
	30대	27.1	40.5	10.9	21.4			
	40대	33.9	35.5	8.4	22.3			
	50대	30.5	35.1	6.8	27.6			
	60대 이상	32.8	19.4	3.0	44.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0.3	40.8	11.2	17.6	$X^2=67.18$ $P=0.000$ $N=1,500$		
	경 상	26.6	41.8	7.5	24.1			
	전 라	14.9	32.3	14.9	37.9			
	충 청	38.4	29.8	6.0	25.8			
	강 원	36.4	36.4	7.3	20.0			
학 력	중졸 이하	27.8	25.1	5.9	41.1	$X^2=125.85$ $P=0.000$ $N=1,500$		
	고 졸	31.1	39.4	8.0	21.5			
	대재 이상	24.4	47.6	15.7	12.3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1.0	23.1	9.8	46.2	$X^2=74.88$ $P=0.000$ $N=1,500$		
	80~119만원	27.8	34.5	8.2	29.5			
	120~199만원	30.6	38.9	9.8	20.8			
	200~299만원	28.6	46.6	10.9	14.7			
	300만원 이상	27.3	42.3	12.9	17.5			
전 체		28.3	38.7	9.9	23.1	$N=1,500$		

〈그림 3-8-1〉 통일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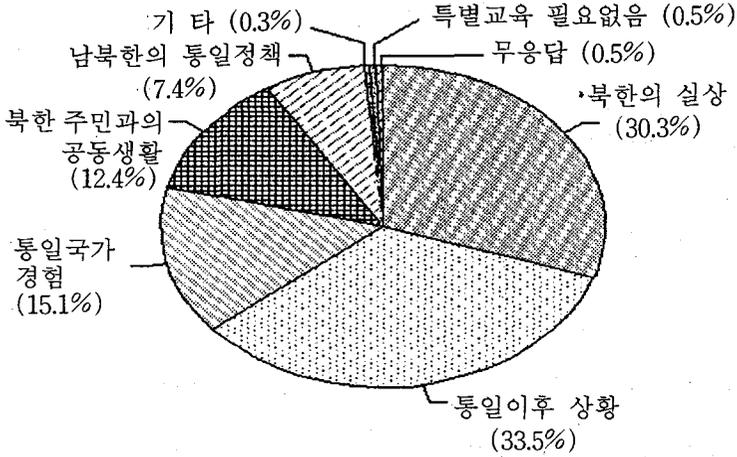
이 높을수록, 그리고 저학력자와 저소득자 일수록 통일교육 경험이 없었다. 학교교육 이외라는 단서를 고려한다면 통일교육의 사회집단별 편차가 크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빈도도 대상 집단에 따라 달라야 할 것이며, 사회집단에 따라 수용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교육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을 대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복수 응답을 허용한 이 질문에 대하여 1순위로 「통일 이후의 상황」을 선택한 사람이 33.5%이고 「북한의 실상」을 선택한 사

〈표 3-8-1〉 통일교육 경험

변 수		항 목				유의도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	
성 별	남 자	43.8	28.9	13.6	13.6	$X^2=161.24$ $P=0.000$ $N=1,500$
	여 자	73.8	18.9	3.9	3.3	
연 령	20대	52.5	29.0	10.6	7.8	$X^2=40.74$ $P=0.000$ $N=1,500$
	30대	56.5	26.4	8.5	8.7	
	40대	61.8	21.9	9.6	6.8	
	50대	65.3	18.5	6.8	9.4	
	60대 이상	80.6	4.5	3.0	11.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2.4	20.6	9.0	8.0	$X^2=18.79$ $P=0.094$ $N=1,500$
	경 상	53.6	30.2	7.7	8.4	
	전 라	63.1	20.0	7.7	9.2	
	충 청	55.6	23.8	11.9	8.6	
	강 원	56.4	25.5	9.1	9.1	
학 력	중졸 이하	76.9	11.8	3.6	7.7	$X^2=79.64$ $P=0.000$ $N=1,500$
	고 졸	57.7	26.6	8.5	7.2	
	대재 이상	47.8	28.4	12.9	10.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72.7	14.0	6.3	7.0	$X^2=35.05$ $P=0.001$ $N=1,500$
	80~119만원	61.9	19.6	8.2	10.3	
	120~199만원	57.6	28.2	8.1	6.1	
	200~299만원	58.7	23.6	9.1	8.6	
	300만원 이상	49.0	25.8	12.4	12.9	
전 체		59.0	23.9	8.7	8.4	$N=1,500$

〈그림 3-8-2〉 통일교육의 내용



람이 30.3%였다. 그리고 「독일과 같이 통일된 국가의 경험」이 15.1%,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생활 방안」이 12.4%, 「남북한의 통일정책」이 7.4%였다(〈그림 3-8-2〉 참조).

통일 이후 상황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통일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실상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동안의 학교내외에서 이루어진 북한교육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통일국가의 경험이나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반해 통일방안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국민들이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는 젊은 사람일수록 통일 이후의 상황에 관심이 많았으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관심이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통일 이후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표 3-8-2〉 참조).

통일교육의 내용에서 2순위는 「남북한의 통일정책」(24.1%), 「통일 이후의 상황」(23.1%), 「북한주민들과의 공동생활 방안」(23.0%), 「독일과 같이 통일된 국가의 경험」(18.6%), 「북한의 실상」(7.0%)의 순이었다.

〈표 3-8-2〉 통일교육의 내용

변 수		항 목		북한 의 실상	통일 이후 상황	통일 국가 경험	북한 주민 과의 공동 생활	남북 한의 통일 정책	기 타	특별 교육 필요 없음	무 응 답	유의도
		남 자	여 자									
성 별	남 자	31.4	33.1	14.7	12.2	7.4	0.4	0.4	0.4	X <sup>2</sup> =2.40 P=0.934 N=1,500		
	여 자	29.3	33.8	15.5	12.6	7.4	0.1	0.7	0.5			
연 령	20대	28.2	35.4	14.8	14.2	6.8	0.4	0.2	0.0	X <sup>2</sup> =61.60 P=0.000 N=1,500		
	30대	29.9	38.1	15.2	10.0	6.5	0.5	0.0	0.0			
	40대	31.9	35.1	14.7	9.2	8.0	0.0	0.4	0.8			
	50대	31.5	27.3	13.6	15.6	9.1	0.0	1.3	1.6			
	60대 이상	37.3	14.9	25.4	11.9	7.5	0.0	3.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1.4	35.5	13.5	11.2	7.9	0.2	0.3	0.0	X <sup>2</sup> =60.65 P=0.000 N=1,500		
	경 상	27.5	34.3	17.7	13.2	4.5	0.5	0.7	1.6			
	전 라	23.1	30.8	15.4	16.4	13.3	0.0	1.0	0.0			
	충 청	38.4	29.1	15.2	10.6	6.0	0.7	0.0	0.0			
	강 원	43.6	23.6	12.7	10.9	7.3	0.0	1.8	0.0			
학 력	중졸 이하	34.0	25.1	13.9	13.6	9.8	0.0	1.5	2.1	X <sup>2</sup> =59.80 P=0.000 N=1,500		
	고 졸	30.0	33.1	17.3	12.5	6.3	0.1	0.3	0.0			
	대재 이상	27.6	40.1	12.7	11.4	7.3	0.6	0.2	0.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9.4	27.3	13.3	9.8	13.3	0.0	4.2	2.8	X <sup>2</sup> =115.38 P=0.000 N=1,500		
	80~119만원	33.1	27.8	17.1	15.3	5.7	0.0	0.4	0.7			
	120~199만원	29.3	34.3	17.3	13.1	5.3	0.4	0.2	0.2			
	200~299만원	30.7	36.9	14.7	12.4	5.0	0.3	0.0	0.0			
	300만원 이상	29.4	38.1	8.2	8.2	15.5	0.5	0.0	0.0			
전 체		30.3	33.5	15.1	12.4	7.4	0.3	0.5	0.5	N=1,500		

## 제 4 장 통일정책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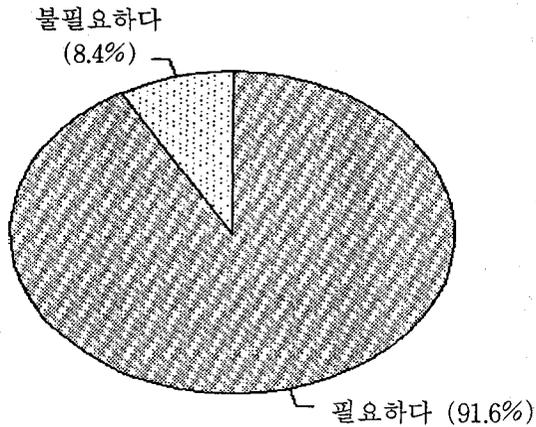
###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당위적인 경향이 있으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의 와중에서 다원화된 사회집단들간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연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91.6%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을 한 사람은 단지 8.4%에 불과하여 국민 대다수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1〉 참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집단에 다소의 차이를 보였는데(〈표 4-1-1〉 참조) 성별로는 남자(94.2%)가 여자(89.1%)에 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소 강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8.5%로 20대의 88.8%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을 원하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1〉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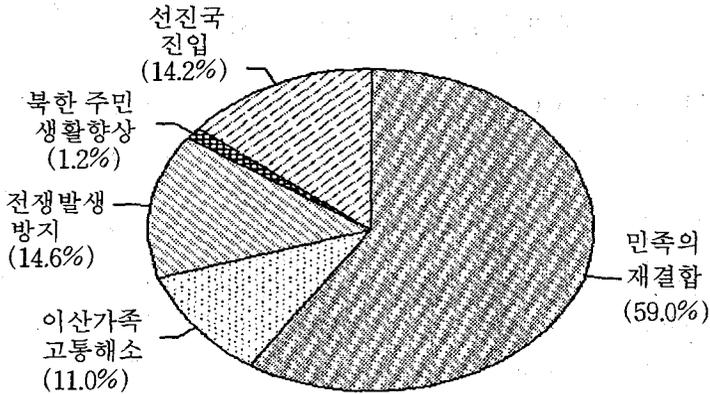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응답자 중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이 76.4%로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낮았다. 강원도 주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것은 강원지역의 낙후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석탄 산업의 사양화와 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강원지역에서는 지역발전과 같은 지역문제가 더욱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필요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총 1,374명)에게는 “귀하는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그리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사람들(총 126명)에게는 “귀하는 왜 통일이

〈표 4-1-1〉 통일 의 필요성

변 수		항 목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94.2	5.8	$X^2=12.07$ P=0.001 N=1,500
	여 자		89.1	10.9	
연 령	20대		88.8	11.2	$X^2=13.23$ P=0.010 N=1,500
	30대		91.3	8.7	
	40대		91.6	8.4	
	50대		94.8	5.2	
	60대 이상		98.5	1.5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92.0	8.0	$X^2=18.08$ P=0.001 N=1,500
	경 상		91.6	8.4	
	전 라		93.3	6.7	
	충 청		93.4	6.6	
	강 원		76.4	23.6	
학 력	중졸 이하		94.1	5.9	$X^2=4.82$ P=0.090 N=1,500
	고 졸		90.1	9.9	
	대재 이상		92.0	8.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93.0	7.0	$X^2=1.26$ P=0.868 N=1,500
	80~119만원		92.5	7.5	
	120~199만원		91.5	8.5	
	200~299만원		91.2	8.8	
	300만원 이상		90.2	9.8	
전 체			91.6	8.4	N=1,500

〈그림 4-1-2〉 통일이 필요한 이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족의 재결합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59.0%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쟁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와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가 각각 14.6%와 14.2%로 비슷하였고,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하여」가 11.0%,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가 1.2%를 차지하였다(〈그림 4-1-2〉 참조).

배경변수에 있어서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4-1-2〉 참조). 20대의 경우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가 19.8%이고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하여」라는 응답이 5.0%인데 반해서,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선진국 진입을

〈표 4-1-2〉 통일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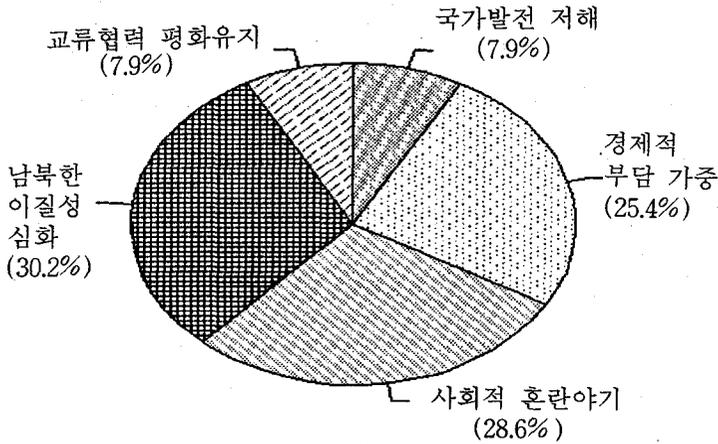
항 목 변 수		민족의 재결합	이산가족 고통해소	전쟁발생 방지	북한주민 생활향상	선진국 진입	유의도
성 별	남 자	64.7	7.0	12.5	0.6	15.2	X <sup>2</sup> =38.64 P=0.000 N=1,374
	여 자	53.0	15.1	16.8	1.9	13.1	
연 령	20대	59.9	5.0	14.1	1.2	19.8	X <sup>2</sup> =89.05 P=0.000 N=1,374
	30대	59.9	9.3	15.0	1.6	14.2	
	40대	62.2	8.3	12.2	1.3	16.1	
	50대	56.5	20.9	14.4	1.0	7.2	
	60대 이상	47.0	24.2	25.8	0.0	3.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2.5	10.4	12.7	1.5	12.9	X <sup>2</sup> =26.90 P=0.043 N=1,374
	경 상	51.6	13.2	17.4	1.0	16.9	
	전 라	62.6	8.2	18.1	0.5	10.4	
	충 청	60.3	8.5	11.3	2.1	17.7	
	강 원	57.1	19.0	11.9	0.0	11.9	
학 력	중졸 이하	48.4	21.1	21.1	1.3	8.2	X <sup>2</sup> =93.04 P=0.000 N=1,374
	고 졸	58.8	10.8	15.1	1.0	14.3	
	대재 이상	67.0	3.7	9.1	1.6	18.5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6.4	18.8	15.0	0.8	9.0	X <sup>2</sup> =25.91 P=0.055 N=1,374
	80~119만원	55.8	10.0	19.6	0.8	13.8	
	120~199만원	57.3	10.7	15.1	2.0	14.9	
	200~299만원	62.1	10.0	12.0	1.0	14.9	
	300만원 이상	64.6	9.1	10.3	0.6	15.4	
전 체		59.0	11.0	14.6	1.2	14.2	N=1,374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와 3.0%에 불과하며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20.9%와 24.2%나 되었다. 따라서 젊은 사람일수록 현실적인 통일이유를 제시하는 반면에 50대 이상은 정서적인 차원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력별로도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재 이상의 고학력인 사람들이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18.5%),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들은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하여」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21.1%).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한 이질성이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30.2%, 28.6%, 25.4%로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교류 협력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기 때문에」와 「국가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7.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그림 4-1-3〉 참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주로 경제적 부담 가중(34.9%)을 통일이 필요없는 이유로 꼽은 반면, 여자는 사회적 혼란야기(37.3%)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4-1-3〉 참조).

〈그림 4-1-3〉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 2. 통일이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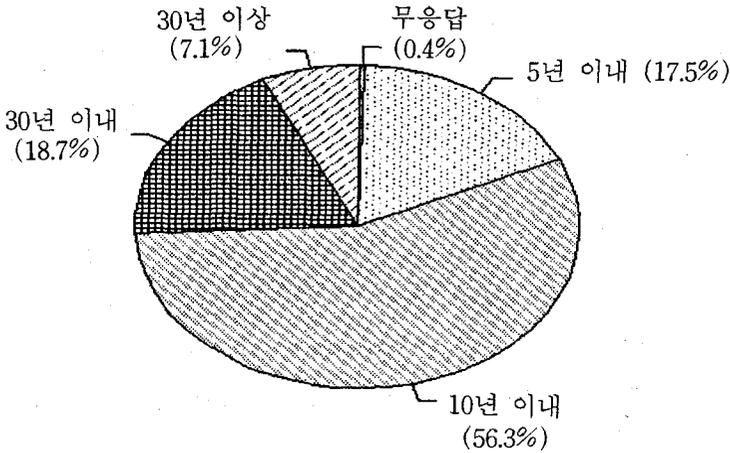
통일이상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10년 이내」(56.3%), 「30년 이내」(18.7%), 「5년 이내」(17.5%)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2〉 참조). 전체 응답자의 총 92.5%가 30년 이내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여 국민 대다수가 한 세대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과 비교해 볼 때, 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75.9%에서 92.5%로 증가하여 국민

〈표 4-1-3〉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

변 수		항 목	국가발전 저해	경제적 부담가중	사회적 혼란야기	남북한이 질성심화	교류협력 평화유지	유의도
성 별	남 자		9.3	34.9	11.6	32.6	11.6	X <sup>2</sup> =10.27 P=0.036 N=126
	여 자		7.2	20.5	37.3	28.9	6.0	
연 령	20대		7.5	18.9	30.2	34.0	9.4	X <sup>2</sup> =11.99 P=0.744 N=126
	30대		5.7	34.3	25.7	31.4	2.9	
	40대		4.8	33.3	28.6	23.8	9.5	
	50대		18.8	12.5	31.3	25.0	12.5	
	60대 이상		0.0	100.0	0.0	0.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8	32.1	26.4	32.1	5.7	X <sup>2</sup> =23.24 P=0.107 N=126
	경 상		13.5	18.9	40.5	13.5	13.5	
	전 라		15.4	30.8	0.0	46.2	7.7	
	충 청		10.0	30.0	30.0	30.0	0.0	
	강 원		0.0	7.7	30.8	53.8	7.7	
학 력	중졸 이하		10.0	30.0	40.0	20.0	0.0	X <sup>2</sup> =7.15 P=0.520 N=126
	고 졸		7.2	21.7	30.4	33.3	7.2	
	대재 이상		8.1	29.7	18.9	29.7	13.5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0.0	20.0	30.0	30.0	0.0	X <sup>2</sup> =10.78 P=0.823 N=126
	80~119만원		9.5	19.0	23.8	42.9	4.8	
	120~199만원		4.3	26.1	37.0	21.7	10.9	
	200~299만원		10.0	30.0	23.3	26.7	10.0	
	300만원 이상		5.3	26.3	21.1	42.1	5.3	
전 체			7.9	25.4	28.6	30.2	7.9	N=126

〈그림 4-2〉 통일예상시기



들이 통일시기에 대해 조금 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 3. 통일방안 인지도 및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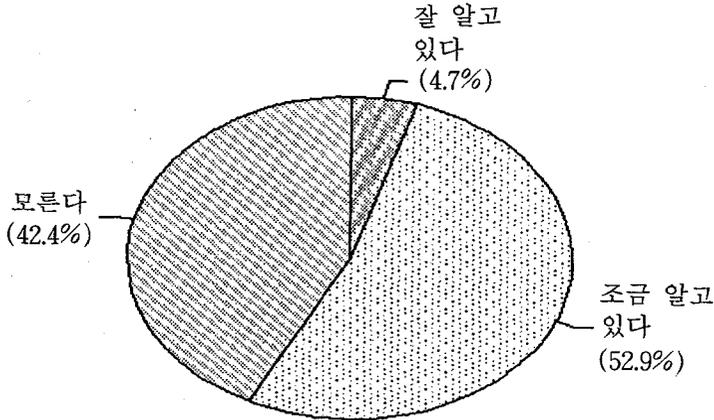
통일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성격의 통일을 이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통일의 모습 뿐만 아니라 통일방법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 또한 남한 내에서도 서로 성격이 다른 통일방안이 다양하게 존재하면서 상호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간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

〈표 4-2〉 통일예상시기

변 수		항 목		5년	10년	30년	30년	무응답	유의도
		이내	이내	이내	이상				
성 별	남 자	19.3	56.8	17.2	6.4	0.4	X <sup>2</sup> =5.72 P=0.221 N=1,500		
	여 자	15.8	55.8	20.3	7.8	0.4			
연 령	20대	19.3	54.2	18.9	7.4	0.2	X <sup>2</sup> =19.30 P=0.254 N=1,500		
	30대	15.2	60.0	19.2	5.5	0.2			
	40대	15.1	60.2	19.1	5.2	0.4			
	50대	18.5	53.9	16.9	9.7	1.0			
	60대 이상	23.9	44.8	22.4	9.0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4.3	57.1	20.5	8.0	0.2	X <sup>2</sup> =32.42 P=0.009 N=1,500		
	경 상	18.0	59.1	16.8	5.2	0.9			
	전 라	26.2	46.2	18.5	9.2	0.0			
	충 청	19.9	59.6	14.6	5.3	0.7			
	강 원	16.4	50.9	25.5	7.3	0.0			
학 력	중졸 이하	18.9	51.5	17.2	11.2	1.2	X <sup>2</sup> =21.66 P=0.006 N=1,500		
	고 졸	17.8	57.6	18.3	6.2	0.1			
	대재 이상	16.2	57.8	20.5	5.4	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5.9	44.8	21.0	7.7	0.7	X <sup>2</sup> =21.08 P=0.176 N=1,500		
	80~119만원	19.2	54.4	18.5	6.8	1.1			
	120~199만원	16.8	57.6	17.9	7.4	0.4			
	200~299만원	16.5	56.6	20.1	6.8	0.0			
	300만원 이상	12.9	62.9	17.5	6.7	0.0			
전 체		17.5	56.3	18.7	7.1	0.4	N=1,500		

〈그림 4-3-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인지도



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잘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7%인 반면에 「조금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2.9%였으며, 「모른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42.4%나 되었다(〈그림 4-3-1〉 참조).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모른다는 사람의 비율이 40%를 넘고 있는 반면, 잘알고 있다는 사람은 5%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통일방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남북한간의 통일협상

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공식적 방안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방안에는 통일 이후의 체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방안은 통일의 방법인 동시에 체제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방안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통일방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여론 수렴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 야기되거나 일부 집단에 이익이 되는 통일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국민적 동의가 부족한 통일정책은 그 자체가 강력한 추동력을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생각할 때,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교육 및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1994년 8월 15일에 공식화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한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도 있으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집단별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모른다는 비율이 차이가 컸다(〈표 4-3-1〉 참조). 여성이

〈표 4-3-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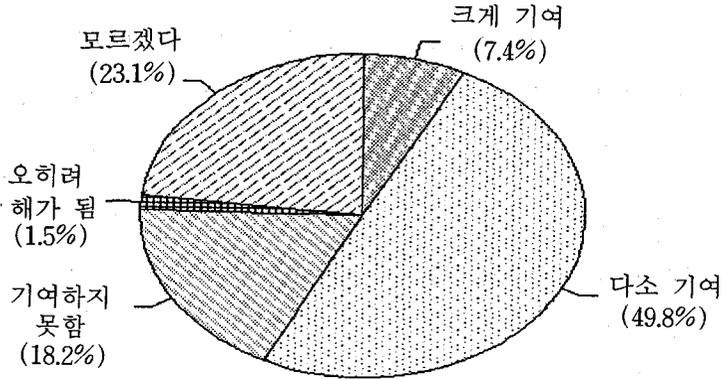
변 수		항 목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7.4	62.8	29.7	X <sup>2</sup> =106.31 P=0.000 N=1,500
	여 자		2.0	43.3	54.7	
연 령	20대		4.2	61.4	34.3	X <sup>2</sup> =63.20 P=0.000 N=1,500
	30대		5.2	58.2	36.6	
	40대		4.8	50.2	45.0	
	50대		4.5	41.9	53.6	
	60대 이상		4.5	22.4	73.1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6	51.7	43.7	X <sup>2</sup> =33.33 P=0.000 N=1,500
	경 상		2.0	58.6	39.3	
	전 라		7.7	40.0	52.3	
	충 청		8.6	55.6	35.8	
	강 원		5.5	60.0	34.5	
학 력	중졸 이하		3.3	33.7	63.0	X <sup>2</sup> =91.40 P=0.000 N=1,500
	고 졸		3.9	55.6	40.5	
	대재 이상		6.9	62.9	3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5	35.7	60.8	X <sup>2</sup> =36.48 P=0.000 N=1,500
	80~119만원		5.0	49.8	45.2	
	120~199만원		4.4	53.8	41.8	
	200~299만원		3.5	61.9	34.5	
	300만원 이상		7.7	52.1	40.2	
전 체			4.7	52.9	42.4	N=1,500

남성보다 훨씬 많았으며(54.7% : 29.7%),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전라도 지역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통일방안을 모르고 있었으며(52.3%), 학력이 낮은 집단과 저소득층이 통일방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통일 방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 집단별로 차별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홍보는 집단에 따라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여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다소 기여한다」의 49.8%와 「크게 기여한다」의 7.4%를 합쳐 전체 응답자의 57.2%가 통일방안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기여하지 못한다」가 18.2%, 「오히려 해가 된다」가 1.5%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전체의 19.7%를 차지하였다(〈그림 4-3-2〉 참조).

배경변수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저학력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표 4-3-2〉 참조). 이는 이들 집단이 통일방안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능력이 타 집단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 및 홍보가 증대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4-3-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여도



#### 4. 남북관계개선 우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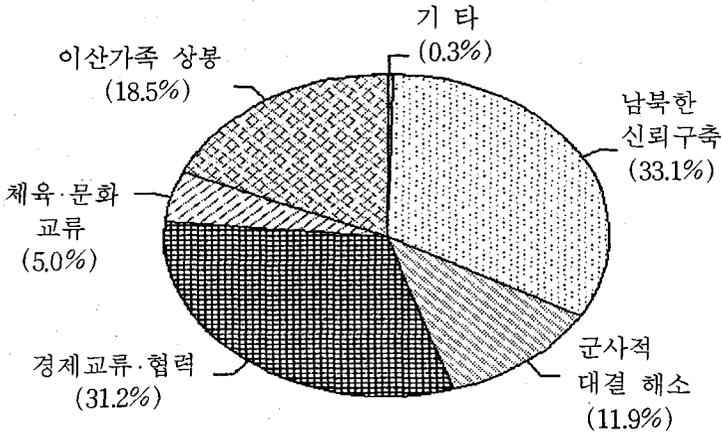
냉전질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여전히 대결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반세기에 걸친 대립상황을 고려한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관계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분야

〈표 4-3-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여도

변 수		항 목					유의도
		크게 기여	다소 기여	기여하지 못함	오히려 해가됨	모르겠다	
성 별	남 자	8.0	53.4	18.9	1.1	18.6	X <sup>2</sup> =18.99 P=0.001 N=1,500
	여 자	6.8	46.3	17.5	1.8	27.5	
연 령	20대	5.1	53.2	22.7	1.3	17.8	X <sup>2</sup> =85.21 P=0.000 N=1,500
	30대	7.7	49.8	21.1	0.7	20.6	
	40대	8.8	49.0	15.9	1.2	25.1	
	50대	8.4	50.0	12.0	1.3	28.2	
	60대 이상	11.9	28.4	6.0	9.0	44.8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4	53.7	17.3	1.2	21.4	X <sup>2</sup> =28.47 P=0.028 N=1,500
	경 상	7.3	46.8	20.2	2.3	23.4	
	전 라	7.7	45.1	14.9	0.5	31.8	
	충 청	12.6	48.3	20.5	0.7	17.9	
	강 원	5.5	47.3	18.2	3.6	25.5	
학 력	중졸 이하	7.7	42.3	10.4	2.7	37.0	X <sup>2</sup> =89.28 P=0.000 N=1,500
	고 졸	9.6	51.7	16.6	1.3	20.8	
	대재 이상	3.9	52.4	26.3	0.9	16.6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8.4	29.4	16.1	4.2	42.0	X <sup>2</sup> =74.57 P=0.000 N=1,500
	80~119만원	8.2	55.2	10.7	0.7	25.3	
	120~199만원	8.1	47.9	19.7	1.7	22.7	
	200~299만원	6.2	56.3	19.8	1.5	16.2	
	300만원 이상	5.7	51.0	23.7	0.0	19.6	
전 체		7.4	49.8	18.2	1.5	23.1	N=1,500

〈그림 4-4〉 남북관계개선 우선분야



의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33.1%가 「남북한 신뢰구축」을 꼽았으며, 31.2%는 「경제교류 및 협력」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이 18.5%, 「군사적 대결 해소」가 11.9%, 「체육·문화분야의 교류」가 5.0%의 순이었다(〈그림 4-4〉 참조).

1992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의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과 큰 차이가 없으나(신뢰구축 28.9%, 이산가족 상봉 22.2%, 경제교류 협력 22.0%, 군사적 대결 축소 10.8%, 핵문제 해결 9.3%, 체육문화교류 6.8%), 핵문제 해결로 경제교류 협력을 꼽은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사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60대의 경우는 46.3%가 이산가족 상봉을 첫 번째로 필요한 사업으로 꼽았다. 또한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38.2%)와 79만원이하의 저소득자(37.8%)도 이산가족 상봉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4-4〉 참조).

## 5. 통일의 기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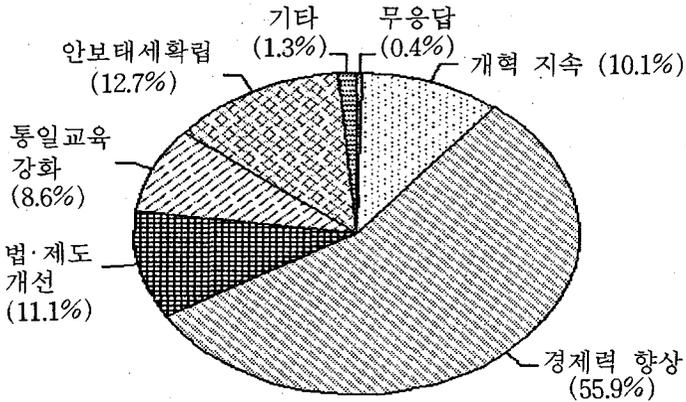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남한의 현상태가 통일한국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없으며, 통일과정에서는 북한의 부정적인 요소와 남한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결합하여 수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남한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한은 어디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55.9%가 「경제력을 향상시킨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12.7%는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11.1%는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10.1%는 「개혁을 지속한다」, 8.6%는 「통일교육을 강화한다」고 대답하였다(〈그림 4-5〉 참조).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경

〈표 4-4〉 남북관계개선 우선분야

변 수		항 목		남북한 신뢰 구축	군사적 대결 해소	경제 교류 협력	체육 문화 교류	이산 가족 상봉	기타	유의도
성 별	남 자	35.0	11.1	32.2	5.8	15.7	0.3	$X^2=11.23$ P=0.047 N=1,500		
	여 자	31.2	12.8	30.3	4.2	21.2	0.4			
연 령	20대	38.3	12.9	32.6	6.6	9.3	0.2	$X^2=96.71$ P=0.000 N=1,500		
	30대	34.1	14.2	30.8	4.5	16.4	0.0			
	40대	30.3	7.6	35.1	5.2	20.7	1.2			
	50대	28.9	11.7	27.9	3.9	27.3	0.3			
	60대 이상	19.4	9.0	23.9	1.5	46.3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35.5	11.4	32.9	4.7	15.3	0.2	$X^2=26.64$ P=0.146 N=1,500		
	경 상	30.2	11.8	32.5	4.8	20.0	0.7			
	전 라	28.7	11.3	30.8	5.6	23.6	0.0			
	충 청	37.7	13.9	23.2	6.0	19.2	0.0			
	강 원	29.1	16.4	23.6	5.5	23.6	1.8			
학 력	중졸 이하	21.6	10.7	25.7	3.0	38.2	0.9	$X^2=126.17$ P=0.000 N=1,500		
	고 졸	35.2	13.5	31.9	5.3	13.9	0.1			
	대재 이상	38.1	10.6	34.1	6.0	11.0	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8.0	9.1	19.6	5.6	37.8	0.0	$X^2=55.96$ P=0.000 N=1,500		
	80~119만원	31.3	11.4	34.5	3.2	19.2	0.4			
	120~199만원	34.1	13.8	30.0	5.2	16.4	0.6			
	200~299만원	33.0	11.2	32.4	5.9	17.4	0.0			
	300만원 이상	36.6	10.8	36.1	5.2	10.8	0.5			
전 체		33.1	11.9	31.2	5.0	18.5	0.3	N=1,500		

〈그림 4-5〉 통일의 기반사업



제력 향상을 통일의 핵심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2년의 여론조사에서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하였는데, 응답지문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경제력 향상은 국민통합 달성(40.8%), 민주화정착(25.3%)에 이어 세번째로 지적되었으며(24.8%), 안보태세강화는 다음의 순서였다(9.1%). 이와 같은 차이는 1992년도는 문민정권 이전 시기로서 정치적 문제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생각한 반면, 현재는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욱 고조

〈표 4-5〉 통일의 기반사업

변 수		항 목		개혁 지속	경제력 향상	법· 제도 개선	통일 교육 강화	안보 태세 확립	기 타	무 응 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10.5	58.1	11.5	7.6	10.8	1.4	0.1	$X^2=10.57$ $P=0.103$ $N=1,500$		
	여 자	9.6	53.7	10.7	9.6	14.6	1.2	0.7			
연 령	20대	7.4	58.9	10.0	10.4	12.1	1.3	0.0	$X^2=48.62$ $P=0.002$ $N=1,500$		
	30대	12.2	51.5	13.9	9.7	11.7	1.0	0.0			
	40대	10.0	56.2	9.6	9.2	13.9	0.8	0.4			
	50대	12.7	56.8	10.4	4.2	13.0	1.3	1.6			
	60대 이상	4.5	55.2	10.4	7.5	17.9	4.5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0.5	59.5	9.1	9.3	11.4	0.3	0.0	$X^2=48.51$ $P=0.002$ $N=1,500$		
	경 상	8.4	55.5	11.1	9.1	12.5	2.3	1.1			
	전 라	12.3	51.8	16.4	6.7	11.8	1.0	0.0			
	충 청 강 원	8.6	50.3	11.3	8.6	18.5	2.6	0.0			
학 력	중졸 이하	7.7	54.1	13.3	6.2	14.2	2.7	1.8	$X^2=48.28$ $P=0.000$ $N=1,500$		
	고 졸	10.6	55.4	8.9	10.9	13.6	0.6	0.0			
	대재 이상	11.0	57.8	12.7	6.9	10.3	1.3	0.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3.3	44.8	11.9	5.6	16.1	4.9	3.5	$X^2=74.64$ $P=0.000$ $N=1,500$		
	80~119만원	7.1	58.7	11.7	9.3	12.1	1.1	0.0			
	120~199만원	10.5	56.4	11.6	9.2	11.4	0.7	0.2			
	200~299만원	11.5	52.8	10.6	9.7	14.2	1.2	0.0			
	300만원 이상	8.2	63.9	8.8	6.2	12.4	0.5	0.0			
전 체		10.1	55.9	11.1	8.6	12.7	1.3	0.4	$N=1,500$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의 통일논의가 경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통일정책 수립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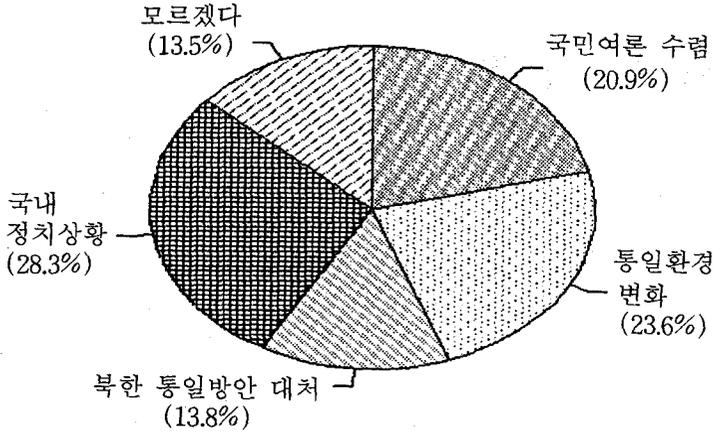
정부의 통일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은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28.3%),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23.6%),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진다」(20.9%),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다」(13.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6> 참조). 이 결과는 상당수의 응답자(28.3%)가 합리적인 사고와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통일정책이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안된다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변수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표 4-6> 참조).

## 7. 북한 붕괴와 통일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체제와는 달리 현체제를 굳건히 유

〈그림 4-6〉 통일정책 수립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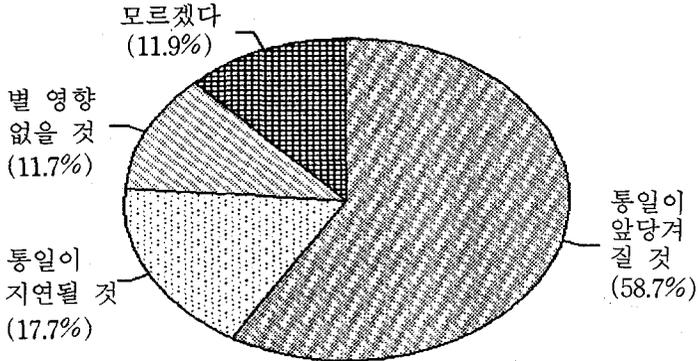
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김일성의 급격한 사망 등 체제붕괴를 초래할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한이 급격히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붕괴와 통일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북한이 급속하게 붕괴하게 된다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58.7%가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대답하였고, 17.7%는 「통일이 지연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11.7%는 「통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그림 4-7〉 참조).

〈표 4-6〉 통일정책 수립과정

변 수		항 목	국민 여론 수렴	통일 환경 변화	북한 통일방안 대처	국내 정치 상황	모르 겠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20.7	26.1	13.8	29.7	9.7	$X^2=20.09$ P=0.001 N=1,500
	여 자		21.1	21.2	13.8	26.8	17.1	
연 령	20대		18.9	22.9	16.9	33.3	8.1	$X^2=72.56$ P=0.000 N=1,500
	30대		19.9	24.1	15.2	29.4	11.4	
	40대		23.1	24.7	12.7	24.7	14.7	
	50대		23.1	25.3	10.4	23.1	18.2	
	60대 이상		22.4	13.4	3.0	23.9	37.3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0.6	27.3	15.2	25.2	11.7	$X^2=40.08$ P=0.001 N=1,500
	경 상		19.3	22.5	13.0	31.6	13.6	
	전 라		23.6	16.9	10.8	29.7	19.0	
	충 청		25.8	24.5	11.9	28.5	9.3	
	강 원		12.7	9.1	20.0	32.7	25.5	
학 력	중졸 이하		23.7	17.8	8.9	21.0	28.7	$X^2=122.04$ P=0.000 N=1,500
	고 졸		23.1	24.4	14.8	26.6	11.2	
	대재 이상		15.5	26.7	15.9	36.0	5.8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3.1	10.5	9.1	27.3	30.1	$X^2=83.65$ P=0.000 N=1,500
	80~119만원		23.5	23.5	11.0	24.9	17.1	
	120~199만원		19.3	25.4	16.8	26.0	12.5	
	200~299만원		16.2	24.5	15.3	34.8	9.1	
	300만원 이상		27.8	26.8	10.3	28.9	6.2	
전 체			20.9	23.6	13.8	28.3	13.5	N=1,500

〈그림 4-7〉 북한 붕괴와 통일



1993년도 여론조사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통일을 앞당길 것이다가 67.3%,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다가 18.7%, 모르겠다가 14.0%였다. 질문이나 지문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북한체제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3년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가 통일이 지연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과 통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지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30%에 가까운 사람들은 북한의 붕괴가 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표 4-7〉 북한 붕괴와 통일

변 수		항 목		통일이 없을것	모르 겠다	유의도
		통일이 앞당겨질것	통일이 지연될것			
성 별	남 자	61.6	18.5	11.6	8.2	$X^2=19.45$ $P=0.000$ $N=1,500$
	여 자	55.8	16.8	11.8	15.5	
연 령	20대	57.0	21.8	11.9	9.3	$X^2=35.49$ $P=0.000$ $N=1,500$
	30대	61.2	17.4	11.9	9.5	
	40대	58.6	19.5	10.4	11.6	
	50대	59.1	11.7	12.7	16.6	
	60대 이상	53.7	10.4	10.4	25.4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62.4	16.8	10.9	9.9	$X^2=33.35$ $P=0.001$ $N=1,500$
	경 상	59.8	16.6	10.7	13.0	
	전 라	51.8	21.5	10.8	15.9	
	충 청	51.0	23.8	15.2	9.9	
	강 원	50.9	5.5	23.6	20.0	
학 력	중졸 이하	49.7	14.8	11.5	24.0	$X^2=64.03$ $P=0.000$ $N=1,500$
	고 졸	59.9	18.2	12.3	9.6	
	대재 이상	63.4	19.0	11.0	6.7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2.4	13.3	9.8	24.5	$X^2=38.74$ $P=0.000$ $N=1,500$
	80~119만원	54.4	18.9	10.7	16.0	
	120~199만원	60.8	17.5	11.2	10.5	
	200~299만원	59.6	17.7	14.2	8.6	
	300만원 이상	61.9	19.6	11.9	6.7	
전 체		58.7	17.7	11.7	11.9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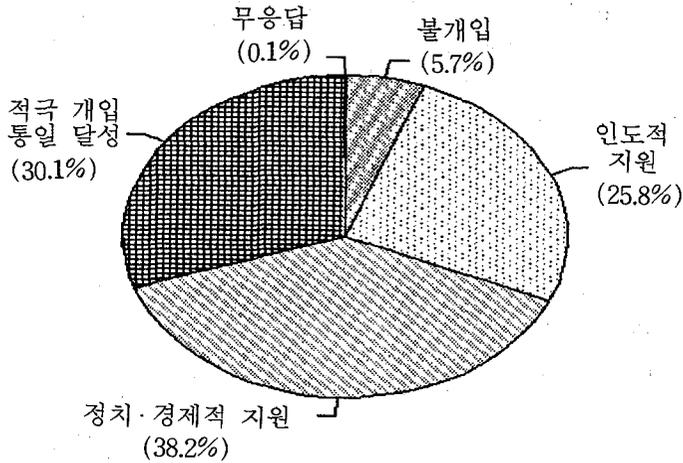
## 8. 북한 붕괴시 대처방안

북한이 급속히 붕괴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북한내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남한에서도 대처 방안에 대한 논란 등으로 정치·경제·사회적인 파장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의 붕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만약 북한이 급속하게 붕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8.2%가 「북한이 안정을 회복하도록 정치·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라는 대답을 하였으며, 다음으로 「적극개입하여 통일을 달성하도록 한다」가 30.1%, 「식량 등 인도적 차원에서만 지원해야 한다」가 25.8%였고,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가 5.7%였다(〈그림 4-8〉 참조). 전반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할 수 있으나 개입의 형태와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배경변수 보다는 연령별로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표 4-8〉 참조). 20대와 30대는 정치·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42.2%, 38.8%), 50대와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31.2%, 37.3%).

〈그림 4-8〉 북한 붕괴시 대처방안



## 9. 통일후 분야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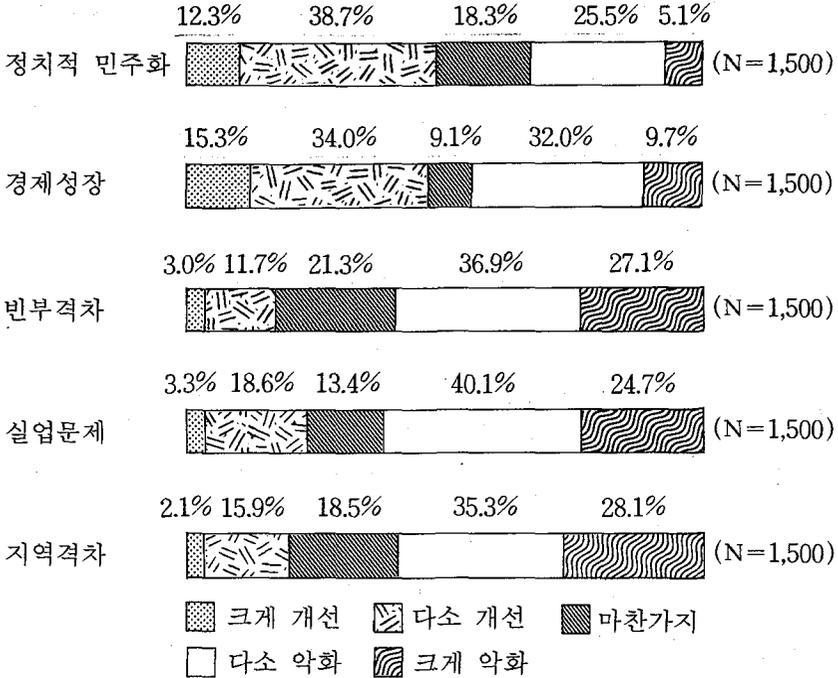
### 가. 분야별 전망

한반도 통일 이후 예상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서 “귀하는 통일후 다음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정치적 민주화에 있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렸다. 한편,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격차에 있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

〈표 4-8〉 북한 붕괴시 대처방안

변 수		항 목		인도적 지원	정치· 경제적 지원	적극개입 통일달성	무 응 답	유의도
		불개입						
성 별	남 자	5.4	22.8	42.0	29.6	0.1	X <sup>2</sup> =10.98 P=0.027 N=1,500	
	여 자	6.1	28.7	34.5	30.7	0.1		
연 령	20대	4.7	22.7	42.2	30.3	0.2	X <sup>2</sup> =27.62 P=0.035 N=1,500	
	30대	7.2	24.9	38.8	29.1	0.0		
	40대	6.8	23.5	40.6	29.1	0.0		
	50대	3.9	31.2	33.1	31.5	0.3		
	60대 이상	9.0	37.3	20.9	32.8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7.1	28.7	34.3	29.9	0.0	X <sup>2</sup> =30.08 P=0.018 N=1,500	
	경 상	3.9	24.5	40.7	30.5	0.5		
	전 라	4.1	20.0	39.0	36.9	0.0		
	충 청	7.9	23.8	46.4	21.9	0.0		
	강 원	3.6	27.3	40.0	29.1	0.0		
학 력	중졸 이하	6.5	27.8	33.4	32.0	0.3	X <sup>2</sup> =17.70 P=0.024 N=1,500	
	고 졸	6.9	27.1	36.8	29.2	0.0		
	대재 이상	3.4	22.4	43.8	30.2	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6.3	25.9	35.7	31.5	0.7	X <sup>2</sup> =22.74 P=0.121 N=1,500	
	80~119만원	5.3	22.1	43.8	28.8	0.0		
	120~199만원	4.8	26.3	34.6	34.3	0.0		
	200~299만원	7.4	28.0	38.6	26.0	0.0		
	300만원 이상	5.7	25.8	41.2	26.8	0.5		
전 체		5.7	25.8	38.2	30.1	0.1	N=1,500	

〈그림 4-9〉 통일후 분야별 전망



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보다 우세하였다(〈그림 4-9〉 참조).

통일후 각 분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이 질문은 3년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계속되었는데,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통일이 현안문제로 떠올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 이후의 분야별 상황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에 대하여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8.7%,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12.3%로서 전체 응답자의 51.0%가 정치적 민주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다소 악화될 것이다」와 「크게 악화될 것이다」가 각각 25.5%와 5.1%를 차지해 비관적인 전망도 30.6%를 나타냈으며, 「마찬가지일 것이다」는 견해는 18.3%를 차지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 동안의 조사를 비교해 보면, 개선에 대한 전망이 64.3%, 61.0%, 51.0%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18.9%, 22.4%, 30.6%로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에 대해 「다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4.0%,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15.3%로서 전체 응답자의 49.3%가 경제성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다소 악화될 것이다」와 「크게 악화될 것이다」가 각각 32.0%와 9.7%를 차지해 비관적인 전망도 무려 전체의 41.7%나 차지하였고, 「마찬가지일 것이다」가 9.1%를 나타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22.1%, 28.6%, 41.7%)에 있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 빈부격차가 「다소 악화될 것이다」고 보는 응답자가 36.9%, 「크게 악화될 것이다」가 27.1%를 차지하여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전체의 64.0%인 반면, 「마찬가지일 것이다」는 21.3%였으며 「크게 개선될 것이다」와 「다소 개선될 것이다」는 낙관적인 전망은 3.0%와 11.7%로서 총 14.7%만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 통일후 빈부격차가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고, 1992년부터 1994년 사이를 비교해 보면, 40.8%, 50.0%, 64.0%로 비관적 전망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문제에 대하여 「다소 악화될 것이다」(40.1%)와 「크게 악화될 것이다」(24.7%)가 전체 응답의 64.8%를 차지해 「다소 개선될 것이다」(18.6%)와 「크게 개선될 것이다」(3.3%)의 합인 21.9%보다 높아 비관적인 견해가 우세함을 보여주었다. 실업문제도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1992년의 41.9%, 1993년의 52.6%에 이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이후 지역격차가 「다소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35.3%, 「크게 악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응답자가 28.1%로서 전체 응답자의 63.4%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마찬가지일 것이다」가 18.5%를 차지하였다. 한편, 「다소 개선될 것이다」가 15.9%, 「크게 개선될 것이다」가 2.1%를 차지해 낙관적인 전망은 전체의 18.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보다 우

세함을 보여주었다. 1992년부터 3년 동안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41.5%, 49.4%, 63.4%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 나. 변량분석

통일후 분야별 전망에 대하여 배경변수별로 변량분석(ANOVA)을 하였다. 각 문항별로 통일 이후 「크게 개선될 것이다」에 1점, 「다소 개선될 것이다」에 2점, 「마찬가지일 것이다」에 3점, 「다소 악화될 것이다」에 4점, 「크게 악화될 것이다」에 5점을 부여하고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가구소득별로 응답분포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평균이 높을수록 통일후 분야별 전망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변량분석 결과(〈표 4-9-1〉에서 〈표 4-9-5〉까지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전망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경제성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서 차이가 있으나 연령이 많아지거나 적어짐에 따르는 경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학력에 따른 차이는 빈부격차, 실업문제 및 지역격차에 대한 통일후 전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 분야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에 따른 차이는 빈부격차에 대한 전망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대체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표 4-9-1〉 통일후 분야별 전망: 정치적 민주화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2.6581	1.1173	4.9249	0.0266
	여 자	2.7868	1.1290		
연령	20대	2.7903	1.0828	2.4385	0.0453
	30대	2.6119	1.1642		
	40대	2.7092	1.1450		
	50대	2.7175	1.1190		
	60대 이상	3.0000	1.0731		
거주 지역	서울/경기	2.8437	1.1278	4.5359	0.0012
	경 상	2.6364	1.0627		
	전 라	2.5026	1.0906		
	충 청	2.7086	1.2307		
	강 원	2.8000	1.2383		
학력	중졸 이하	2.7959	1.1567	1.1411	0.3198
	고 졸	2.7206	1.1240		
	대재 이상	2.6746	1.1016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2.6783	1.1543	0.4142	0.7985
	80~119만원	2.7367	1.1534		
	120~199만원	2.7551	1.1055		
	200~299만원	2.7257	1.1034		
	300만원 이상	2.6443	1.1572		
전	체	2.7233	1.1247		

〈표 4-9-2〉 통일후 분야별 전망: 경제성장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2.8865	1.3276	0.3040	0.5815
	여 자	2.8500	1.2346		
연령	20대	2.8411	1.2695	0.3906	0.8155
	30대	2.8682	1.3474		
	40대	2.9442	1.2700		
	50대	2.8312	1.2363		
	60대 이상	2.9403	1.2171		
거주 지역	서울/경기	2.9954	1.2758	6.7585	0.0000
	경 상	2.7864	1.2699		
	전 라	2.4974	1.1944		
	충 청	3.0132	1.3416		
	강 원	2.9091	1.2949		
학력	중졸 이하	2.8787	1.2565	0.8533	0.4262
	고 졸	2.8252	1.2882		
	대재 이상	2.9246	1.2882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2.7972	1.2535	0.7547	0.5548
	80~119만원	2.8861	1.3071		
	120~199만원	2.9098	1.2615		
	200~299만원	2.8879	1.2683		
	300만원 이상	2.7423	1.3411		
전	체	2.8680	1.2810		

〈표 4-9-3〉 통일후 분야별 전망: 빈부격차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3.7838	1.1032	3.0636	0.0803
	여 자	3.6868	1.0416		
연령	20대	3.8114	1.0690	6.0033	0.0001
	30대	3.8209	1.0344		
	40대	3.8008	1.0771		
	50대	3.5032	1.0934		
	60대 이상	3.4925	1.0642		
거주 지역	서울/경기	3.8392	1.0247	4.8347	0.0007
	경 상	3.7341	1.0585		
	전 라	3.4872	1.0810		
	충 청	3.5960	1.1954		
	강 원	3.7455	1.2205		
학력	중졸 이하	3.5207	1.0900	10.9753	0.0000
	고 졸	3.7436	1.0854		
	대재 이상	3.8772	1.0182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3.4545	1.0663	3.0990	0.0149
	80~119만원	3.6975	1.0165		
	120~199만원	3.7680	1.0907		
	200~299만원	3.7994	1.0719		
	300만원 이상	3.7887	1.0877		
전	체	3.7347	1.0732		

〈표 4-9-4〉 통일후 분야별 전망: 실업문제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3.6230	1.1632	0.4383	0.5080
	여 자	3.6618	1.1106		
연령	20대	3.6462	1.1979	2.4077	0.0476
	30대	3.7537	1.0859		
	40대	3.6653	1.1660		
	50대	3.4968	1.0963		
	60대 이상	3.5373	1.0050		
거주 지역	서울/경기	3.7860	1.0725	5.1249	0.0004
	경 상	3.5159	1.1533		
	전 라	3.4821	1.1503		
	충 청	3.6291	1.1979		
	강 원	3.5455	1.3446		
학력	중졸 이하	3.4793	1.0790	5.0227	0.0067
	고 졸	3.6633	1.1625		
	대재 이상	3.7306	1.1282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3.4196	1.1592	2.1407	0.0736
	80~119만원	3.6406	1.1350		
	120~199만원	3.6943	1.1488		
	200~299만원	3.7021	1.0809		
	300만원 이상	3.5619	1.1690		
전	체	3.6427	1.1366		

〈표 4-9-5〉 통일후 분야별 전망: 지역격차

변수	집 단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F 값	P 값
성별	남 자	3.6932	1.1166	0.4852	0.4862
	여 자	3.7329	1.0882		
연령	20대	3.7013	1.1219	3.4570	0.0081
	30대	3.8458	1.0433		
	40대	3.7410	1.1317		
	50대	3.5390	1.1192		
	60대 이상	3.7015	1.0301		
거주 지역	서울/경기	3.8361	1.0228	7.8697	0.0000
	경 상	3.6977	1.1323		
	전 라	3.3385	1.1207		
	충 청	3.7219	1.1953		
	강 원	3.6727	1.1715		
학력	중졸 이하	3.5444	1.1108	5.5986	0.0038
	고 졸	3.7378	1.1205		
	대재 이상	3.7996	1.0561		
가구 소득	79만원 이하	3.6084	1.1261	1.1242	0.3434
	80~119만원	3.6619	1.1130		
	120~199만원	3.7035	1.1162		
	200~299만원	3.8083	1.0583		
	300만원 이상	3.7268	1.1023		
전	체	3.7133	1.1021		

## 제5장 통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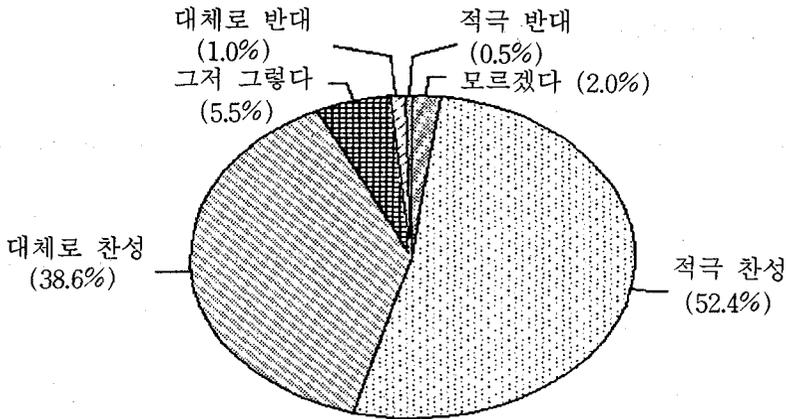
### 1. 남북정상회담 개최

1994년에는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조건까지 합의되었던 남북한 정상회담이 김일성의 돌연한 사망으로 연기되었고, 그 이후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 왔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적극 찬성한다」가 52.4%,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가 38.6%로 찬성하는 의견이 91.0%가 되는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1.0%)와 「적극 반대하다」(0.5%)를 합하여 1.5%에 지나지 않았다(〈그림 5-1〉 참조).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공식적인 직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상회담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은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3년도의 동일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찬성한다는 대답이 49.9%,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이 37.4%였다. 그리고 반대한다

〈그림 5-1〉 남북정상회담 개최



는 의견은 대체로 반대(2.8%)와 적극 반대(0.5%)을 합하여 3.3%였다(중간이다 8.9%). 따라서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비율은 낮아진 반면, 지지하는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적극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록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7월의 정상회담개최 합의에 따라 국민들이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핵문제 해결에 따라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가 극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배경변수별로는 강원도 지역에서 반대하는 비율이 3.6%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소 높았다(〈표 5-1〉 참조).

〈표 5-1〉 남북정상회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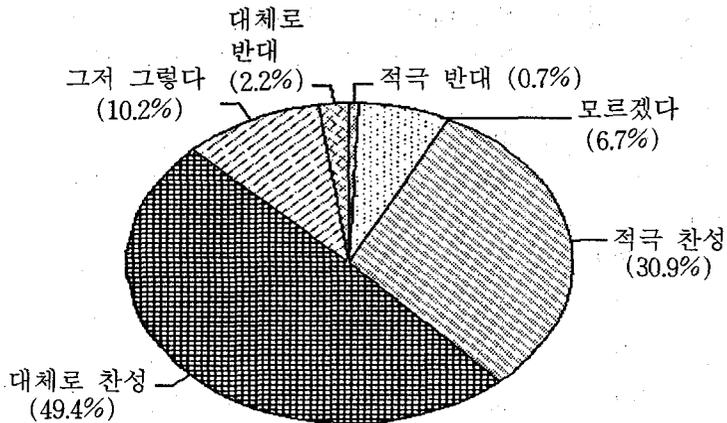
변 수		항 목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모르겠다	유의도
		적극 찬성	대체로 찬성							
성 별	남 자	59.6	33.0	5.5	0.7	0.4	0.8	$X^2=38.39$ P=0.000 N=1,500		
	여 자	45.4	44.1	5.5	1.3	0.5	3.2			
연 령	20대	53.6	38.6	5.7	1.3	0.2	0.6	$X^2=55.15$ P=0.000 N=1,500		
	30대	50.5	41.3	6.5	1.0	0.2	0.5			
	40대	52.2	39.4	4.4	0.8	0.8	2.4			
	50대	53.6	35.7	5.5	1.0	0.6	3.6			
	60대 이상	50.7	32.8	3.0	0.0	1.5	11.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48.6	44.0	5.5	1.1	0.5	0.5	$X^2=85.89$ P=0.000 N=1,500		
	경 상	51.4	39.8	4.3	0.2	0.9	3.4			
	전 라	60.5	28.7	7.7	1.0	0.0	2.1			
	충 청	58.3	33.1	6.0	2.0	0.0	0.7			
	강 원	61.8	14.5	7.3	3.6	0.0	12.7			
학 력	중졸 이하	53.3	34.0	4.1	0.9	0.6	7.1	$X^2=63.57$ P=0.000 N=1,500		
	고 졸	53.0	39.1	5.4	1.1	0.6	0.7			
	대재 이상	50.9	41.2	6.7	0.9	0.2	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52.4	32.9	4.2	0.0	2.1	8.4	$X^2=65.76$ P=0.000 N=1,500		
	80~119만원	56.2	37.4	3.6	1.4	0.0	1.4			
	120~199만원	54.5	37.2	4.8	1.3	0.2	2.0			
	200~299만원	50.1	41.6	6.5	0.6	0.6	0.6			
	300만원 이상	44.8	43.3	9.8	1.0	0.5	0.5			
전 체		52.4	38.6	5.5	1.0	0.5	2.0	N=1,500		

## 2. 남북경협 재개선언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간 경제교류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 보기 위하여, “귀하는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체로 찬성한다」가 49.4%, 「적극 찬성한다」가 30.9%로 찬성하는 의견이 80.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반대하는 의견은 「대체로 반대한다」(2.2%), 「적극반대한다」(0.7%)를 합하여 전체의 2.9%에 불과하였다(〈그림 5-2〉 참조).

따라서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선언의 정당성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1993년도에 핵과 경제협력을 연관시키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4.9%(적극 찬성 20.4%, 대체로 찬성 54.5%)가 찬성하였고, 반대하는 비율이 10.8%(대체로 반대 9.5%, 적극 반대 1.3%)였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2〉 남북경협 재개선언



### 3. 남북경협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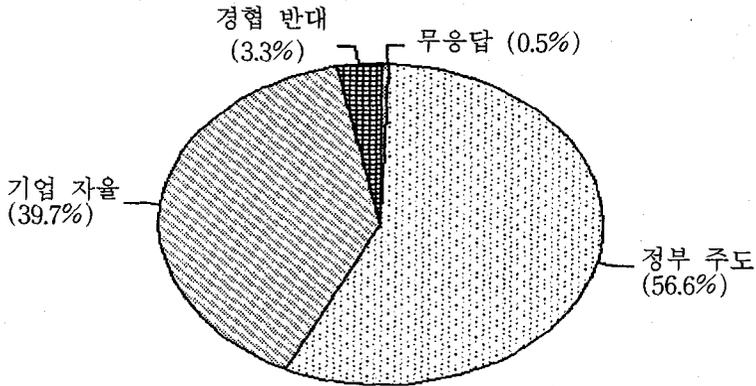
남북한 경제협력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가 전체 응답자의 56.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가 39.7%,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가 3.3%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3〉 참조). 정부주도가 앞선 가운데 국민의 생각이 크게 정부주도와 기업자율로 나뉘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고령층일수록 정부주도를

〈표 5-2〉 남북경협 재개선언

변 수 \ 항 목		적극	대체로	그저	대체로	적극	모르	유의도
		찬성	찬성	그렇다	반대	반대	겠다	
성 별	남 자	39.6	47.0	8.4	2.0	0.8	2.2	$X^2=87.57$ $P=0.000$ $N=1,500$
	여 자	22.4	51.7	12.0	2.4	0.5	11.1	
연 령	20대	35.8	47.9	10.0	2.8	0.6	3.0	$X^2=81.60$ $P=0.000$ $N=1,500$
	30대	26.6	53.7	13.7	2.0	0.2	3.7	
	40대	30.3	50.6	8.0	2.4	0.8	8.0	
	50대	30.8	48.1	7.8	1.0	1.0	11.4	
	60대 이상	23.9	35.8	10.4	4.5	1.5	23.9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7.6	55.8	10.2	1.7	0.6	4.1	$X^2=55.86$ $P=0.000$ $N=1,500$
	경 상	32.5	47.0	10.0	1.6	0.9	8.0	
	전 라	32.8	42.6	12.3	2.6	0.0	9.7	
	충 청	35.8	43.0	9.9	4.6	1.3	5.3	
	강 원	36.4	32.7	5.5	5.5	0.0	20.0	
학 력	중졸 이하	27.2	39.3	10.4	1.8	0.6	20.7	$X^2=150.91$ $P=0.000$ $N=1,500$
	고 졸	29.5	52.0	11.6	2.9	0.7	3.3	
	대재 이상	35.6	52.8	8.0	1.5	0.6	1.5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0.1	40.6	9.1	0.0	0.0	20.3	$X^2=72.24$ $P=0.000$ $N=1,500$
	80~119만원	33.1	43.8	10.7	2.8	0.7	8.9	
	120~199만원	30.9	50.1	10.3	2.8	0.4	5.5	
	200~299만원	28.9	55.2	8.8	2.1	1.2	3.8	
	300만원 이상	31.4	52.1	12.4	1.5	1.0	1.5	
전 체		30.9	49.4	10.2	2.2	0.7	6.7	$N=1,500$

〈그림 5-3〉 남북경협 추진방안



선호한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기업자율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자일수록 기업자율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으며, 특히 대재 이상의 학력자는 기업자율(51.9%)을 정부주도(46.6%) 보다도 선호하였다. 또한 소득별로는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72.0%가 정부주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5-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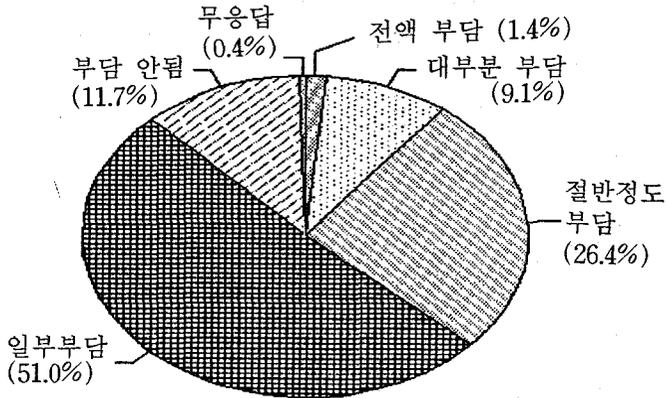
#### 4.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우리의 현안문제인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의 부담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

〈표 5-3〉 남북경협 추진방안

변 수		항 목		정부주도	기업자율	경협반대	무응답	유의도
		남 자	여 자					
성 별	남 자	56.2	41.1	2.4	0.3	$X^2=5.09$ $P=0.165$ $N=1,500$		
	여 자	57.0	38.3	4.1	0.7			
연 령	20대	47.7	49.4	2.8	0.2	$X^2=77.80$ $P=0.000$ $N=1,500$		
	30대	52.7	44.8	2.5	0.0			
	40대	61.0	33.5	5.2	0.4			
	50대	67.5	28.9	2.6	1.0			
	60대 이상	76.1	13.4	7.5	3.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53.4	43.7	2.9	0.0	$X^2=23.30$ $P=0.25$ $N=1,500$		
	경 상	59.1	37.5	2.5	0.9			
	전 라	57.4	35.4	6.7	0.5			
	충 청	60.3	35.1	3.3	1.3			
	강 원	61.8	36.4	1.8	0.0			
학 력	중졸 이하	68.9	26.6	3.6	0.9	$X^2=60.63$ $P=0.000$ $N=1,500$		
	고 졸	57.3	37.8	4.4	0.4			
	대재 이상	46.6	51.9	1.3	0.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72.0	23.8	3.5	0.7	$X^2=24.41$ $P=0.018$ $N=1,500$		
	80~119만원	57.7	38.4	3.2	0.7			
	120~199만원	51.4	44.4	3.7	0.6			
	200~299만원	58.4	38.6	2.9	0.0			
	300만원 이상	55.2	41.8	2.6	0.5			
전 체		56.6	39.7	3.3	0.5	$N=1,500$		

〈그림 5-4〉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을 우리(남한)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 중 「일부 부담해야 한다」가 5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절반정도 부담해야 한다」(26.4%), 「부담해서는 안된다」(11.7%),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9.1%), 「전액 부담해야 한다」(1.4%)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4〉 참조).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절반수준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배경변수별로는 「부담해서는 안된다」에 대해, 60대 이상의 고령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79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의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표 5-4〉 참조).

〈표 5-4〉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변 수 \ 항 목		전액 부담	대부분 부담	절반정도 부담	일부 부담	부담 안됨	무 응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1.8	12.6	25.8	49.3	10.1	0.4	X <sup>2</sup> =25.25 P=0.000 N=1,500
	여 자	1.1	5.7	27.0	52.6	13.3	0.4	
연 령	20대	2.1	10.8	25.6	52.3	8.9	0.2	X <sup>2</sup> =36.46 P=0.014 N=1,500
	30대	1.5	7.7	27.4	51.0	11.4	1.0	
	40대	1.2	12.0	24.7	50.6	11.6	0.0	
	50대	0.6	7.8	28.9	48.4	14.0	0.3	
	60대 이상	0.0	0.0	20.9	55.2	23.9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7	9.0	26.3	52.7	10.3	0.2	X <sup>2</sup> =44.66 P=0.001 N=1,500
	경 상	0.9	9.1	30.0	49.8	9.5	0.7	
	전 라	2.1	8.2	22.1	47.2	20.5	0.0	
	충 청	0.7	6.6	25.8	56.3	9.9	0.7	
	강 원	1.8	20.0	16.4	40.0	20.0	1.8	
학 령	중졸 이하	0.6	6.2	26.9	49.4	16.6	0.3	X <sup>2</sup> =19.70 P=0.032 N=1,500
	고 졸	1.7	9.5	26.6	51.1	10.9	0.1	
	대재 이상	1.5	10.6	25.6	51.9	9.5	0.9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1.4	9.8	26.6	42.7	19.6	0.0	X <sup>2</sup> =35.50 P=0.018 N=1,500
	80~119만원	1.4	9.6	21.0	57.3	10.3	0.4	
	120~199만원	1.8	8.3	24.5	53.4	11.4	0.6	
	200~299만원	0.3	9.4	28.9	50.4	10.9	0.0	
	300만원 이상	2.1	9.3	35.1	42.3	10.3	1.0	
전 체		1.4	9.1	26.4	51.0	11.7	0.4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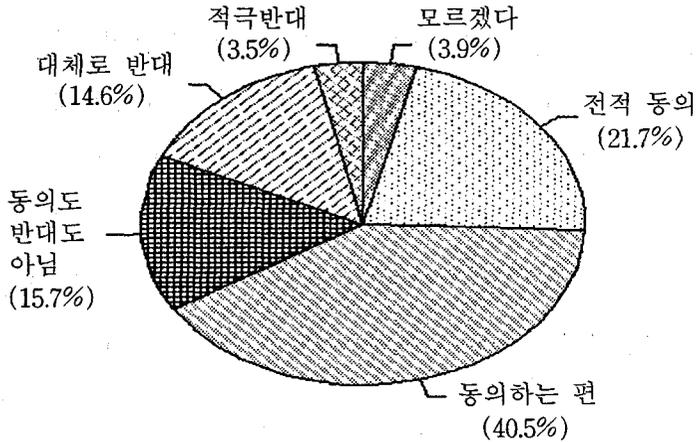
## 5.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독일 통일의 여파로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현재 남북한간의 국력격차를 생각한다면 통일과정에 적지 않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통일은 단기적으로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경우든 통일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이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도 급속한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보았다. 이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40.5%,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1.7%로 전체의 62.2%가 동의하는 반면에,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14.6%, 「적극 반대한다」가 3.5%로 반대 의견은 18.1%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유보적인 응답의 비율은 15.7%였다(<그림 5-5> 참조).

따라서 통일비용의 부담여부에 상관없이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3년도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1993년의 여론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그림 5-5〉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대체로 찬성한다」가 41.9%, 「적극 찬성한다」가 22.5%로 전체 응답자의 63.4%가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총 20.0%였다.

연령별로 20대(56.6%)에 비해서 50대(68.9%)가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중졸 이하(68.1%)와 79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67.2%)이 동의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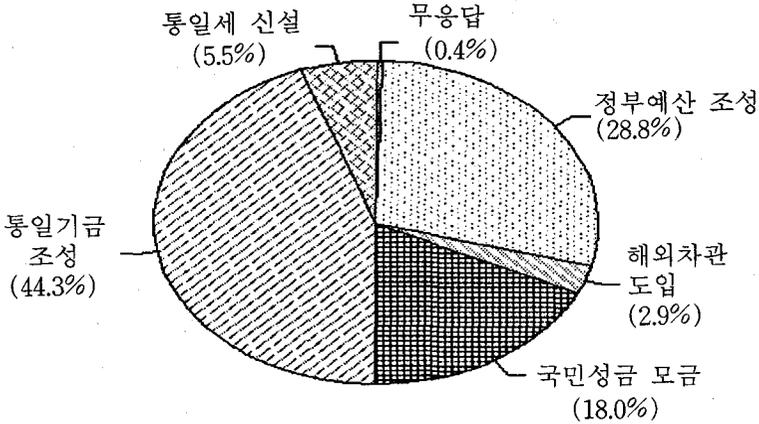
## 6. 통일비용 총당방법

통일과정에 소요될 통일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

〈표 5-5〉 통일비용과 조기통일

변 수		항 목		전적 동의	동의 하는편	동의도 반대도 아님	대체로 반대	적극 반대	모르 겠다	유의도
성 별	남 자	25.5	40.7	11.1	16.6	3.8	2.3	$X^2=44.29$ $P=0.000$ $N=1,500$		
	여 자	18.0	40.4	20.3	12.6	3.2	5.5			
연 령	20대	17.6	39.0	18.9	18.2	4.0	2.3	$X^2=41.11$ $P=0.004$ $N=1,500$		
	30대	22.1	41.3	15.4	14.7	2.5	4.0			
	40대	21.1	42.2	13.1	15.5	4.4	3.6			
	50대	27.3	41.6	14.6	7.8	2.6	6.2			
	60대 이상	25.4	35.8	10.4	16.4	6.0	6.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17.5	41.4	18.5	17.3	3.0	2.3	$X^2=59.93$ $P=0.000$ $N=1,500$		
	경 상	20.9	41.6	15.2	13.2	3.6	5.5			
	전 라	33.8	37.4	10.3	7.7	4.6	6.2			
	충 청	25.8	41.1	13.2	15.9	2.0	2.0			
	강 원	25.5	30.9	12.7	14.5	7.3	9.1			
학 력	중졸 이하	29.0	39.1	11.8	7.7	3.6	8.9	$X^2=78.22$ $P=0.000$ $N=1,500$		
	고 졸	18.3	43.0	19.3	13.6	3.0	2.7			
	대재 이상	21.6	37.9	13.1	21.1	4.1	2.2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27.3	39.9	8.4	9.1	3.5	11.9	$X^2=47.63$ $P=0.001$ $N=1,500$		
	80~119만원	22.4	42.0	14.9	11.7	3.9	5.0			
	120~199만원	21.5	40.0	16.2	16.6	2.9	2.8			
	200~299만원	19.5	42.2	17.4	14.2	4.1	2.7			
	300만원 이상	21.1	37.6	18.0	18.0	3.1	2.1			
전 체		21.7	40.5	15.7	14.6	3.5	3.9	$N=1,500$		

〈그림 5-6〉 통일비용 총당방법



람직스러운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에 관련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총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44.3%가 「통일기금 조성」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예산조정」이 28.8%, 「국민성금 모금」이 18.0%, 「통일세 신설」이 5.5%, 「해외차관 도입」이 2.9%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6〉 참조). 이러한 순위는 1993년도 여론조사의 동일 문항에 대한 응답률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3년에는 정부예산 재조정이 35.3%, 자발적 성금 모금이 27.2%, 기금조성이 18.9%, 통일세 신설과 같은 세금 징수가 15.1%, 해외차관도입이 1.6%의 순이었다.

1993년에 비해 통일기금조성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자는 의견이 급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조사가 남북경협 재개선언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핵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당국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북한 물품의 유입, 재벌의 대북한 투자의사 발표와 같은 경제교류 혹은 교류 시도가 활발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교류에 따라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집단에 대한 역할기대가 높아진 까닭으로 통일기금을 중시하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통일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0대 이상은 「국민성금 모금」을 가장 좋은 비용 충당 방법으로 꼽았고(34.3%), 강원도 주민들은 「정부예산 조정」을 제일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45.5%). 그러나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일기금 조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표 5-6〉 참조).

〈표 5-6〉 통일비용 총당방법

변 수		항 목	정부 예산 조성	해외 차관 도입	국민 성금 모금	통일 기금 조성	통일 세 신 설	무 응답	유의도
성 별	남 자		25.4	3.6	16.4	47.3	7.2	0.1	X <sup>2</sup> =23.06 P=0.000 N=1,500
	여 자		32.1	2.2	19.6	41.4	3.9	0.7	
연 령	20대		29.0	2.5	17.6	45.1	5.7	0.0	X <sup>2</sup> =36.51 P=0.013 N=1,500
	30대		27.4	3.0	13.4	50.0	6.0	0.2	
	40대		29.1	4.4	16.3	43.0	6.4	0.8	
	50대		29.9	2.6	22.4	39.9	4.2	1.0	
	60대 이상		29.9	1.5	34.3	29.9	4.5	0.0	
거 주 지 역	서울/경기		26.7	3.8	18.1	45.2	6.1	0.2	X <sup>2</sup> =34.57 P=0.023 N=1,500
	경 상		26.6	2.3	16.4	48.4	5.2	1.1	
	전 라		35.9	2.6	21.0	35.9	4.6	0.0	
	충 청		29.1	2.0	17.2	46.4	5.3	0.0	
	강 원		45.5	1.8	21.8	25.5	5.5	0.0	
학 력	중졸 이하		32.8	3.3	24.3	33.4	4.7	1.5	X <sup>2</sup> =42.67 P=0.000 N=1,500
	고 졸		26.9	2.6	18.2	46.8	5.3	0.1	
	대재 이상		28.7	3.2	13.1	48.5	6.5	0.0	
가 구 소 득	79만원 이하		37.8	4.9	23.8	25.9	5.6	2.1	X <sup>2</sup> =43.45 P=0.002 N=1,500
	80~119만원		26.7	2.8	18.9	45.6	5.7	0.4	
	120~199만원		26.2	2.2	18.6	48.3	4.4	0.4	
	200~299만원		30.4	2.7	14.5	46.0	6.5	0.0	
	300만원 이상		29.9	4.1	17.0	42.3	6.7	0.0	
전 체			28.8	2.9	18.0	44.3	5.5	0.4	N=1,500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994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의 북한 관련 인식, 통일 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통일정책 관련 인식, 통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나아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과 정책대안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사실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북한 관련 인식

대다수의 국민들(70.7%)은 북한 사회에 대해 우상화·세습 체제, 인권탄압, 경제적 낙후, 호전성 등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민족주의, 자주외교, 평등, 주체사상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민은 25.2%에 불과하였다.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으나 부정적 이미지의 주원인으로 우상화·세습체제는 약화된 반면 인권탄압, 경제적 낙후 등의 요인은 강화되었다.

남북간 국력격차와 탈냉전의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북한

을 경쟁하거나 적대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협력하면서도 도와주어야 할 대상(59.6%)이라고 응답하였으나, 동시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대상(30.7%)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일·중·러의 주변4국과 축구시합을 할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사람이 각각 80.9%, 94.7%, 92.5%, 90.0% 등으로 작년에 비해 5~10% 정도 높아진 것을 볼 때 북한 주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국민의 민족적 친화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작년의 65.7%보다 6.1% 많은 71.8%의 국민은 북한이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김일성 사망과 북·미 고위급 3단계회담 등으로 인해 북한의 변화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화의 주요인으로는 경제난(37.6%)과 국제적 개방압력(30.5%)을 꼽았으며, 변화를 억제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외부정보 통제(30.7%), 주민감시(27.4%)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78.0%의 국민이 경제난 해결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44.2%,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45.2%로 엇갈리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지속 전망에 관해서는 2~5년으로 예상한 사람(62.9%)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6~9년(16.2%), 10년 이상(13.5%) 등으로 응답하였으

며, 199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1년 이하 또는 10년 이상 등 극단적인 예측은 감소하였으며 6~9년이라는 중간적 혹은 중기적 평가는 증가하였다.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견해가 57.2%, 불신한다는 견해가 33.2%를 차지하였다. 1992년의 경우 신뢰한다는 의견이 51.8%, 불신한다는 의견이 48.2%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한 신뢰가 다소 높아졌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남북간 국력격차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북한이 생활수준(96.1%), 자유·인권(95.0%), 선거방식(92.7%), 의료혜택(89.8%), 주택보급(79.5%), 과학·기술(77.1%), 교육(68.5%) 등의 분야에서 매우 열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북한은 군사력(76.0%), 치안(56.7%), 환경보호(43.5%) 등에서 남한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1992년과 비교해 볼 때, 생활수준, 자유·인권, 선거방식, 의료혜택, 주택보급 면에서 북한의 사정은 악화되었으며, 교육과 과학·기술, 치안, 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의 사정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2. 통일 관련 대내외 환경 인식

남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은 남한에 가

까운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 순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가까운 국가라고 응답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의 외교·경제관계가 밀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82.2%)가 중국을 북한에 가까운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외형상 한·중관계의 발전과는 달리 우리 국민은 아직도 중국을 내심 경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주변국으로 국민들은 미국(43.7%)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상당수의 국민들(33.8%)은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이 없다고 응답하여 통일문제와 관련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을 바라는 주변국이 없다는 응답자 중 69.0%는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로 일본을 지적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감축(45.8%)과 현상 유지(39.3%)로 다소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분적인 수정(38.3%)과 대체법 마련(23.9%)에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체로 수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표명하고 있다. 주사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0%가 우리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북·미수교 및 북·일수교에 대한 반응에서 북·미수교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62.6%인 반면, 북·일수교에 대한 찬성은 42.4%로 북·미수교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상당부분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미 핵협상 타결이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을 대비한 교육경험 여부에 대해서 응답자의 59.0%가 학교 이외에서 통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것은 비록 학교교육을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통일교육의 경험이 지나치게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의 통일교육 경험이 매우 낮아 통일교육의 강화 뿐만 아니라 전계층을 상대로한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통일 이후의 상황(33.5%)과 북한의 실상(30.3%)을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후 상황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통일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실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북한 사정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북한에 대한 교육이 만족스럽지 않았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3. 통일정책 관련 인식

국민들의 대부분(91.6%)은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가장 큰 이유로서 민족의 재결합(59.0%)을 들고 있으며, 현실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전쟁발발 방지(14.6%), 선진국 진입(14.2%), 이산가족 고통해소(11.0%) 등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서 남북한의 이질성 심화(30.2%), 사회적 혼란 야기(28.6%), 경제적 부담 가중(25.4%) 등에 엇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통일예상시기에 대해서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사람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2.5%가 30년 이내에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국민 대다수가 한 세대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1993년의 75.9%보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통일시기에 대해 조금 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2.9%인 반면,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도 42.4%로 높게 나타났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1994년 8

월 15일 공식화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홍보기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홍보 및 통일교육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57.2%인 반면 부정적인 견해도 19.7%를 차지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남북한 신뢰구축(33.1%), 경제교류 및 협력(31.2%)을 가장 우선시하였으며, 이산가족 상봉(18.5%), 군사적 대결해소(11.9%) 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북·미회담 결과 북한 핵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됨으로써 남북관계에 있어 경제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통일을 대비한 역점사업으로는 응답자의 55.9%가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여 국민들이 경제력 향상을 통일의 핵심적인 과제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서독의 경제적 부담과 최근들어 통일논의가 경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과정에 대해서는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견해가 28.3%를 차지하고 있어 통일환경의

변화(23.6%), 국민들의 여론수렴(20.9%),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13.8%) 등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즉 응답자의 상당수는 합리적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통일정책이 국내정치 상황에 따르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급속한 붕괴는 통일을 앞당기게 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58.7%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은 북한의 붕괴가 통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붕괴가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통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29.4%), 즉 통일에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수 의견의 표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붕괴와 관련한 우리의 대처 방안으로 정치·경제적인 지원(38.2%), 적극 개입하여 통일 달성(30.1%), 인도적 지원(25.8%) 등 전반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개입의 형태와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통일 이후의 상황을 전망하는데 있어 51.0%의 응답자는 정치적인 민주화는 개선될 것이라고 대답하여 악화(30.6)될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보다 우세하였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49.3%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41.7%는 악화될 것이라고 하여 통일 이후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엇비슷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통일 이후 빈부격차, 실업문제, 지역격차에 있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각각 64.0%, 64.8%, 63.4%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비관적인 견해가 매우 우세하였다.

1992년 이래 3년 동안 계속된 통일후 각 분야에 대한 전망을 묻는 이 질문에서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고 통일이 중요한 현안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동시에 통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4. 통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

1994년 한 해 동안의 통일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여부, 남북경협 재개선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법, 그리고 북·미회담 과정에서 나타난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문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과 조기통일과의 관계 및 통일비용 충당방법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91.0%가 되는 반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의 공식적인 직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상회담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한 장애요소가 극복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선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80.3%로 절대 다수임에 반해 반대 의견은 2.9%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선언을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핵문제 타결에 따라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 추진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56.6%는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39.7%를 차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국민들의 생각은 대북 진출에 있어 기업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정부주도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나 크게 보아 정부주도와 기업자율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젊은 층과 고학력자일수록 기업자율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높았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남한)가 일

부 부담해야 한다'가 51.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절반정도 부담(26.4%), 부담해서는 안됨(11.7%), 대부분 부담(9.1%), 전액 부담(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대다수는 경수로 건설비용을 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절반정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남북한의 국력격차를 고려할 때 급속한 통일은 단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통일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조기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체의 62.2%가 동의하는 반면, 반대 의견은 18.1%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유보적인 응답의 비율은 15.7%였다. 이 결과는 1993년도 경우와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통일비용의 부담여부에 상관없이 조기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 소요될 통일비용 충당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4.3%가 통일기금 조성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정부예산조정이 28.8%, 국민성금 모금이 18.0%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위는 1993년도 여론조사의 동일 문항에 대한 응답률과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기금조성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하자는 의견이 급증하였다. 이것은 남북경협이 증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득을 보

는 집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동시에 통일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다소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국민들의 대부분은 통일을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민족적 친화력이 점증하고 있고 남북경협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동시에 남북경협 추진,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 통일후 전망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홍보부족과 함께 통일과 관련한 국민들의 주된 관심분야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비용 부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높아진 만큼 통일교육의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 등

보도매체를 통한 통일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통일교육 경험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통일교육을 전계층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빈 면

## 부 록 : 설문지

빈 면

## 1994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민족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통일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한편,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확하게 파악·수렴하여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결과는 통계처리되어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통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통일문제에 대한 귀하의 평소 견해를 표명해 주시면 통일정책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설문에 대해 응답하실때 다음 사항들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이나 느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 를 표시해 주십시오.
2.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곳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1994년 11월

민족통일연구원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 237-9288)

북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는 **북한**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 \_\_\_\_\_ ① 평등  
 \_\_\_\_\_ ② 자주적 외교  
 \_\_\_\_\_ ③ 민족주의  
 \_\_\_\_\_ ④ 주체사상  
 \_\_\_\_\_ ⑤ 이상화, 세습체제  
 \_\_\_\_\_ ⑥ 호전성  
 \_\_\_\_\_ ⑦ 경제적 낙후  
 \_\_\_\_\_ ⑧ 인권탄압  
 \_\_\_\_\_ ⑨ 기타 (무엇 : \_\_\_\_\_ )

2.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도와주어야 할 대상  
 \_\_\_\_\_ ② 대등한 협력대상  
 \_\_\_\_\_ ③ 경쟁대상  
 \_\_\_\_\_ ④ 경계해야 할 대상  
 \_\_\_\_\_ ⑤ 적대대상

3. 귀하는 다음과 같이 축구시합을 할 때 각각 어느 팀을 응원하겠습니까?

- 가. \_\_\_\_\_ ① 북한 : \_\_\_\_\_ ② 미국  
 나. \_\_\_\_\_ ① 북한 : \_\_\_\_\_ ② 일본  
 다. \_\_\_\_\_ ① 북한 : \_\_\_\_\_ ② 러시아  
 라. \_\_\_\_\_ ① 북한 : \_\_\_\_\_ ② 중국





11. 귀하는 남한과 비교하여 다음 각 분야에서 북한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우월함	② 다소 우월함	③ 대등함	④ 다소 뒤떨어짐	⑤ 매우 뒤떨어짐
가. 자유 및 인권보장					
나. 선거방식					
다. 생활수준					
라. 주택보급					
마. 의료혜택					
바. 교육					
사. 과학·기술					
아. 치안					
자. 환경보호					
차. 군사력					

국제정세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2-1. 귀하는 **미국**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남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② 남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③ 북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④ 북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⑤ 모르겠다

12-2. 귀하는 **일본**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남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② 남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③ 북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④ 북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⑤ 모르겠다

12-3. 귀하는 **중국**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남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② 남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③ 북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④ 북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⑤ 모르겠다

12-4. 귀하는 러시아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남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② 남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③ 북한에 다소 가깝다  
 \_\_\_\_\_ ④ 북한에 아주 가깝다  
 \_\_\_\_\_ ⑤ 모르겠다

13. 귀하는 주변 강대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미국  
 \_\_\_\_\_ ② 일본  
 \_\_\_\_\_ ③ 중국  
 \_\_\_\_\_ ④ 러시아  
 \_\_\_\_\_ ⑤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14번 문항으로)  
 \_\_\_\_\_ ⑥ 모르겠다

14.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미국  
 \_\_\_\_\_ ② 일본  
 \_\_\_\_\_ ③ 중국  
 \_\_\_\_\_ ④ 러시아

15. 귀하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전면 철수해야 한다
- \_\_\_\_\_ ②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 \_\_\_\_\_ ③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_\_\_\_\_ ④ 약간 증강해야 한다
- \_\_\_\_\_ ⑤ 대폭 증강해야 한다
- \_\_\_\_\_ ⑥ 모르겠다

16-1. 귀하는 북한-미국간의 수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적극<br>찬성한다 | 대체로<br>찬성하는<br>편이다 | 그저<br>그렇다 | 대체로<br>반대하는<br>편이다 | 적극<br>반대한다 | 모르겠다 |

16-2. 귀하는 북한-일본간의 수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적극<br>찬성한다 | 대체로<br>찬성하는<br>편이다 | 그저<br>그렇다 | 대체로<br>반대하는<br>편이다 | 적극<br>반대한다 | 모르겠다 |

통일과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7. 귀하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필요하다(18번 문항으로)

\_\_\_\_\_ ② 불필요하다(19번 문항으로)

18.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귀하는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민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_\_\_\_\_ ②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하여

\_\_\_\_\_ ③ 전쟁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_\_\_\_\_ ④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_\_\_\_\_ ⑤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19.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귀하는 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국가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_\_\_\_\_ ② 경제적 부담(세금, 실업 증가)이 가중되기 때문에

\_\_\_\_\_ ③ 사회적 혼란(범죄, 지역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에

\_\_\_\_\_ ④ 남북한 이질성(문화, 가치 대립)이 심화되기 때문에

\_\_\_\_\_ ⑤ 교류협력하면서 평화롭게 살면 되기 때문에

20. 귀하는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 적극        대체로        그저        대체로        적극        모르겠다
- 찬성한다    찬성하는    그렇다    반대하는    반대한다
- 편이다                    편이다

21. 귀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_\_\_\_\_ ① 잘 알고 있다
- \_\_\_\_\_ ② 조금 알고 있다
- \_\_\_\_\_ ③ 모른다

22. 귀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분야의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남북한 신뢰구축
- \_\_\_\_\_ ② 군사적 대결 해소
- \_\_\_\_\_ ③ 경제교류 및 협력
- \_\_\_\_\_ ④ 체육과 문화분야의 교류
- \_\_\_\_\_ ⑤ 이산가족 상봉
- \_\_\_\_\_ ⑥ 기타 (무엇:                    )

23. 귀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⑤            ⑥
- 적극        대체로        그저        대체로        적극        모르겠다
- 찬성한다    찬성하는    그렇다    반대하는    반대한다
- 편이다                    편이다

24. 만약 북한이 급속하게 붕괴된다면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다  
 \_\_\_\_\_ ② 통일이 지연될 것이다  
 \_\_\_\_\_ ③ 통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_\_\_\_\_ ④ 모르겠다

25. 만약 북한이 급속하게 붕괴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_\_\_\_\_ ② 식량 등 인도적 차원에서만 지원해야 한다  
 \_\_\_\_\_ ③ 북한이 안정을 회복하도록 정치·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_\_\_\_\_ ④ 적극 개입하여 통일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26. “통일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 )      ( )      ( )      ( )      ( )      ( )
- ① 전적으로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④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⑤ 적극 반대한다    ⑥ 모르겠다

27. 귀하는 통일에 관련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정부 예산 조정  
 \_\_\_\_\_ ② 해외 차관 도입



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 \_\_\_\_\_ ① 북한의 실상  
 \_\_\_\_\_ ② 통일 이후의 상황  
 \_\_\_\_\_ ③ 독일과 같이 통일된 국가의 경험  
 \_\_\_\_\_ ④ 북한 주민들과의 공동생활 방안  
 \_\_\_\_\_ ⑤ 남북한의 통일정책  
 \_\_\_\_\_ ⑥ 기타 (무엇 : )  
 \_\_\_\_\_ ⑦ 특별한 교육이 필요없음

32. 귀하는 통일 후 다음 각 분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개선 될 것이다	② 다소 개선 될 것이다	③ 마찬가지일 것이다	④ 다소 악화 될 것이다	⑤ 크게 악화 될 것이다
32-1. 정치적 민주화					
32-2. 경제성장					
32-3. 빈부격차					
32-4. 실업문제					
32-5. 지역격차					

33.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예상하십니까?
- \_\_\_\_\_ ① 5년 이내  
 \_\_\_\_\_ ② 10년 이내  
 \_\_\_\_\_ ③ 30년 이내  
 \_\_\_\_\_ ④ 30년 이상
34. 귀하는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용을 우리(남한)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전액 부담해야 한다  
 \_\_\_\_\_ ②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  
 \_\_\_\_\_ ③ 절반 정도 부담해야 한다  
 \_\_\_\_\_ ④ 일부 부담해야 한다  
 \_\_\_\_\_ ⑤ 부담해서는 안된다
35. 귀하는 북한과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_\_ ②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_\_ ③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_\_ ④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_\_\_\_\_ ⑤ 별로 상관없다
36. 귀하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_\_\_\_\_ ②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_\_\_\_\_ ③ 경제협력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37. 귀하는 주사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우리 체제에 대단히 위협적이다  
 \_\_\_\_\_ ② 우리 체제에 다소 위협적이다  
 \_\_\_\_\_ ③ 우리 체제에 위협적이지 않다  
 \_\_\_\_\_ ④ 모르겠다

38. 귀하는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을 달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크게 기여한다  
 \_\_\_\_\_ ② 다소 기여한다  
 \_\_\_\_\_ ③ 기여하지 못한다  
 \_\_\_\_\_ ④ 오히려 해가 된다  
 \_\_\_\_\_ ⑤ 모르겠다

39. 귀하는 정부의 통일정책(방안)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진다  
 \_\_\_\_\_ ②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진다  
 \_\_\_\_\_ ③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_\_\_\_\_ ④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만들어진다  
 \_\_\_\_\_ ⑤ 모르겠다

끝으로 귀하 자신에 관해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_\_\_\_ ① 무학

\_\_\_\_\_ ② 국민학교

\_\_\_\_\_ ③ 중학교

\_\_\_\_\_ ④ 고등학교

\_\_\_\_\_ ⑤ 초급 전문대학 (2년제)

\_\_\_\_\_ ⑥ 4년제 대학

\_\_\_\_\_ ⑦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불교

\_\_\_\_\_ ② 기독교

\_\_\_\_\_ ③ 천주교

\_\_\_\_\_ ④ 민족종교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 등)

\_\_\_\_\_ ⑤ 유교

\_\_\_\_\_ ⑥ 없음

\_\_\_\_\_ ⑦ 기타 (무엇 : \_\_\_\_\_ )

5. 귀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 \_\_\_\_\_ ① 서울  
 \_\_\_\_\_ ② 경기  
 \_\_\_\_\_ ③ 강원  
 \_\_\_\_\_ ④ 충청  
 \_\_\_\_\_ ⑤ 경상  
 \_\_\_\_\_ ⑥ 전라  
 \_\_\_\_\_ ⑦ 제주  
 \_\_\_\_\_ ⑧ 이북  
 \_\_\_\_\_ ⑨ 기타

6. 귀하께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_\_\_\_\_ ① 대도시  
 \_\_\_\_\_ ② 중소도시  
 \_\_\_\_\_ ③ 읍, 면지역

7. 귀하는 북한에 친인척이 있습니까?

-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8. 귀하의 한달 평균수입(소득, 이자, 잡수입 등 모두 포함한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귀하의 전체 가구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 모두를 표시해 주십시오.

본인소득    전체 가구소득

(       )    (       )

- ① \_\_\_\_\_    \_\_\_\_\_    ① 40만원 미만  
 ② \_\_\_\_\_    \_\_\_\_\_    ② 40~79만원  
 ③ \_\_\_\_\_    \_\_\_\_\_    ③ 80~119만원

- ④ \_\_\_\_\_ ④ 120~199만원  
 ⑤ \_\_\_\_\_ ⑤ 200~299만원  
 ⑥ \_\_\_\_\_ ⑥ 300~499만원  
 ⑦ \_\_\_\_\_ ⑦ 500~999만원  
 ⑧ \_\_\_\_\_ ⑧ 1000만원 이상

## 9. 귀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 없으면 괄호 안에 직접 자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_\_ 번 (무엇 : \_\_\_\_\_)

## 〈보 기〉

전문직

- (01) 의사 (02) 약사, 간호사  
 (03) 변호사, 판사, 검사 (04) 대학교수, 연구원  
 (05) 교사, 학원강사 (06) 언론인, 방송인  
 (07) 엔지니어(무엇 : ) (08) 종교인  
 (09) 대학강사 (10) 기타 전문직(무엇 : )

공무원 및 사회단체

- (11) 고급공무원 (4급서기관 이상, 총경 이상)  
 (12) 일반공무원 (5급사무관 이하, 경정 이하)  
 (13) 군인 (영관급 이상) (14) 군인 (위관급, 하사관)  
 (15) 기능직 공무원(무엇 : )  
 (16) 고용직 공무원(무엇 : )

기업체 (은행 및 금융업 포함)

- (21) 대기업체 경영주, 중역, 임원 (이사급 이상)

(22) 중간관리직 사원 (부장, 차장, 과장급)

(23) 사무직 사원 (대리, 계장, 평사원)

(24) 중소기업 사장 (무엇 : )

#### 판매·서비스직

(31) 영세자영업 및 상점주인 (무엇 : )

(32) 음식점, 여관, 세탁소 등의 주인 (무엇 : )

(33) 복덕방, 부동산 중개인 (34) 점원

(35) 서비스직 피고용인 (36) 수위, 경비원, 청소원

(37) 외판원 (38) 행사, 노점상, 파출부

(39) 기타 판매 서비스직

#### 생산직

(41) 생산감독 (주임 및 반장) (42) 숙련공 (무엇 : )

(43) 공장근로자 (무엇 : ) (44) 자동차·중장비 운전자

(45) 막노동, 단순노동자 (46) 가내 수공업 (무엇 : )

#### 농어민

(51) 부농 (소유경작 6,000평 이상)

(52) 중농 (3,000~6,000평 미만)

(53) 소농 (1,500~3,000평 미만)

(54) 빈농 (1,500평 미만) (55) 농업노동자, 품일꾼

(56) 축산, 낙농업주 (57) 선주

(58) 선원, 어부 (59) 기타 농어업 (무엇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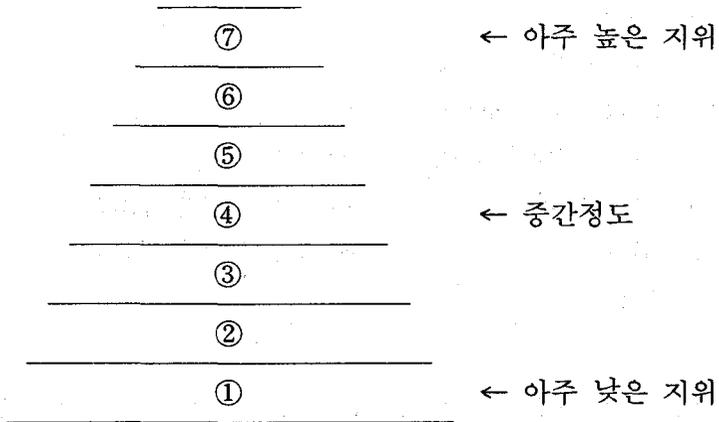
#### 기 타

(61) 학생 (62) 주부

(63) 무직 (64)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65) 군인(사병), 방위병, 전경 (66) 기타 (무엇 : )

10.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이르기까지 7개의 층으로 나눈다고 할 때, 귀하는 어디쯤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귀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_\_\_\_\_ ① 예  
 \_\_\_\_\_ ② 아니오(12번 문항으로)

12. 무주택자이면 아래의 어느 것에 해당하십니까?

① 전세(독채)  
 ② 전세(방)  
 ③ 월세  
 ④ 기타 (무엇 : \_\_\_\_\_ )

조사원 기록사항
----------

○ 조사일시 :           년           월           일

○ 조사지역 :

○ 조사방법 : (    ) 면접  
                  (    ) 응답자 자기기입  
                  (    ) 면접과 응답자 자기기입의 병행

○ 방문회수 : (    )회

○ 조사원 성명 :

○ 피면접자 전화번호 :

---

---

**1994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研究報告書 94-19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

---